

제10권 1호(통권 제25호) 2005. 12

경기도사서연구회지

Bulletin of the Research Society for Gyeonggi Librarian

■ 사서 제언

- 공공도서관

-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추진 과정 - 김지봉
- 과천도서관 리모델링 개요 및 효과 - 박현모
-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 구은진
- 2006년 경기도교육청 건립도서관 현황 - 황원규
- 「WLIC2006서울」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 소개 - 정영숙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허춘자
-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 김인숙
-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효과 - 조성일

■ 도서관, 활동의 현장

- 2005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 이경옥, 백혜림
- 평택분관 독서치료동아리 “새봄” 활동소개 및 제언 - 성경희
-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 진경미
- 청소년독서회 “아름드리” 운영사례 - 황원규
- 대출·반납업무의 표준화 - 원혜정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문고 운영사례 - 윤선경
- 학교도서관, 그 현장 속에서 - 한윤조
-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로서의 역할 - 이재은

■ 해외연수보고

- WLIC 제71차 국제도서관연맹 대회 참가 보고서 - 김진숙
- 덴마크 왕립도서관을 다녀와서 - 김영우
- 싱가폴, 일본 도서관 연수 보고서 - 강미자

■ 교육연수보고

■ 부록

경기도사서연구회

제10권 1호(통권 제25호) 2005. 12

경기도사서연구회지

Bulletin of the Research Society for Gyeonggi Librarian

■ 사서 제언

- 공공도서관

-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추진 과정 - 김지봉
- 과천도서관 리모델링 개요 및 효과 - 박현모
-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 구은진
- 2006년 경기도교육청 건립도서관 현황 - 황원규
- 「WLIC2006서울」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 소개 - 정영숙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허춘자
-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 김인숙
-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담당부서 설치 효과 - 조성일

■ 도서관, 활동의 현장

- 2005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 이경옥, 백혜림
- 평택분관 독서치료동아리 “새봄” 활동소개 및 제언 - 성경희
-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 진경미
- 청소년독서회 “아름드리” 운영사례 - 황원규
- 대출 · 반납업무의 표준화 - 원혜정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문고 운영사례 - 윤선경
- 학교도서관, 그 현장 속에서 - 한윤조
- 균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로서의 역할 - 이재은

■ 해외연수보고

- WLIC 제71차 국제도서관연맹 대회 참가 보고서 - 김진숙
- 덴마크 왕립도서관을 다녀와서 - 김영우
- 싱가폴, 일본 도서관 연수 보고서 - 강미자

■ 교육연수보고

■ 부록

경기도사서연구회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인은 민족과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운영주체로서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 책임은 우리들 도서관인의 모든 직업적 행위의 바탕에, 비판적 자기성찰과 윤리적 각성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으로 우리가 지켜 나갈 윤리적 지표를 세워 오늘 세상에 천명한다.

1. 【사회적 책무】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가.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 나.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 라.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적 선도자가 된다.

2. 【자아성장】

도서관인은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문명과 더불어 발전한다.

- 가. 도서관인은 자신을 개선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한다.
- 나.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가 역사를 보존하며 사실을 전수하는 행위임을 자각한다.
- 다. 도서관인은 사회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라. 도서관인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며 열정과 인내, 그리고 용기와 희망 속에서 일한다.

3. 【전문성】

도서관인은 전문적 지식에 정통하며 자율성을 견지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한다.

- 가. 도서관인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한다.
- 나. 도서관인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 다. 도서관인은 소속된 조직의 입장이 전문성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전문가적 신념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 라. 도서관인은 전문직 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협력】

도서관인은 협동력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가. 도서관인은 협력의 기초가 되는 소속 도서관의 능력 신장에 먼저 노력한다.
-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간의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다. 도서관인은 다른 사회기관과 협력하여 부단히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 라. 도서관인은 자신의 조직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협력의 의지를 지켜나간다.

5. 【봉사】

도서관인은 모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도한다.

- 가.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전문적 봉사에 힘쓴다.
- 나.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이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다. 도서관인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 라. 도서관인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자료】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거부한다.

- 가. 도서관인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
- 나.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다.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조직함에 있어서 표준화를 지향한다.
- 라.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7. 【품위】

도서관인은 공익기관의 종사자로서 높은 품위를 유지한다.

- 가. 도서관인은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 나. 도서관인은 항상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아니한다.
- 다. 도서관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일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 라. 도서관인은 직업적 윤리규범을 성실히 지킨다.

Contents

■ 사서 제언

- 공공도서관

-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추진 과정 – 김지봉
과천도서관 리모델링 개요 및 효과 – 박현모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 구은진
2006년 경기도교육청 건립도서관 현황 – 황원규
「WLIC2006서울」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 소개 – 정영숙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허춘자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 김인숙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효과 – 조성일

■ 도서관, 활동의 현장

- 2005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 이경옥, 백혜림
평택분관 독서치료동아리 “새봄” 활동소개 및 제언 – 성경희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 진경미
청소년독서회 “아름드리” 운영사례 – 황원규
대출·반납업무의 표준화 – 원혜정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문고 운영사례 – 윤선경
학교도서관, 그 현장 속에서 – 한윤조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로서의 역할 – 이재은

■ 해외연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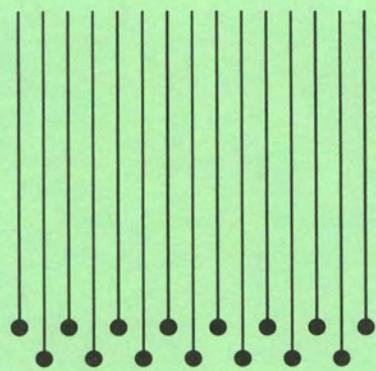
- WLIC 제71차 국제도서관연맹 대회 참가 보고서 – 김진숙
덴마크 왕립도서관을 다녀와서 – 김영우
싱가폴, 일본 도서관 연수 보고서 – 강미자

■ 교육연수보고

- 현장실무적용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이선희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 과제 – 박치성
「문현정보관리과정」 연수보고서 – 최선주
신규자 연수를 다녀와서 – 박주희

■ 부록

- 경기도사서연구회(경사연) 카페 운영현황 – 안지현
2005년 신규 사서 현황



사서 제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 정책과 발전

경기도교육청 사서사무관 / 김 지 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1. 도서관 정책의 시작–정책형성 여건을 만들자
2. 정책추진 그리고 갈등
3. 마지막 교두보 사이버도서관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의 갈등
4. 법령과 제도를 고치자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책추진과정(1998-2002)

경기도교육청 사서사무관 김 지 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이 자료는 1998년 7월 경기도에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고 곧이어 도서관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02년까지 그 전개과정과 갈등을 자기 기술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 중앙도서관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내용들이 수용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자료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아마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면의 기록으로 후일 지역도서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도서관 정책의 시작-정책형성 여건을 만들자

1998년 10월경, 그 시기에 본인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포천군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95년부터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자는 도서관운동을 시작한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성과도 별로 없었고 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가끔 남북으로 40km, 동서로 20km의 넓은 포천지역을 차로 이곳, 저곳 달리면서 수려한 경치와 순박한 포천 인심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에 가장 바쁘게 문화부, 도서관협회, 경기도청,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대학교, 시민단체 등 도서관 관련기관과 정치인들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자료도 열심히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도 만들었다. 그 덕에 자연히 도서관 관련 세미나도 참가하여 정책방안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료구입관계로 광화문에 나가면 문화부에도 가끔 들려 담당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실제로 1997년 초 서울시의 도서관발전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연구하는 것을 알고 직접 찾아가서 책임연구원과 2시간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후 그 책임연구원과는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관계가 되었고 후일 동료처럼 지냈다. 이러한 활동으로 도서관계에 개인적으로 많이 홍보되어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에는 과거 4년간 관련기관들을 찾아다니는 축적된 경험으로 나는 어느덧 세일즈맨처럼 협상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교육청 평생체육과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도서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내용은 도청에서 공공도서관관련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어제 교육청에 방문하여 자료요청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순간 그동안 도청 담당부서를 가끔 찾아 가서 정책설명도 하고 자료요청도하면서 느낀 도청담당직원들의 평소 무관심한 반응으로 보면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항상 “도서관 업무는 우리 업무의 4분지 1일에 불과하다. 도서관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하는 식의 답변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필요한 것을 정리한 다음 도청의 담당자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포천을 떠났다. 가끔 도청을 찾으면 사무실 입구에서 잠시 긴장을 푸느라 머뭇거리면서 담당자가 누군지 확인부터 하곤 했다. 그 시기만 해도 문화관련 부서는 수시로 인력이 교체되어 6개월 정도면 사람들을 알아 볼 수가 없었다. 가끔 교육청 사서가 도청에 찾아 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자신있게 들어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이던 새로운 담당자에게 평소 작성한 자료를 보여 주면서 1시간 반 정도 경기도 공공도서관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하면서 나는 새로운 경기도지사(임창열)가 공공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책임자인 국장에 파격적인 젊은 엘리트공무원을 배치하였다. 이는 문화업무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그 정책지시사항은 도지사가 당선된 직후 업무보고에서 “도서관이 명실공히 지역의 문화진흥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도는 이미 그동안 상당한 자료수집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였다. 과의 분위기로 보아 연말까지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측되었다. IMF경제체제를 운영하였던 경제부처 수장이 도지사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문화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경기도 공무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 시기에 도청에서 준비한 방안은 도민인구 1,000만시대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44개의 도서관을 85개관으로 늘리고 동사무소에 작은 문고건립,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문고설치, 자료대폭확충, 직원확충,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등 이었다. 본인은 도서관 발전의 핵심은 지방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보고 평소에 꿈꾸던 도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역중심적인 사안들이 국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도서관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그때 나의 논리였다. 개별적으로 단순하게 수치 늘리기보다는 지역시스템 구축이

더 효과적임을 설득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도청에서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경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도청에 내려가 공공도서관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일이 잘 될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DJ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사업으로 그해 문화부가 처음 실시한 문화기반시설경영평가에서 포천도서관이 공공도서관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하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사실 그때까지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같은 지역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경영은 그다지 관심영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그 시설의 책임있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대회에는 도청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관련인사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진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안들을 다시 설명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도청관계자들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도서관정책추진의 진행방법으로 1)정책작성과 결재 2)정책발표 3)정책토론회 개최 4)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이 좋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일이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자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재과정에서 일이 축소되거나 변하는 일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도지사는 외국경험이 많아 선진 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간부들은 대부분 공공 도서관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공부방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도청간부들이 우리나라보다 공공도서관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면서 걱정되는 일도 있었다. 교육청소속의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청중심의 시스템구축에 앞장서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다. 그 시기에 경기도에는 공공도서관이 44개관이 운영중이었는데 그중 교육청 소관이 8개관이고 교육청 소관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경기도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육청이 도서관운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논리는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신설학교수요로 공공도서관 같은 평생교육사업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경기도지역이 다른 시, 도에 비하여 공

공도서관이 열악한 이유가 도청의 무관심과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에 있었다. 그나마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관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경제체제로 등장한 공무원구조조정과 총정원제 등으로 사서직 배정이 여의치 못한 것과 과거부터 내려오는 시설중심의 행정문화로 도서관운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

도교육청 도서관관계자를 설득하고 시설중심의 행정문화를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도청의 도서관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본인의 생각이었다. 과거 1970년대 일본의 동경도가 도지사 중심으로 행정부서와 교육위원회가 합심하여 도서관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시스템의 후진성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또 다른 장애로서 중앙정부중심의 법령과 제도, 행정시스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터득하게 되었다.

일이 이 정도로 진행되자 그 다음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미 한국도서관협회에는 수시로 가서 협의하였고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다. 그 시기에 협회사무총장님은 도서관이 전혀 없는 일본 히노시에서 도서관차량 1대로 시작한 도서관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으로 수 년만에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시스템구축과 함께 전 시민의 40%이상이 도서관 이용층이 되고 일본도서관발전의 계기되었다는 1960년대 후반 일본의 히노지역 공공도서관 성공사례를 설명하시면서 격려하였다. 시민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지방행정문화의 한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도서관을 가급적 많이 운영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은 주민들이 도서관에 오게 만드는 것이다. 도서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과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행정문화를 극복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이미 정책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서관발전이라는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경기도를 도서관문화 발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일본처럼 전국에 확산시키자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경기도를 도와 주십시오” 하는 호소에 도서관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일부 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발전 구호들이 정치인들의 일시적인 인기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가들은 가끔 인기전술로 문화분야를 이용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 일 것이다.

도서관지역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광역중심관을 만드는 것으로 “중심이 있어야 시스템은 움직인다”것이 평소의 논리이고 이는 이미 일본공공도서관발전에서 증명되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양문화권은 먼저 중심부터 만들어 단기간에 지역주민에게 확산하는 전략이다.

이미 여러 차례 도의 담당자에게 중앙도서관 건립을 제안했지만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마침 평소 친분이 있는 경기도 K대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그 방법으로 경기도 소재 문현정보학과 교수님들의 정책건의문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건의문에는 1)도서진흥위원회 설치 2)도 중앙 도서관 운영 3)동사무소 일부공간에 도서관분관 설치로 결정하고 곧 5개 대학의 교수님들 16명 전원 서명을 받아 그 해 12월 도에 제출하였는데 K대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그리고 인구 1,000만이 넘는 일본 동경도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조직자료를 도에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해 연말에 드디어 경기도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이 작성되어 도지사의 결재가 나게 되었다. 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1)도서관 400개관 확보 2)도민참여 3)운영개선 4)중앙도서관 설립으로 되어 있었다. 아마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광역중앙도서관을 만드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 400개관 확보는 획기적인 일로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인구 2만5천명당 도서관 1개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을 통하여 중규모 이상을 100개관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300개관은 도서관분관 규모로 작은도서관을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여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추진자는 도청 문화관광국장으로 그는 그 시기에 도지사가 신임하는 경기도 핵심간부로 등장하고 있었다. 앞으로 발전계획의 추진속도는 국장의 관심과 영향력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시 고심하다가 문현정보학과 교수님들과 협의하여 국장이 담당업무소관에서 도서관업무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의 방법이 필요했다. 그 방법으로 경기도 문현정보학과 교수협의회명의로 국장실로 방문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하였다. 발전계획이 확정된 그 다음달인 1월에 교수 2분을 모시고 국장실로 찾았다. 국장은 도의회에 있다가 황급히 달려 와서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지사가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도서관협회에 3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도지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3월 문화부장관이 참석한 정기총회에 담당국장이 나와 대신 상을 받았고 도지사의 감사의견을 전달하였다. 국장은 나를 보자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 시기에 도서관계와 문화부에서는 갑자기 경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물론 광복이후 도서관을 발전시키겠다는 최초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 시기에는 마침 도서관계와 문화부는 상당한 곤경에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공도서관 일부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도서관계가 반대하고 문화부장관까지 나서 통과저지를 설득했지만 서울시 4개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도서관행정전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제정된 새로운 도서관법 24조 1항에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한다는 규정이 그 원인이었다. 22개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서 13개관의 관장직급이 지방직 4급 이상으로 교육행정직 입장에서 보면 대책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 문화부는 IMF경제체제이후 공공조직의 구조조정으로 DJ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공공도서관이 그 대상이 되어 서울의 경우 많은 사서사무관들이 대기발령이 나는 등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의 명칭변경, 사서직 공무원 축소, 도서관 민간위탁추진 등으로 도서관계의 SOS에도 대응하지 못한 문화부가 갑자기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 발전계획 발표는 원군을 만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이 영향으로 경기도가 1999년도부터 추진하는 도서관발전 및 운영개선계획은 도서관계와 문화부라는 지원세력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2. 정책추진 그리고 갈등

1999년도가 되면서 발표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고민이었다. 물론 경기도 주무부서도 마찬가지로 DJ정부가 추진하는 작은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중앙도서관건립과 도서관 400개관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는 처음부터 추진하기에는 큰 사업이었다. 물론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일은 추진되겠지만 이미 국장급 간부들은 결재과정에서 회의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고 한다. 현재 구조조정중으로 기존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정책을 보다 대외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담당자와 여러차례 협의하였지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1999년 1월 초 경기도 주무사무관과 담당자를 설득하여 같이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미 도서관협회에는 연락을 하여 협회간부와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도서관협회에서는 경기도의 발전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책토론회개최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2월9일 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였다. 발표자와 토론자가 정해졌고 본인도 주제발표자로 선정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 중앙도서관이 공론화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토, 일요일에 이 계획에 다소 생소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찾아가 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는 도청 토론회 총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도 중앙도서관은 정식사업으로 추진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판단되었다.

토론회 결과 (총평)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도내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각급 도서관관장과 관련직원, 시·군 도서관업무 담당공무원, 도민 등 2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진행
- 우리 도가 수립한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하여 그동안 도서관계 및 학계의 숙원이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서 기대감 표시
- 특히, 경기중앙도서관 제도의 도입, 작은도서관 확충, 도서관간 네트워크화 추진 등의 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냄
-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도서관계 및 학계 등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였음

토론회가 개최되고 경기도의 공공도서관발전계획은 이로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추진만이 남았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경기도 중앙도서관을 사이버형태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전에 도서관협회에 갔을 때 도서관협회 사무국장님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가 힘들 시기이니 우선 경기도청에 작은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신 일이 떠올랐다. 이른바 교두보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이였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경기도 밀레니엄 사이버도서관이었다. 우선 사이버도서관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 시기 분위기로 보아 그 방법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에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자료요청을 도에서 받고 포천도서관에서 초안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였다. 또 경기도 중앙도서관설립에 따른 연구보고서 예산요청도 하였다는 이야기

도 들게 되었다.

경기도는 발전계획의 하나로 제기하였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주도록 2월말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이때부터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결과를 들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최근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시기에 도서관 건립의무화는 새로운 규제가 된다는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동네마다 만들자는 계획은 시작 조차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도서관 분관을 설치하는 건도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공공도서관 용도로 활용하는 예산 지원도 쉽지 않고 이와 비슷하게 동사무소 공간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다고 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아마 이들 부처는 도서관 관련부처인 문화부가 요청해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행보에 별로 반응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문화부외에 도서관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설치와 관리는 지방고유사무로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배려 없이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지방업무조차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하고서 본인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야 도서관이 발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도서관발전정책은 1999년도 상반기가 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과 도서관위원회운영만 남게 되었다.

또 1999년 상반기가 되면서 경기도 도서관발전계획과 토론회 개최에 배후에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교육청 도서관 관장님들이 알게 되었다. 어느날 사무실로 한 교육청 관장님은 전화를 하여 현재하고 있는 처신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서들도 포천관장은 도서관업무에는 관심도 없고 경기도청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아냥거렸고 자치단체산하 도서관 사서 일부도 교육청 사서가 도청사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은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시, 도의 도서관 사서들은 경기도가 부럽다면서 추진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 시기에는 교육청의 8개 공공도서관에서 규모가 작은 5개 도서관을 수원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명칭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였다. 그 이유

는 관장직급의 상향조정으로 교육부에 3급 배정을 요청을 할 계획이었다. 선진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상징이며 대형도서관인 광역중앙관 청사진이 사이버도서관으로 축소되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형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이름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얼마 후 도지사가 개최하는 경기도 도서관위원회 개회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교육청의 수원도서관장님은 경기도 대표도서관장이라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는 도서관 정책을 연구하는 실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마주 보고 앉아 회의를 하게 되었다. 향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도서관과 협력 협조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다. 도지사는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원관장님에게 회의를 주재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정식위원회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억된다. 그 후 실무위원회만 몇 차례 열려 간담회만 있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갑자기 학교도서관지원전이 상정되어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때 도서관발전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청공무원들도 실질적인 정책추진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회개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사이버도서관뿐이었다.

1999년 6월 중순 나는 갑자기 9월 사무관시험에 응시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몇 일간 나는 시험을 포기하고 경기도 도서관발전사업에 나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고심하다가 결국 시험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시기에 도지사가 수뢰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곧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연구용역이 경기대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나는 담당 교수님의 배려로 연구용역에 참가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연구작업은 9월에 하기로 하고 착찹한 마음으로 포천교원사택에서 책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

9월 하순부터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곧 사이버도서관연구에 참여하여 토론도 하고 연구자료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지사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도서관사업은 별 진전이 없었다. 경기도의 정책이 사이버도서관을 통하여 도서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았다. 따라서 사이버도서관의 사업을 기초로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것으로 연구보고서도 작성되어야 바람직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서관법에 의한 경기도대표도서관인 교육청의 중앙도서관을 의식하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처신하였다.

그 시기에 도청에 수차례 제안했던 일본 공공도서관관학이 결정되었다고 대상도서관을 추천하여 달라고 했다. 참가자 명단에는 도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같이 일

본에 간다면 여행기간동안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보여 주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었다. 마침 사이버도서관 연구팀이 자료도 수집하고 견학도 할 겸 일본에 가자고 하여 경기도팀과 같이 가게 되었다. 그 해 10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보게 되었고 특히 동경도립도서관이 집중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청 직원들과 도의원들에게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하였다. 그때 동행했던 도의원 한분은 나중에 도의회에서 도서관 발언을 가장 많이 하면서 도서관 사업에 앞장서게 되었고 나와는 도서관문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3. 마지막 교두보 사이버도서관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의 갈등

2000년도에 사무관이 되어 과천도서관 과장으로 내려와 경기도 도서관사업추진이 보다 쉬워졌다. 그러나 관장님들은 교육청 사서가 도청 사업으로 다니는 것을 내심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1주일에 1~2번 정도는 퇴근 후 저녁에 도청사무실로 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도 직원들은 도지사의 영향력으로 보통 밤 10~11시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문화부서 일부 담당자는 과로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사이버도서관연구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게 될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능분담으로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근거하여 ①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연락 및 조정(연락조정사무) ②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동일기준사무) ③ 재정력이 빈약하고 인구밀도가 적은 과소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독자처리 부적당 사무) ④ 지역실정에 맞는 도서관과 협조체계 유지(광역적 사무)등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도서관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위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이버도서관이라는 특성상 많은 부분이 도서관정보화사업에 배정하게 되어 결국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중앙도서관 모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즉 중앙도서관의 신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중의 일부만으로 기존의 공공도서관들의 소장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분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하고 앞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2000년부터 3년에 걸쳐 43억원이 투자되는 사이버도서관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선진외국의 광역중앙도서관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자료가 많은 컨텐츠를 배경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3대요소인 자료, 건물, 사서직원도 없이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선도한다는 것에 기초자치단체 공공도서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더구나 교육청 도서관들은 거의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은 기초 조사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일부 관장과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A시 도서관장)"지난 번 모임(11월 14일 설명회)에 갔었는데, 실망스러웠다. 사이버도서관사업의 하나인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하는 건 좋은데 경기도 도서관의 수준 차가 현격한 지금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 장서가 많은 도서관은 적은 도서관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것이 뻔한데 어떤 이유에서 동참하려 하겠는가? 인기 있는 책을 자기 도서관 이용자보다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먼저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하면서 도서관 간 자원/시스템 공유보다는 자기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훌륭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시 도서관 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도청이 도내 도서관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감시체제가 가동되는 것일 수 있는데..."라고 언급. 아마 여유 있는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도서관의 실정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으로 보였다.

(H시 사서)"모든 데이터 반출 시 서지 데이터와 대출데이터는 줄 수 있지만 이용자 데이터는 사생활 노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여 개별 도서관의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사이버중앙도서관이 이러한 불리한 환경여건을 가지고 일단 1차사업은 시작하였지만 이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2000년 2월1일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도서관정보화사업이다. 그 해 1월에 일부 언론매체에 서울시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여건의 보도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여건개선사업을 지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기본인프라확충이나 시스템정비의 기회로 활용 못하고 단지 정보화사업으로만 한정지었다. 3월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3,068억원이 투입되어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사업이 시

작되었다.

사이버도서관 사업이 2000년 7월부터 시작되면서 경기도 중앙사이버도서관 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중복을 우려하는 사서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그동안 도청이 주관하는 사이버도서관 관련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논쟁이 계속되어 사업의 정체성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더구나 지역의 도서관들은 국비와 1:1대응투자로 예산지원도 받고 그 지역중심의 독자적인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물론 경기도사이버도서관도 정보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국가도서관정보화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의 도서관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선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성 그리고 효율성과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다음은 정보화사업이 공공도서관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 서비스 증진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강화에 많은 배려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이버도서관은 그 후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국가정보화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3차년도사업도 중지되었다.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시스템 구축 1,2차사업 결과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미 구현된 주요기능을 보완한 후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3차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 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도에서는 사이버도서관 운영부서를 문화정책담당에서 문화산업담당으로 옮겨 이제 사이버도서관은 단순한 가상공간의 공공도서관기능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정책도 과거처럼 문화부 공공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라 신규도서관 국, 도비지원과 자료비지원으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만 문화부처럼 도서관평가사업을 도입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사업을 시작하여 우수도서관 시상도 하고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도는 2000년도에 그 당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지원요청을 받고 5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여 82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다. 공공도서관과 달리 시민단체로부터 그 효과가 빠르게 전달되자 그 해 경기도는 대통령에게 지휘보고까지 하면서 시민단체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2년에 24억원, 2003년도는 53억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사업에 많은 관

심을 보였다. 그 반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침체되어 갔다. 역시 도지사는 정치인이라 도서관사업에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지사의 임기도 끝나고 새로운 도지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4. 법령과 제도를 고치자

1998년부터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선진외국처럼, 최소한 일본수준까지는 발전시키자는 결심으로 4년간을 열심히 돌아 다녔다. 이 기간에 정치인,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인사, 도서관관련인사들을 만나 머나 먼 꿈을 이루고자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협상도 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중앙과 지방행정시스템으로는 그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터득할 수 있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동네도서관 하나 만들고자 해도 중앙정부의 도서관신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골의 조그만 도서관 정보화추진도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만약 지역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 독자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구조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이 모두가 중앙정부의 재원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가서 국고 한 푼이라도 받아 와야 지방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은 재원의 분배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획일적인 것이 원칙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 그리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주기를 꺼려하는 행정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도서관 같은 지방교유사무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특징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구분은 항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셈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이 그 도서관 주체가 시청인지, 교육청인지 파악하면서 서비스의 수준을 선택적으로 공급받는 일은 없다. 오히려 주체의 이원화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역의 복수도서관이 단일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전역(全域)시스템이 어렵고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기형적인 시스템의 낙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서관의 발전은 항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행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OECD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에도 현재 한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초.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지방교육청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

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아도 그 실상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경기도 도서관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일전에 사이버도서관사업에 연구를 하신 대학교수님이 국립중앙도서관 토론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본인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그 교수님은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용역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기능과 협력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셨다. 그 교수님은 우리나라 도서관시스템을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였다. 본인은 즉각 도서관시스템은 지방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교수님은 기분이 상하신 표정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후 그 교수님에게 항상 마음의 짐을 가져야 했다.

“국가는 지방이 사업을 잘 하도록 법령이나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지원만 하면 되고 지방은 지역의 주민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알고 난후에는 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도서관 기준과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 먼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기준개정작업을 한다기에 다행히 분과위원이 되어 도서관기준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도서관협회 기획위원으로 재임중으로 기회를 만들기가 용이했고 작업을 기획하시는 교수님들도 호의적이었다.

대구에 계신 분과위원장인 교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 협의하여 2003년 말에 공공도서관 기준에 대표도서관 기능강화로 지방중심의 센터가 되도록 개정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 기준은 그 해 연말에 책으로 출간되어 도서관에 배부되었다. 사실 이 작업도 근무하는 도서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개인연가를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기획위원 직위도 결국 심리적인 부담으로 2003년 말에 사의를 표시하였고 후임에 서울시 대표도서관 사무관이 위촉되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법령개정작업에도 참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시킬 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대학교수님들과 협상을 하면서 도서관의 분권화를 설득해야 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부에서는 산하 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거쳐 2004년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간의 국가대표도서관 조항문제로 국회도서관 입장을 옹호하는 또 다른 개정안이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현재까지도 협상 중에 있다. 이는 오랜기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다툼으로 어렵게 삽입한 광역도서관의 설치근거는 국회에서 2년이 다 되도록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는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나라임은 틀림없다는 것을 또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국회와 국중을 단일화하면 경쟁력있는 국립도서관이 될 것은 분명한데,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건지.....

여 백

과천도서관 리모델링 개요 및 기대효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 박 현 모

1. 들어가며
2. 리모델링 개요
3. 운영 측면의 리모델링에 대한 소고

여 백

과천도서관 리모델링 개요 및 기대효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박현모

1. 들어가며

1984년 2월,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개관 후 어느덧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관 초기, 안양, 군포, 의왕, 안산 등 인근지역을 통괄하여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다수의 도서관이 설립되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천도서관의 역할이나 이용자 및 이용자료 수는 줄어들거나 정체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과천도서관의 접근 편의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과천은 물론 안양과 의왕의 일부, 그리고 서울의 사당지역에서도 과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기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공간 확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데 과천도서관 또한 오랫동안 동일한 문제로 고민해 왔다.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나 현재의 공간으로는 이미 수용한계를 벗어난 자료들과 시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평생교육기관, 디지털 자료실이라는 역할은 '공간 문제 해결'을 선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로 만들었다.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소규모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된 공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해 지난 11월부터 8개월의 일정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번에 실시되는 리모델링의 목적이 단순히 '공간확보'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모델링은 낡은 건축물을 수선하고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상적인 모델에 접근해 가는 과정임을 주지하고 있다. 결국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유형, 무형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선 향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운영철학에 대한 재정립,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 선진 도서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본고는 먼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과천도서관의 리모델링 개요를 설명하고 리모델링 이후에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몇몇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우견(愚見)을 적

고자 한다.

2. 리모델링 개요

가. 리모델링의 필요성

(1) 자료실 공간부족

자료실 공간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기준 65평의 공간을 3배 정도 확장하여 186평으로 늘렸다. 그러나 자료구입비의 증가로 자료수 또한 2001년 1월 기준으로 200,622권에서 2005년 11월 기준 349,671권으로 약 174%나 증가하였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장서를 비치하다보니 비좁은 공간에 많은 서가를 놓게 된다.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료 찾기의 불편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자료를 한 공간에 집중 시키지 못하고 1자료실, 2자료실, 참고실 등으로 분산배치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도 생기게 되었다.

과천도서관의 자료실 구성은 일반자료실과 참고실, 연속간행물실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자료수로 인해 공간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 또한 피할 수 없다.

(2) 보존서고의 필요성

현재 보존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50평 규모) 공간은 온, 습도 조절장치가 없고, 특히나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누수로 인해 지하 보존서고의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훼손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자료는 곰팡이에 의한 훼손으로 인해 열람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나마도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어 “현존하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 재조직하여 보관했다가 적기에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3) 평생교육 이용자의 증가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급속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 혁신과 사회에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서관진흥법 제2조 3항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천도서관도 지역주민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도서관의 평생교육장소는 2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이다. 이

강의실은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공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빈번하다.

(4) 2006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방문도서관으로 선정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대회 일정 중에 국내 도서관 방문에 과천도서관도 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각 방문도서관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의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과천도서관을 세계에 선 보일 기회가 되는 것이다.

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기대효과

(1) 리모델링 내역

- 어린이실 및 디지털자료실을 제외한 본관을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1개층을 증축한다.
- 증축되는 면적은 총 $1,601.53\text{m}^2$ 이다.
- 1층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이전 배치하고 자료실($1,002\text{m}^2$)로 확장하였다.
- 중앙 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우를 배려한다.
- 3층에는 기존 1층에 있던 관장실, 사서과, 서무과를 이전하였고, 나머지 공간에는 강의실과 모임실을 배치하였다.
- 외부를 새롭게 단장한다.



〈리모델링 조감도〉

(2) 기대효과

- 일반자료실의 확대에 따른 자료중심 도서관으로 변모

자료실 공간의 확대는 과천도서관을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변환시켜 21세기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지식 수요를 대비할 수 있게 되며, 자료실 내에 열람석을 비치하여 자료이용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내 대출업무를 경감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실 공간의 확충은 청소년 권장도서, 상황별 독서치료자료, 베스트셀러, 신착자료 등의 특화된 코너 운영으로 다양한 아이템의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 평생교육기능의 강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음, 방수가 되지 않는 낙후된 강의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매번 등장하는 불만사항이었다. 또한 강의실이 2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강의실 출입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한문강좌나 일본어,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고령자에게는 이 또한 불편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해져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노약자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의실을 한 층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모임실 2실, 중모임실 1실, 강의실 2실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현대적 감각의 도서관으로 변모

요즘 신설된 도서관들을 방문해 보면 선진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RFID가 부착된 도서를 이용자들이 직접 대출,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모든 기자재들과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구비되어 있다. 물론 넓고 쾌적한 공간에 새롭고 현대적 감각으로 지어진 도서관과 20여 년 전에 지어진 과천도서관과의 비교가 무의미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축적해 자료의 구성이나 운영 노하우를 살린다면 금번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지어진 도서관과 비교할 때 기능이나 효율성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울시의 정독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 운영 측면의 리모델링에 대한 소고

리모델링 후, 도내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게 될 과천도서관은 과천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변화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은 그 변화를 한층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가. 특화 자료실 운영 및 자료구성의 차별화

얼마 전 부산 시민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도서관과는 다른 형태의 자료실을 보았다. 아메리카자료실과 족보자료실이 그것이다.

아메리카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영어회화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족보자료실에 있는 사서는 자료보존이나 고서에 관한 지식과 고서구입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산 중앙도서관은 특화도서관으로 향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지역 및 경남지방의 자료를 수집, 정리해 독서교실이나 향토알기 수업시간에 이들 자료와 함께 직접 제작한 VTR을 상영하여 '내 고장 알기'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부산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선은 자료실을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향토자료를 특화하고자 한다면 향토자료코너로, 과천이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자료를 특화하고자 한다면 행정자료코너로 시작한 다음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고 난 뒤 하나의 자료실 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시작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구입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료, 외국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나. 외국도서관과 국제교류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는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우물 안 개구리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자료의 교류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역량을 쌓은 뒤 직원(인적)교류나 업무(지식)의 교류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자문과 도움을 구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도서관이라는 특성에 적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학습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홍보하되 중복된 프로그램 개설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문화센터나 기타 평생학습기관과의 차별을 위해선 도서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아리방을 개방하여 그룹 연구모임을 지원해야 한다. 동아리방 개방은 그 이용기준을 확실히 해야 하는 관리상의 불편을 동반 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으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4. 다시 출발선에 서서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에 접속하면 무한한 정보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보의 홍수다. 대표적인 정보창구였던 도서관이 그 지위를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도서관이 그 대표적 정보창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구성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유기체다. 금번 과천도서관 리모델링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도서관에 대한 시대의 요청이 다변화 된다 하더라도 “모든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선택, 수집, 조직, 접근허용, 그리고 보전”과 “이러한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파악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수행해 온 역할의 중요성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도서관의 발전을 생각해 본 곳이라면 한번쯤은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한다.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워크샵이나 토론이 있었다면 더 나은 그리고 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가짐으로 과천도서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날 과천도서관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 운영평가 및 발전계획”, 경기도사서연구회지 제 9권1호.
2004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 구 은 진

1. 서론
2.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기능
3.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
4. 요약 및 제언

여 백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구 은 진

1. 서 론

지식정보사회는 사회·문화·경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요인은 살아있는 유기체인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쳐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도서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社会의 도래로 인한 공공도서관 기능의 재정립과,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고 문화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기능

가. 전통적 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교육하는데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고 크게는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무료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일반인들을 계몽하고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양 있고 견문이 넓은 시민으로 키우는데 기여한다.¹⁾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비교할 때 모체기관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후자가 모체기관의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잘 정의되고 동질적인 이용자 집단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목표를 가진 다수의 이용자에게 봉사한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1) 이란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2002), pp.184.

공공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²⁾

- (1)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문현을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그것을 검색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한다.
- (2) 이용자들이 각각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곳에서 읽을 수 있도록 문현을 대출한다.
- (3)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원하는 문현을 찾을 때, 또는 참고문현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그 일을 도와주거나 찾는 요령을 가르친다.
- (4) 신문, 방송을 통한 광고, 도서전시회 개최, 우수 도서목록 배포,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시간 마련, 텔레비전 방송에 서평시간 마련, 독서회 운영 등으로 도서관 이용을 권장한다.
- (5) 참고실 이용자에게서 직접 문의된 것은 물론, 전화나 서신으로 접수된 참고질의에 대하여 그 답을 제공한다.
- (6) 지역사회 안의 각종 교육기관, 사회단체, 문화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문현을 제공한다. 이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그 단체들의 활동 속에 새로이 일어나는 요구가 그때그때 즉시 파악되어 적절한 문현이 신속히 수집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등 분관 이용자들이 계획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후원한다.
- (8)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한다.
- (9) 이용자가 원하나 그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상호대출 절차를 밟아 다른 도서관에서 입수하여 제공한다.
- (10) 분관설립, 이동문고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 도서관 봉사가 미치게 한다.
- (11)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별 열람실, 연령층별 열람실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12) 지역사회 안의 따른 도서관(예컨대 학교도서관) 등과 기능적 측면에서 협동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독서를 통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었다.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 2003.05.29 (법률 제6906호) 문화관광부)에서 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제20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p.176-177.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2)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책을 보관하고 이를 여러 사람에 대출하고 이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었던 자료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전해왔다.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 정보,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종교, 언어, 신체장애, 경제력, 취업상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서와 봉사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공평하게 제공됨을 원칙으로 하여왔다.

이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축적 기관이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책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은 도서관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³⁾

3) 조은숙,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기능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11.

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변동 요인

윤영민⁴⁾은 전통적 공공도서관을 변동시키는 지식정보사회의 주요한 환경변화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정보사회는 탈 인쇄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탈인쇄문명은 종이책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인쇄문명의 퇴락을 의미한다. 출판사들은 출판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종이책, CD-ROM, WWW, 전자책, 주문 출판(Print-On-Demand) 등 여러 가지 출판 방식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독자들은 특정 매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각자 편리한 형태로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2)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팽창한다.

과연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팽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만약 종이책 형태를 고집한다면 모든 도서관들은 머지않아 재정과 공간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그 엄청난 서적, 잡지, 그리고 저널들을 어떻게 구입하며, 설령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 보관할 것인가? 게다가 종이책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종이책만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대착오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3) 지식생산이 가속화되면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 결과 평생교육 혹은 사회교육이 일상화되고,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나가는 선형적 인생과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선형적 인생과정이 일반화된다. 공공도서관은 이와 같은 '학습사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집·보존 기능에 대한 함축성이 크다. 예컨대 분야마다 지식의 수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히 공학을 포함해서 실용적 분야의 지식의 수명이 가장 짧은데 그런 분야의 지식을 종이책의 형태로 수집·보관함은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4) 윤영민,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한국비бли아학회지> 13.2(2002), pp.47-51.

(4) 정보사회에는 성찰성⁵⁾이 높아진다.

Anthony Giddens는 성찰성(reflexivity)이 노동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지적하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사회운영이나 개인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어찌면 정보사회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지식의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성찰성-지식의 적용-의 확대일 것이다.

성찰성의 증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될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꼭 그 기회가 공공도서관에게 돌아가라는 법은 없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방면에 앞서가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자신이 이 분야의 적임자임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직업세계에 유연성(flexibility)이 높아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낳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없앤다. 정보기술은 경제의 모든 분야를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반면, 정보산업은 그 자체가 자동화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변수는 지구경제(global economy)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지구경제로 인한 노동이동 결과 이미 우리나라에는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기능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교육과 정보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이는 지식정보사회에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이 두가지 이외에도 더욱 변화된 다양한 역할을 발생시킨다.

먼저 전통적인 도서관과 지식정보사회 도서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⁶⁾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종래 정보의 소유 중심에서 정보의 접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네트워크를 통한 도서관의 협력을 증대시키며, 장서 대출보다 전문(fulltext),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서비스를

5) W.허튼은 성찰성(reflexivity)의 개념을 “전통과 자연의 소멸 이후, 불확실하고 개방적인 미래에 대응하여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들을, 주어진 행동양식, 관습, 버릇, 충동이 아닌, 새로운 정보의 흥수 속에서 내려야 하는 삶의 방법론”으로 보았다. 즉, 말전과 진보, 사회적 삶의 끊임없는 재형성 등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과장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긍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6) 조은숙, 앞의 글, p.18.

증시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표 2] 전통적 도서관과 지식정보사회 도서관에서의 정보제공의 차이점

도서관구분 내용	전통적 도서관	지식정보사회 도서관
패러다임	정보의 소유 강조	정보의 접근 강조
도서관형태	자관 중심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도서관
	제한적/물리적 공간	공개적/논리적 공간
서비스	장서중심, 실물중심	정보서비스 중심, 무형의 서비스
	수동적 서비스	능동적 서비스
	제한된 서비스	다양한 접근 서비스
정보서비스	인쇄매체, 텍스트 중심	전문, 소리, 이미지, 동영상 중심
매체의 유형	인쇄매체, 필름, 사진	디지털매체, 멀티미디어
이용방법	물리적 접근, 정보전달	논리적 접근 및 전자정보전달
	도서관 방문	네트워크를 통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
	제한적 상호 대차	원격상호대차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에 의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⁷⁾

- (1) 공공도서관은 모든 수준의 공식 교육뿐만 아니라 독자적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출판물 또는 기타 자료를 가지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관이다. 학습은 공식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활동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평생학습 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2)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역의 정보센터이다.
- (3)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4) 어린 시절부터 아동의 독서습관을 육성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 (5)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

7) Philip Gill 저, 장혜란 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2-9.

화적 정체성을 조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강미혜⁸⁾는 전자(디지털)도서관은

- (1) 소장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 (2)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가공하고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
- (3)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가 정보·지식을 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
- (4) 여러 형태의 정보를 소장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문자 검색 이외에 음성, 패턴 인식 등)으로 검색가능케 하는 기능
- (5)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 관리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 매체에 수록된 정보 및 지식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연결시키고 적합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기능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의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은 다음의 네가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⁹⁾

(1) 지식의 보존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중의 하나는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이다. 인쇄문명에서는 인쇄물의 수집과 보존으로 문명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겠지만 탈인쇄문명의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지적재산 관련 법령에서 남본 대상으로 언급한 다음의 대상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 출판, 배포에서 사용된 기술적 과정이 무엇이든, 인쇄, 그래픽, 사진으로 된 문서, 녹음물, 영상물, 멀티미디어물” 그리고 “매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어떤 물질적 매체를 통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시스템과 기타 인공두뇌 매체”

앞으로 정보와 지식은 점점 사이버공간으로 연결될 것이고, 사이버공간은 거대한 ‘보편적 두뇌(universal brain)’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식사회에서 한 국가사회의 경쟁력은 그 보편적 두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의 보존이라는 사명과 관련해서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

8)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7(2002), p.14.

9) 윤영민, 앞의 글, pp.52-56.

를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

지금까지도 공공도서관은 이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보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은 물론 공교육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대에 뒤진 내용이 되어 버린다.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사서들(혹은 정보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학습 활동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나 주부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은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보편적 접근의 구현

공공도서관은 선진산업사회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제도가 되어 왔다. 한 사회의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보면 그 사회가 정보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이다. 현재 정보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편입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

근대 공공도서관은 초기부터 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는 곳(reading place)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gathering place)이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은 책이나 신문을 읽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었다.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에 못지않게 이웃들이 만난 세상사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일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전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고립'이라는 직업병을 가진 원격근무자들의 공동체적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이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로 생각된다.

매력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접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 가족 단위의 여가 활용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가볍게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거나 교육적 성격을 지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

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역할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술업무 위주였던 도서관의 업무를 이용봉사 위주의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즉 도서관 자료는 소장보다는 접근(access)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서는 이용자의 현재적 요구는 물론 잠재적 이용 가능성까지도 조사·분석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수집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 분석 및 가공하여 정보의 효용가치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서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client-centered library)을 지향하면서 기존 사서의 명칭도 총체적 사서(holistic librarian),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 정보해석자(information interpreter), 교육자(educator), 연구자(researcher), 디자이너(designer),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 가상사서(cybrarian), 지식엔지니어(knowledge engine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서직이 이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활동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¹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오늘날 특별히 요구되는 사서의 전문성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 (1) 디지털 환경 및 기술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능력이다.
- (2) 이용자의 높아진 전문지식과 정보획득 기술을 감안,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제 및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습득이 요구된다.
- (3) 관리자, 운영자, 전문가로서의 시야와 역량이다. 사서는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시설의 종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의 존립과 발전을 이끌어

10) 강미혜, 앞의 글, p.13.

11) 김세훈 외,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p.16-17.

갈 핵심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전문성은 변화된 환경이 필요로 하는 역할과 기능을 완벽히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사서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와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사서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료의 수집 측면에서 웹 환경 하에서 도서자료의 선택은 물론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장서개발
- (2) 자료의 정리 측면에서 기존의 분류 목록 이외에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제별 서지와 메타데이터의 작성 제공
- (3) 자료의 보존 측면에서는 고서화 되어가는 자료의 원본 보존의 과학화 및 디지털 보존기술의 개발
- (4) 자료의 이용 측면에서는 홈페이지 작성 이용제공, 도서관의 이용홍보 맞춤정보 서비스의 제공, 정보문맹의 퇴치교육, 도서관협동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나. 지식정보사회 공공도서관 사서의 발전방향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모든 개인이 각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지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박준식¹²⁾은 정보의 접근성을 중시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역할모델은 모두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최적화 되어있다.

- (1)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이 아무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활용한다고 하여도 매체들이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 (2) 정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이용자(잠재적 이용자)들은 과거와 같이 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수천개나 되고, 이들은 모두 분류와 이용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사서가 효율적인 정보중재자(정보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를 신속, 정확하게 그러면 서도 경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의 사

12) 박준식,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 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2000), pp.31-39.

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를 이용자에게 중재하는 정보중재자(Information mediator)가 되어야 한다.

(3) 정보상담자와 정보교육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학문의 세분화 현상과 더불어 정보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탐색의 형식과 기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정보를 활용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탐색과 활용과정에서 사서들은 이용자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이용가능한 정보원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아가 사서는 수집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상담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서들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지식사회에서 사서직의 위상을 높이는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제공자로서 탐색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정보제공은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직접 정보를 탐색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정보제공의 범위는 사서의 기술과 능력 및 전문교육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것이다. 미래의 사서의 정보제공 활동은 도서관 자료가 전자매체로 바뀌어감에 따라 탐색방법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양해지고 도서관의 범위가 국제적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보다 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5) 주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사서가 주제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은 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엄청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탐색의 기법만 갖고 있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주제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만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요구되는 주제전문 분야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학문적 깊이가 깊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는 일반인들의 교양적 지식과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는 어린이분야 주제전문 사서를 들 수 있다. 어린이 시기의 독서경험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접하고 있으며 또 접하여야 하는 자료들은 사려 깊게 선택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이들의 발달 과정이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¹³⁾

(6)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여행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는 상품화되고 있다. 도서관은 문화시설로,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것이며, 사서는 모름지기 다양한 행사와 전시 등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제언

전통적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은 책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었다. 이러한 기능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다양한 매체로 존재하는 지식의 보존,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접근의 구현,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 등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었다.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사서는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장서개발, 정보의 접근 성 향상을 위한 주제별 서지와 메타데이터의 작성 제공, 고서화 되어가는 자료의 원본 보존의 과학화 및 디지털 보존기술의 개발, 홈페이지 작성 이용제공, 도서관의 이용홍보 맞춤정보 서비스의 제공, 정보문맹의 퇴치교육, 도서관협동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탐색전문가, 정보중재자, 주제전문가, 문화기획자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여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의 보루인 도서관은 새로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열정적인 직업관이 필요하다. 사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갖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저항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사서에게 지속적인 재교육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 김세훈 외, 앞의 글, pp.119-120.

- 참 고 문 헌 -

-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7(2002), pp.1-21.
- 김세훈 외.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김지봉. "지역사회기관의 관계 개선 및 지역주민 참여증대 방안". 〈한국비블리아 발표 논집〉 7(2002), pp.127-149.
- 문화관광부.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03-2011」. 서울: 문화관광부, 2002.
- 박준식.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 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2000), pp.21-40.
- 윤영민.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2002), pp.45-58.
- 이란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2002), pp.183-195.
- 이명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조은숙.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기능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 Philip Gill 저, 장혜란 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가이드 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여 백

2006년 경기도 교육청 건립 도서관 현황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 황 원 규

1. 개요

2. 2006년 경기도 교육청 건립도서관 현황

여 백

2006년 경기도 교육청 건립 도서관 현황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황 원 규

1. 개요

2006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세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거나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다. 두개의 도서관은 학교용지 내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가칭'화성 발안도서관'과'의정부 녹양도서관'이다. 또 하나는 현재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신축이다. 권선구로 자리를 옮겨 착공하게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2. 2006년 경기도교육청 건립도서관 현황

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1) 건축계획 및 개요

개방적이며 쾌적한 도서관

- 도서관은 누구든지 손쉽게 들를 수 있도록 접근이 쉬워야 한다. 일단 들어서면 목적한 지역으로 부드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폐쇄감, 압박감이 없도록 넓이, 천정의 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모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한 적절한 시설배치

- 도서관의 시설은 알기 쉬운 사인시스템과 연계성이 고려된 배치로 이용자가 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도서관의 자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배치의 개가제가 되어야 하며 서가근처에 열람석을 두어 자료 찾기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이 서비스하기 쉬운 시설

- 도서관은 직원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쉬워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평면적 이 넓고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직원과 이용자간의 동선이 교

차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소음이 유입되지 않아서 조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고려한 시설

- 장애인 및 고령자를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바닥이어야 하며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미래형 도서관

- 단순하고 가변적이며 평면의 오픈페이스를 고려한 건축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매체를 대비한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전된 정보기술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가 가능한 설계여야 하며 향후 증축을 대비한 설계 및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연도를 고려한 서고 확충

- 교육청 도서관의 총 소장도서를 파악하여 설계해야 하며 향후 20~30년을 목표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별로 분리된 공간배분

- 자료이용영역, 평생학습, 멀티미디어관, 열람실 등의 이동 동선이 철저히 분리되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총 당면적이 큰 건축을 함으로써 인테리어적 요소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공간 및 오픈공간을 수용해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설계

- 조명, 소음, 실내환경 등을 배려한 인텔리전트 건축이 되어야 하고 하증 및 방수 등의 방재 대책 시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주요추진경과

- 2003. 3 도서관 신축이전계획 수립
- 2003. 4 도서관 이전부지 협의 및 확정
- 2003. 6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예산 심의 및 확정
- 2003. 12 기관간 이행협약 체결 후 수원시에서 주관하여 건축하기로 결정
- 2004. 4 수원시 건축불가 통보
- 2004. 12 도교육청에서 최소부지 매입 후 건립하기로 건립 수정계획수립
- 2004. 12 사업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

- 2004. 12~2005. 3 교육재정 중앙투자 심사
- 2005. 10 부지매입
- 2005. 12. 20 시공사 확정

(3) 시설현황

위치	규모		구조	열람공간		주차대수
	부지	연면적		자료/ 열람공간	일반 열람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	4,959m ² (1,500평)	13,553m ² (4,100평)	지상5층 지하2층	1,750m ² (529평)	2,000m ² (605평)	68대 (지상19대, 지하49대)

(4) 기대효과

■ 지역정보서비스 기반 강화로 평생학습사회 구현

- 축적된 정보제공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주민 만족이 증대하며 국제화 시대의 한 축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지탱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 교육자원으로서의 기능 증대

- 도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어린이 도서관의 모델화 및 아동문학관을 통한 아동교육의 핵심시설 역할을 할 것이다. 독서교육전문기관·평생학습추진 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기능 분담에 따른 도 차원의 도서관서비스가 향상되고 보존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간 네트워킹이 활성화 됨으로써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콘텐츠 활용의 고도화 및 이용자서비스의 선진화로 전국 최초의 중앙도서관 선진사례가 될 것이며 도내 65개 공공도서관 지원·협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커뮤니티의 실현

- 지방분권시대 지역정보의 핵심시설로서, 생활권 중심의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에 한 축이 되어 주 5일 근무 및 고령화 사회에 지역 살롱의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나. 열린도서관

(1) 사업추진목적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문화 학습활동 기회 제공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 동시수행·시설활용 극대화
- 학교와 지역구성원과의 연계강화로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
-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구현

(2) 열린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 교수 - 학습센터

-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매체센터
- 개별학습 지원 센터
- Team Teaching 지원 센터

■ 평생교육센터

- 21세기 정보시대에 따른 평생학습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
-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역할

■ 지역문화센터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
- 지역 및 학생들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로서의 역할
- 휴식과 재창조의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

■ 학습자료 제공 및 정보제공 센터

- 수준별 학습 대상에 따른 정보제공 센터
- 이용대상별 수준에 따른 정보제공 센터

■ 독서활동센터

- 개인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 독서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 독서를 통한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소질과 창의력 개발

(3) 주요추진경과

- 2003. 9 열린도서관 사업타당성 도청과 협의
- 2004. 1 교육협력 사업으로 선정 사업계획 수립
- 2004. 2 희망학교 신청접수
- 2004. 5 현지실사 및 협력사업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학교 선정

- 경기 남부 : 화성 발안중학교
- 경기 북부 :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 2004. 9 건립공사를 위한 설계 및 공사 착수

(4) 경기도립화성발안도서관(가칭)

(가) 세부추진현황

- 공사계약일 : 2005년 4월 7일
- 착 공 일 : 2005년 4월 11일
- 준공기한 : 2006년 2월 5일 예정
- 2005년 11월 현재 공사 진척도 : 60%의 공정율
- 2006년 2월부터 내부시설 설치
- 2006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료정리
- 2006년 6월 개관 예정

(나) 시설현황

위치	규모		구조	열람공간	주차대수
	부지	연면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203-12	4,552m ² (1,377평)	2,183m ² (660평)	지상3층 지하1층	916m ² (277평)	27대

(5) 경기도립의정부녹양도서관(가칭)

(가) 세부추진현황

- 공사계약일 : 2005년 10월 12일
- 착 공 일 : 2005년 10월 18일
- 준공기한 : 2006년 7월 15일 예정
- 2005년 11월 현재 공사 진척도 : 7%
- 2006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료정리
- 2006년 10월 개관 예정

(나) 시설현황

위치	규모		구조	열람공간	주차대수
	부지	연면적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70-1번지	3,390m ² (1,027평)	2,092m ² (633평)	지상3층 지하1층	737m ² (223평)	10대

여 백

WLIC2006서울」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 소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 정 영 숙

1. WLIC대회 개요
2. WLIC2006서울 방문도서관 소개

여 백

「WLIC2006서울」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 소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정 영 숙

1. WLIC대회 개요

가. WLIC(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를 자유로이 누리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적 진보와 그 이득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지를 바꾸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IFLA의 연차대회이다.

2003년부터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IFLA대회)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년 8월에 각 국으로부터 4,000명 이상의 도서관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관련 산업분야의 최근 발전 동향 등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이자 배움의 장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는 도서관과 정보에 관련된 전문직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부터 많은 이들이 참석한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개최 목적은 회원간의 협력, 조사, 연구, 개발 등 IFLA 활동에 따른 성과물의 공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나. WLIC2006서울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가 2001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서 COEX에서 열린다. 이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이 될 도서관의 전 세계 지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우리는 WLIC2006서울대회를 통하여 지식기반 산업발전의 전기 마련 및 한국 도서관계의 세계적 홍보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적 지위 확보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서관 문화와 지식정보 기반산업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도서관계 관계자의 방문으로 국내 도서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한국에 대

한 이해와 성숙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국제 도서관계 인사 4,000여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회의로서, 대회 참가자들이 1주일 이상 한국에 체류함에 따라 숙박, 교통, 관광수익 등 실질적 부가가치 증대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국의 모든 도서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WLIC2006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계와 관련 문화 계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양 그리고 전문직으로써의 자질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WLIC2006서울대회 개최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WLIC2006서울 방문도서관 소개

도서관방문(Library Visits)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각국 도서관간의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대회 개최국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개최국 도서관의 운영 상황과 발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을하게 된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방문도서관 선정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여 방문도서관 신청 도서관들의 시설·자료 및 대회장인 코엑스로 부터의 거리 등을 평가하고 각 도서관들에 대한 엄정한 실사를 거쳐37개 도서관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경기도 내 방문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www.kwalib.or.kr)

(1) 개요

올해로 개관 21년을 맞은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방문 도서관으로 지하철과 바로 연계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퀘적 한 자연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혁

- 1983. 12.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준공
- 1984. 2.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개관
- 1996. 9. 도서관협력망 경기도 중부권 대표관 지정
- 1997. 4. 문화교실 증축

- 1998. 3. 전산실, 시청각실 증축
- 2000. 11. 제3회 전국문화기반 시설평가 도서관부문 우수상수상
- 2001. 9. 디지털자료실 증축
- 2002. 12. 제5회 전국문화기반 시설평가 도서관부문 우수상
- 2003. 3. 제35회 도서관상 수상
- 2005. 11.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3) 일반현황

시설규모			장서현황		
부지(m ²)	건물(m ²)	열람석	계	도서	비도서
16,404	4,098	1,149	340,518	329,382	11,136

(4) 자료실

구 분	자료 내용	열람시간	
종합정보자료실	일반,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지도, 서양서, 국회원문DB검색	평일	09:00-20:00
		토/일	09:00-17:00
어린이실	유아·어린이도서, 서양서	평일	09:00-20:00
		토/일	09:00-17:00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video, CD, DVD 등	평일	09:00-20:00
		토/일	09:00-17:00

나.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www.gclib.net)

(1) 개요

과천시 갈현동 67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지하2층·지상4층으로 설계된 첨단 과학도서관이다. 각종 정보자료실 뿐만 아니라 과학전시실 및 과학탐구동산 실험실, 천문관측대 등을 갖추어 도서관 원래의 정보제공기능과 함께 과학관의 기능도 겸했다. 또한 편리한 도서관 이용안내를 위해 로봇안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자 평일 7회 시내노선과 2회 외곽노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 연혁

- 1999. 11.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착공
- 2001. 3.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준공
- 2001. 6. 분관(4개동 및 10개 학교) 시스템 구축
- 2002. 5. 개관 및 과학전시관 및 과학탐구동산 실험실 운영
- 2003. 1. 셔틀버스 운행 개시, 1인 1카드 갖기 운동 추진, 관내 순회문고 운영
- 2004. 4. 과학전시관 안내 로봇 설치
- 2004. 7. 천문대 설립 및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 2004. 12. 2004년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05. 3. 천문대 천체망원경 확충

(3) 일반현황

시설규모			장서현황		
부지(m ²)	건물(m ²)	열람석	계	도서	비도서
24,080	10,027	1,158	166,719	157,869	8,850

(4) 자료실

구 분	자료 내용	열람시간	
어린이·유아열람실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잡지	평일	09:00-18:00
		토/일	09:00-18:00
연속간행물실	유아·어린이도서, 서양서	평일	09:00-18:00
		토/일	09:00-18:00
전자정보실	인터넷 및 비도서 열람·대출	평일	09:00-18:00
		토/일	09:00-18:00
정보과학나라	과학전시물	평일	09:00-18:00
		토/일	09:00-18:00
문화정보실	일반도서 열람·대출	평일	09:00-21:00
		토/일	09:00-18:00
가족열람실	회원제 공부방, 점자도서, 녹음도서	평일	09:00-22:00
		토/일	09:00-18:00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www.snjungwonlib.or.kr)

(1) 개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 층·지상 4층으로 2000년 5월 개관하였다. 지역주민의 정보센터 및 사회교육 문화시설로서 취업 및 전국지역정보, 컴퓨터 분야에 중점을 둔 전산교육과 인터넷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시정보코너를 마련하여 입시관련 자료 및 EBS수능강의시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연혁

- 1997. 5. 중원문화정보센터 착공
- 1999. 12. 중원문화정보센터 준공
- 2000. 5. 중원문화정보센터 개관

(3) 일반현황

시설규모			장서현황		
부지(m ²)	건물(m ²)	열람석	계	도서	비도서
8,264	13,163	2,500	168,725	160,900	7,825

(4) 자료실

구 분	자료 내용	열람시간	
문헌정보실	일반도서, 참고도서, 지역자료	평일	09:00-22:00
		토/일	09:00-17:00
어린이·모자열람실	어린이도서, 백과사전, 어린이 신문/잡지	평일	09:00-18:00
		토/일	09:00-17:00
연속간행물	신문, 잡지, 시보, 입시/취업정보	평일	09:00-18:00
		토/일	09:00-17:00
전자정보실	비도서자료, 인터넷, 문서작성, 스캔	평일	09:00-18:00
		토/일	09:00-17:00
장애인 열람실	음성지원PC, 문자확대기, 점자도서	평일	09:00-18:00
		토/일	09:00-17:00

라. 안양시립석수도서관 (www.anyanglib.or.kr)

(1) 개요

2003년 12월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개관하였으며, 각종 자료실과 열람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4층의 멀티미디어 체험실은 미니천체관, 모평실험실, 가상과학실험실, 사이버물고기, 디지털나비관, 영상체험실, 컴퓨터음악실을 두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습득과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2) 연혁

- 2001. 7.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착공
- 2001. 11.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2003. 11.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준공
- 2004. 1. 관외대출 등 자료실 개설

(3) 일반현황

시설규모			장서현황		
부지(m ²)	건물(m ²)	열람석	계	도서	비도서
13,713	10,652	2,000	169,567	168,274	1,293

(4) 자료실

구 분	자료 내용	열람시간	
		평일	토/일
관외대출실	일반 도서 열람·대출	09:00-20:00	09:00-17:00
		평일	09:00-18:00
어린이실	유아·어린이도서, 백과사전, 잡지/신문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종합자료실	전 주제 일반도서, 어린이 도서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참고연속간행물실	사전, 연감, 통계, 잡지 등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정보검색, DVD, VOD, CD 등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멀티미디어체험실	미니천체관, 모평실험실, 가상과학실험실, 영상체험실, 컴퓨터음악실	평일	09:00-17:00
		평일	09:00-18:00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향과 과제

경기도교육청 사서 / 허 춘 자

1. 들어가며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배경
3. 학교도서관 비전과 전략
4.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세부 추진과제
5. '06년 열린 학교도서관 확대 운영 방안
6.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방향과 발전과제
7. 마치며 – 학교도서관의 의미

여 백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향과 과제

경기도교육청 사서 협력자

1. 들어가며

첫눈에 가슴이 설레고 추위가 온 몸을 움츠리게 하는 12월 초 겨울이다. 공공도서관에서만 17년 정도를 근무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식도 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혹은 도전으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그야 말로 자나 깨나 학교도서관이 나의 최대 화두였고 솔직히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학교를 방문해 보고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학교도서관이 많이 변화되었고 학생들로 북적된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학교도서관이 변화되고 있구나를 실감하면서 잠시 보람도 느끼곤 한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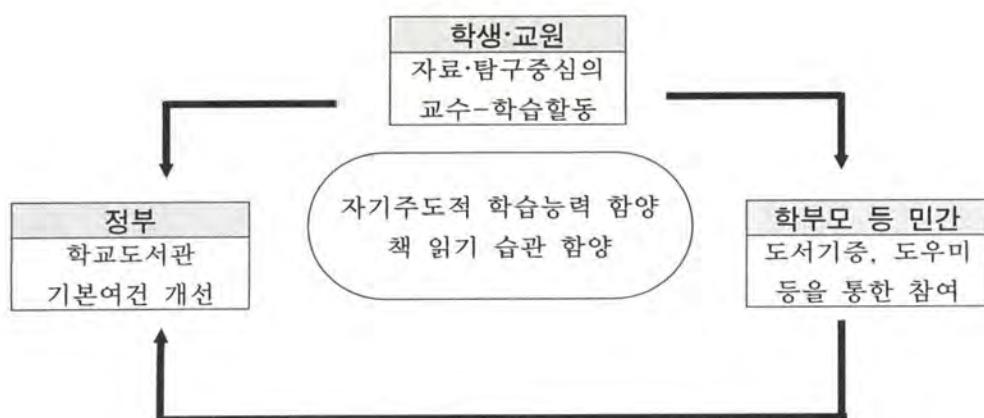
-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 방법 개선이 필수적임
- 새로운(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필요
- 평생학습사회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 공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3. 학교도서관 비전과 전략

창의적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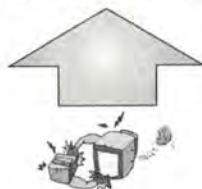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지식/정보 서비스 디지털-네트워크화 교수-학습의 핵심 공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제공



장서소장 및 관리



인쇄매체 중심의 자급자족형



교육의 단순 보조적 수단



공급자 중심의 단순 정보 제공

4.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세부 추진과제

[추진목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함

과제 ① :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과제 ② :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과제 ③ :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과제 ④ :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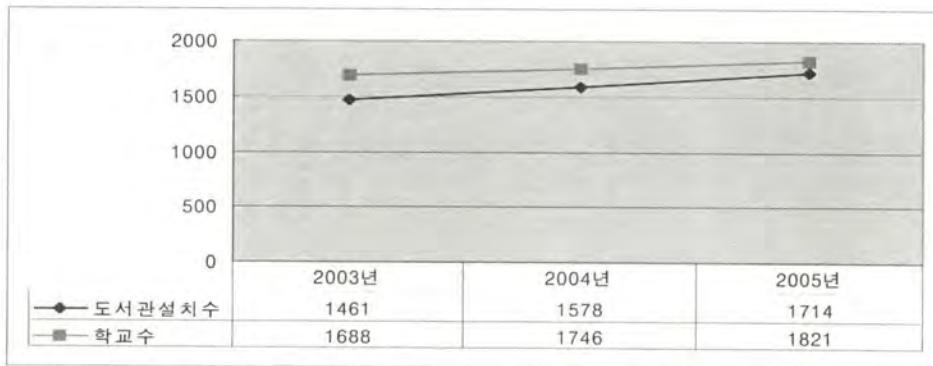
가.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1)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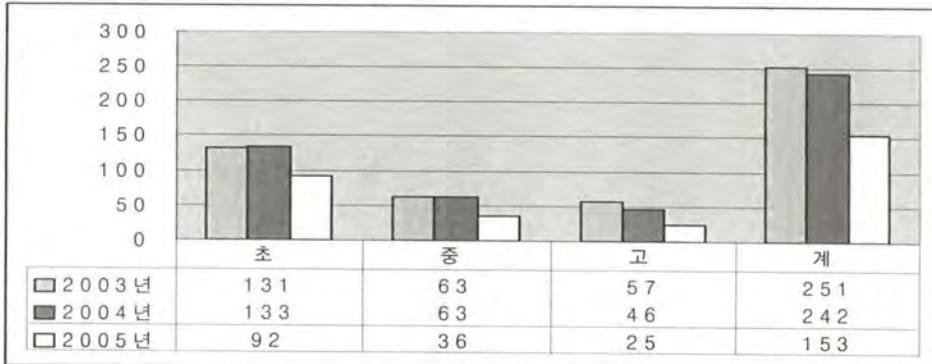
- o 1학교 1도서관(실)을 구비하고, 학생1인당 장서량을 2007년까지 10권으로 확충함

(2) 주요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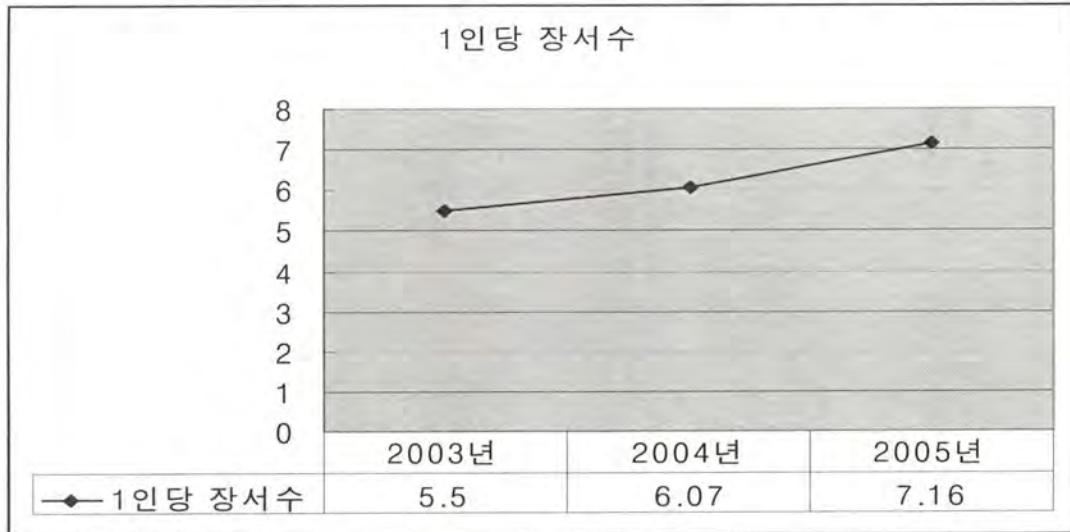
- o 학교도서관 설치 : 총 1,714 교



- o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설치 및 리모델링) : 총 646개교



-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5권('02년)에서 7.16권('05년)으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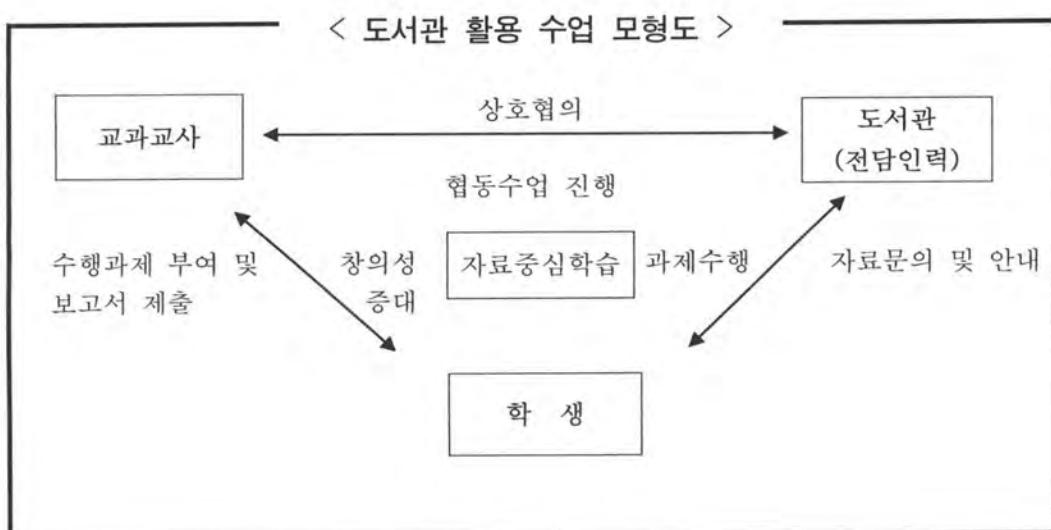


-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실적
 -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구축 운영
 - DLS 등록학교수 : 1,359교, 사용학교수 : 934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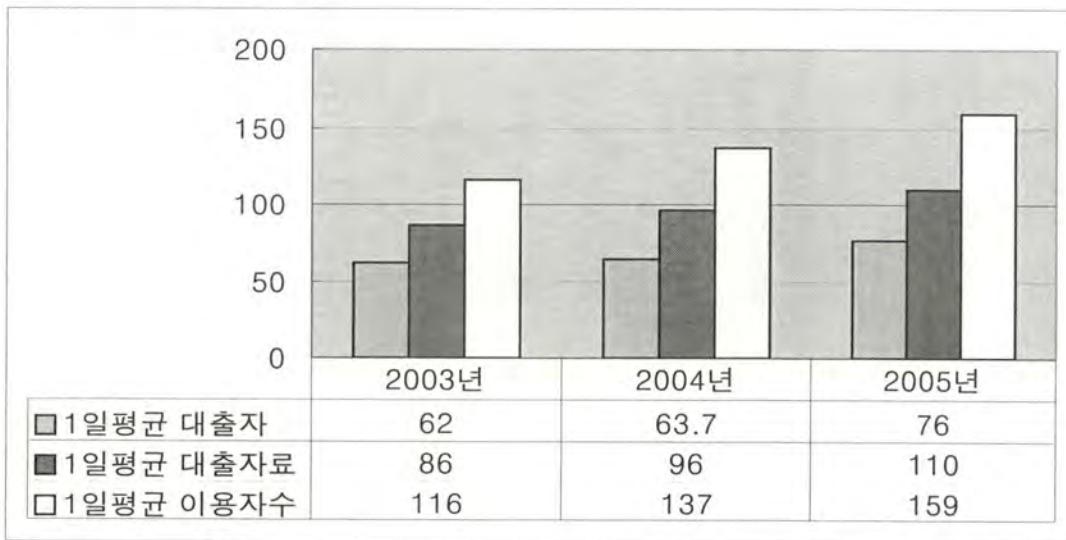
나.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1) 추진목표

- 도서관 활용 수업(Library-Assisted Instruction) 활성화
-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교도서관 이용실적



(3)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 정책연구학교 운영('03-'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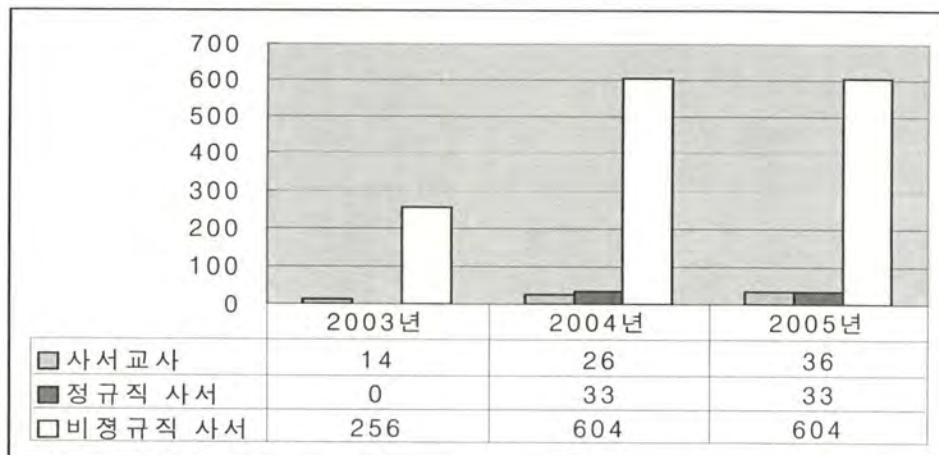
- o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안 개발 및 일반화 추진

다.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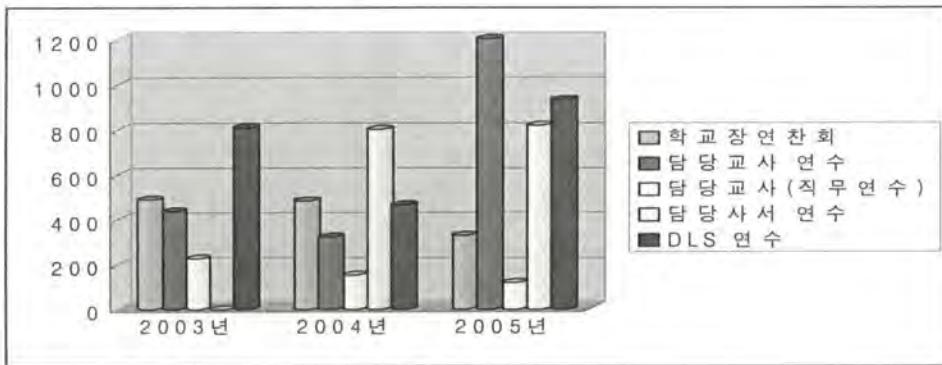
(1) 추진목표

- o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담 관리 인력이 배치되도록 함
- o 학교도서관이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책임자 또는 담당교사의 역할을 확립함

(2) 주요 추진실적



(3)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라.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1) 추진목표

- 민간에서 시작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로 정착되도록 함

(2) 추진실적

○ 기관간의 협력사례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례 : 교육협력사업(도서구입비, 사서인건비, 학교용지 내 도서관 건립 등)
- 기초지자체와 지역교육청 협력사례 : 도서구입비 지원, 물적기반 조성비 지원

5. '06년 열린 학교도서관 확대 운영 방안

가. 추진배경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및 운영의 다양화 실현
- 학교도서관 기본환경을 개선하고 장서를 확충하여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서 전문인력 확충 필요
- 평생학습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나. 추진방법

○ 열린 학교도서관 확대 운영

-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열린도서관으로 확대 개편
- 기 학교도서관 지원교(설치, 리모델링, 사서교사 배치교)시설 최대한 활용
- 사서 전문인력을 비정규직 사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규 사서(교사)로

전환 추진(매년 10% 이상 추진)

- 열린 학교도서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
 - 공공도서관과 연계 추진

다. 학교도서관(실) 현황

(2005. 4. 1 현재)

구분	학교수	도서관 수	전담인력(명)			1인당 장서수 (권)	교당도서관 예산(천원)	
			사서교사	비정규직사서		계		
				도지원	자체채용			
초	1,011	954	16	359	244	619	8.56	18,562
중	472	439	11	144	61	216	5.35	13,672
고	338	321	9	101	36	146	5.70	15,270
계	1,821	1714	36	604	341	981	7.16	16,718

라.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 1학교 1도서관(실)을 구비하여 학교도서관 미설치교를 완전 해소하고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적 구조를 구현함
- 학생 1인당 장서수를 7.16권에서 10권 이상으로 확충하고, 장서의 내용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일신함

과제 (2)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 도서관 활용수업(Library-Assisted Instruction)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운영함

과제 (3) : 전문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사서 전문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비정규직 사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서정원을 확충함
- 학교도서관이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과제 (4) :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 학부모 도우미, 책 기증 운동 등 민간 참여운동 전개
- 지역 내 평생학습 기반 구축

6.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방향과 발전과제¹⁴⁾

가. 학교도서관 운영의 방향

(1) 교과 지향적 운영

학교도서관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교과과정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를 높이는데 있다. 도서관이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교수 학습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 맞추어 자료 개발과 시설과 기자재 활용, 공간 운영, 프로그램 계획과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용자 지향적 운영

학교도서관의 모든 운영은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적 측면보다는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도서관이 서비스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자료와 공간이 관리와 통제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위주로 운영되어서 개방적이며 편리한 분위기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잡아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

(3) 자료 중심 운영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핵심자원은 풍부하고 가치 있는 자료에서 나온다. 따라서 도서관의 운영자는 일차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과 기자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도서관 서비스의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아도 된다.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실한 인쇄 매체와 다양한 비도서 매체를 개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다양한 자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4) 체계와 계획에 따른 운영

학교도서관의 운영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즉흥적이며 즉시적인 방편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그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으로 만들어 두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5) 전문 원리 주도적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운영원리와 기법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령 자료개발과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배분과 평가 등

14) 김종성,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교 학교장연찬회", 경기도교육청, 2005, p.37.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철학과 이론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통제를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학교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과제

(1) 사서교사(사서)의 배치와 리더십 보장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배치율이 낮으며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많아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도서관 발전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

(2)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

우선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나 각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한다.

(3) 학교 경영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자가 학교도서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하면 학교도서관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경영자가 무관심하고 인식이 낮으면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경영자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일반 교과교사의 이해와 협력 확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교과 교사들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체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일반 교과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는 원리에서 보면 교과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담당자나 학교 경영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 학교도서관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사들을

이용자로 유인하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도서관 고객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5) 학교도서관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학교도서관이 좋은 자료가 없으면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 또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서만 좋은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고 학교도서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7. 마치며 – 학교도서관의 의미

요즘 들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학생 독서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종래의 장서를 소장하는 곳, 도서대출의 장소에서 각종 전자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갖춘, 이른바 학교교육의 중심지, 학생들이 참다운 의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스스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요 내용을 ICT를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중심지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학교도서관은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겨 찾는 학교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발전방안

경기도고양교육청 사서 / 김 인 숙

1. 들여다보기(경기도 고양시 사례)
2.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안
3. 마무리

여 백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경기도고양교육청 사서 김 인 숙

1. 들여다보기(경기도 고양시 사례)

가. 학교도서관

고양지역 학교도서관(초·중) 현황

- 학교도서관 설치 : 설치교 98교, 미설치교 3교(신설교 2교, 과밀학교 1교)
- 전담인력배치 : 사서교사 1교, 계약직 사서 76교, 도서관담당교사 및 학부모가 운영 22교
- 소장자료수 : 교당 평균 9,380권
- 1일 평균 이용자수 : 교당 평균 252명
- 2005년 여름방학 중 독서교실 실시 : 50교 1500명 참석
 - 방학중 기타 프로그램(동화읽어주기, 보물찾기 등) 실시 : 22교

나.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설·설비의 확충과 같은 행정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설·설비의 확충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학교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된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 1) 물적기반지원 :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학교에 각종 필수기준(시설, 비품, 자료, 전산화)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적 구조를 구현하며,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보강하도록 지원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학교수 : 62교)

- 2) 사서지원 :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학교수 : 85교)

- 3) 도서지원 : 학교도서관의 자료(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도록 지원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학교수 : 43교)

4) 기타지원 : 디지털자료실지원사업 등

다.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 시·군 교육청에 사서직이 배치되어 학교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등교육과 (때로는 학무과)에 소속되어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지만, 이제는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의 역할과 이제 막 궤도에 진입한 단위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고양교육청 학교도서관팀의 주요 업무 내용

1)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에 관한 업무

- 지원신청, 점검, 정산, 표창 등 일련의 업무 수행

2) 학교도서관전담인력 연수

- 사서, 도서관담당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육
- 장서개발, 자료조직, 대출·반납, 폐기 등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도

3) 학교도서관업무지원프로그램(DLS) 교육 및 보급

- DLS 사용에 대한 개별출장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
-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에러(error)발생 해결을 위한 상담
- DLS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상 우수독후활동물을 표창하고, 학교에서 실천한 도서관활용프로그램 및 독서교육수업안을 탑재하여 공유하도록 함

4) 도서관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화

- 기 구축된 도서관시설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보급
- 사서지원단(초·중 사서 8명)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이버(고양교육청 홈/도서관·독서 배너/자료실)에 탑재하여 보급
- 도서관이용법에 관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

5)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 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 독서교육지원단(초·중 교사 8명)이 정기적으로 수업안을 연구
- 개발된 수업안은 사이버(고양교육청 홈/도서관·독서 배너/자료실)에 탑재하여 보급

6) 청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 청내 교육정보자료실을 학교도서관팀에서 인수하여 DLS로 체계화함
- 장학자료, 교육도서(특히 도서관독서관련)를 각급학교에서 검색하여 이용하도록 함
- 관내에서 제작되는 장학자료, 학교요람, 교지 등을 기증받아 체계화
- 국회도서관과의 협약(2005년 12월 체결)을 통해 관내 교직원들이 사회과학

논문을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함

7) 책한마당 축제 개최

- 도서관을 홍보하고, 독서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음(호수공원에서 8,000명 참석)



(독후체험)



(도서교환)

2.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안

가. 기초 영역

(1)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미지 구축

- o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심을 끌게 됨
- o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필요성
자료대출·열람장소라는 단순기능인식에서 벗어나 과제해결장소,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곳, 교과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의 역할을 홍보하여야 함
- o 도서관이용법 교육 실시 :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습관은 평생습관으로 이어질 것임

(2) 장서개발

- o 학교예산의 일정부분을 자료구입비로 지출하도록 강제 : 현재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차츰 5%이상까지 자료구입비로 지출하도록 규정 정비가 필요

- 총장서수도 중요하지만 연간 장서증가량이 더욱 중요함
- 정기적인 폐기로 장서가 순환되어야 함 : 학교장의 마인드 제고
- 자료선정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도서, 기본도서,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권장도서를 구비해야 함. 또한 각급학교별 특성화된 자료를 정하여 수서하고 학교 간 상호 대차하는 것이 바람직함
- e-book은 교육청 단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단위학교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함

(3) 자료조직

- 자료조직을 도서관활용수업이나, 과제찾기 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킴
- 분류 시 시리즈(총서)처리를 지양하고 개별주제로 분류해야 함. 같은 주제의 자료가 나누어져 있어 주제별 탐구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업체를 통한 DB 구축 지양
- 도서관 신규 설치학교의 경우 전문사서 없이 DB구축을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나. 활용 영역

(1) 대출·반납

- 대출하는 학생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냄으로써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함
-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본예절을 지키도록 지도
-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매체를 적극 활용(예:게시판, 권장도서코너설치 등)

(2) 도서관활용수업

- 모든 교과에서 도서관시설 및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협력함
- 계획된 수업이라야 함. 즉흥적인 수업, 시간 때우기식의 수업 지양
- 교과교사가 도서관에서 계획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필요
*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수업 안 예시
(고양교육청홈/도서관·독서배너/정보마당/자료실)

(3)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 도입

- 아침방송을 통하여 e-book보기, 북토크,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 도입
-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예:자료로 보는 세계사, 동화로 떠나는 명절탐구, 재미있는 북아트 등)
-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방과 후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우 도서관활용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함

(4) 축제형식의 프로그램 실시

- 도서관의 날을 정하여 학교단위의 축제 개최
- 책의 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을 최대한 활용
- 책속보물찾기, 독서골든벨, 도서바자회, 독서퀴즈, 동화인형극 등의 다양한 활동 전개

(5)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최
- 학생들이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여름독서교실 프로그램 예

학교명	프로그램 명				대상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고양초	-동화속책이야기 -책 속 배경 지도그리기	-등장인물 이력서쓰기 -동화속양성평등	-역사논술쓰기 -등장인물 가면만들기	-책광고 만들기 -책피라미드	4학년
문촌초	-책제목피라미드 -독서퍼즐, 퀴즈	-동화책 시로 바꾸기	-책 내용 부채만들기 -책주인공만들기		3-4학년
화수중	-시와 친해지기	-논술독후감	-책소개 프로그램제작		1-3학년

(6) 독서치료, 독서상담 활동

- 상황별 독서목록을 제공하고,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의 방법을 연구

(7) 지식격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곳

-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학교의 경우 전담인력부재가 심각하여 오히려 정보격차, 지식격차 해소의 기능을 역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다양한 매체로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8)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

- 정보, 교육, 독서, 레크레이션, 문화 등의 다기능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
- 특히 인구밀도가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다기능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방과 후나 방학기간 중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 * 고양지역 성석초(총 학급수/9학급) 방학중 독서교실 프로그램 예)

- 장소 : 도서실
- 주제1 : 책과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
- 일시 : 2006. 1/10(화), 1/11(수), 1/12(목)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
- 대상 : 2.3.4학년 (20명)
- 일정표

		1/10(화)	1/11(수)	1/12(목)
주제	먹과 친해지기		내가 그린 명화	
참고 도서	-어린이를 위한 한국의 명화/ 홍선표감수/지경사 -내가 처음 가본 박물관/ 조은수/길벗어린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명화 이야기/김선정/삼성출판사		탐방 -미술관 버스

- 효과 : 학생들이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지역으로 도서관에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술관까지 견학시키기 때문에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높음.

(9) 지역사회에게 개방

- o 인근지역사회 주민, 특히 학부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최근 일부 학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는 움직임이 있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지역사회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임

다. 정책 영역

(1) 전담인력의 배치

- o 도서관활성화의 성패는 전문사서 확보에 있음. 이미 사서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은 학교는 사서의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임
- o 특히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안정된 인력 배치가 절실히. 도서관 환경 재정비 사업 후에도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서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침 상 자체예산을 일부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신청조차하기 힘든 상태임
- o 학부모도우미, 도서부원의 적절한 협력이 있어야 함

(2) 학교도서관업무 담당 조직 정비

- 시, 도 단위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독립되어 있어야 함.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진 조직을 일원화해야 함. 현재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업무는 중등교육과에서, 공공도서관 업무는 평생체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단위학교에서도 독서, 도서관을 통합하여 부단위의 조직으로 재편성해야 함. 도서관과 독서교육은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수적임. 나아가 시청각 담당교사, 정보화 담당 교사와의 상호협력도 필요함

(3) 교육청 및 학교평가 시 학교도서관 내용을 강화

- 평가항목에서 도서관 운영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평가하고, 점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따라 관리자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함

(4)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 신설교에 장기대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이나, 독서교실, 독서캠프 등에 상호 협조 등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상호 공유하도록 해야함

(5) 학급수, 지역여건 등에 따른 학교도서관 모형의 다양화

- 과밀학급지역, 교육문화환경이 빈곤한 지역 등의 학교에서는 마을문고와 학교도서관을 통합하여 학교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률적으로 학교 교실 일부를 도서관화하여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도서관 모형을 다양화하여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3. 마무리

-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인하여 물적기반적인 요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음 리모델링 사업 후에도 도서관예산을 확대 편성(지침으로 강제)하여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
- 이제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함. 투자된 시설과 자료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도서관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함. 실제로 학부모들은 방학중 또는 방과 후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학기 중 일부 시간에만 개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학교도서관 발전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를 늘려야 함
- 주5일수업제의 실시로 인하여 학교도서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로의 개방이라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울타리안의 학생, 교사만을 위한 시설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민관학산의 동반자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 . 교육인적자원부(2005, 5.), 국정브리핑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육성"
- . 이희수(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과제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효과

경기도부천교육청 사서 / 조 성 일

1. 들어가며 – 이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자
2. 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3.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4. 외국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
5. 마치며 –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미래

여 백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효과

경기도부천교육청 사서 조 성 일

1. 들어가며 – 이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자

「전국도서관대회」에만 관심이 있던, 공공도서관에서 20년을 근무한 내가 「전국학교도서관대회」에 2번 참가를 하였다. 내가 인솔한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은 대회 참가 내내 대화내용이 학교도서관이었고 올해는 학교도서관사업이 꽤도에 오르며 지역별 사업홍보에 대회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2002년 발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2003~2007)사업」 수립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는 중등교육과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팀'이 조직·운영 되었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 33명이 배치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자신은 없다. 언제나 처음은 조금은 낯설고, 두렵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학교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사서의 정체성은 한 가지라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조직, 교육청에 근무를 희망하였고 지금은 학교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5개년'사업 기간 중 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을 돌아보고 학교도서관업무를 담당하며 느끼고 부딪쳤던 일과 학교도서관부서의 설치 효과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2. 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도서관에 관한 한 그 기대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교 도서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잘못인 채로 현재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몇 달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영어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교육 이민과 조기 유학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반대편에는 언제 폐교가 될지 모르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다니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의식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다.

지난 5월 태평양 연안 17개국 청소년들의 의식 조사에 관한 유니세프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사회적 권위에 대한 외경심이 가장 낮은 17위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16위인 태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인 꼴찌였다는 것이다. 지난친 유추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지경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윤리 의식은 거의 세계 최하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난맥상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본래의 위상과 권위를 상당 부분 사교육에 내준 채 비틀거리고 있는 공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공공도서관에 근무할 때 보다 교육청에 근무하면서부터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하는 문제였다.

가. 부천 S초등학교의例

부천에 있는 S초등학교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서를 배치한 후 학교의 표정이 달라져 가고 있다. 2005년 9월 학교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사서, 학부모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은 도서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지 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다. 교실 4개와 복도, 복도의 휴게 공간을 통합된 하나의 공간으로 묶은 널찍한 공간이 인터넷 환경을 갖춘 디지털자료실, 개가식으로 정리된 일반자료실,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한 참고자료실, 온돌방형태의 저학년 열람실로 황금 분할되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모든 칸막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서는 한 눈에 도서관 전체를 살필 수 있다. 고급스런 인테리어, 한껏 키를 낮춘 친숙한 대출대, 신간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한 만 2천 여 권의 장서, 적정 룩스로 맞춘 조도(照度), 스타들의 대형 브로마이드 게시, 다양한 정기간행물 코너 운영 등 열람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련된 환경과 다채로운 컨텐츠를 갖추고 문을 연 이후 학교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독서실 수준이었던 도서관은 이제 학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사한다. 과제가 떨어지면 전자자료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DVD 앞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스타들의 사진이 붙은 참고자료실에서 월간지를 뒤적인다. 점심시간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서관은 어린이들로 가득 차서 북적거린다.

참석자들은 살아 숨쉬는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전류처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1년 간 계약제로 배치된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언제나 찾아오면 편안한 곳,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곳,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마음껏 자유를 체험하는 장소, 그리고 무한한 세계를 만나는 행복한 곳, 새 책을 손에 쥐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도서관 현대화 작업에 든 비용은 7천여만원, 학교는 도서관 설치비용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여기에 학교비 2천여만원을 보태어 도서관의 모습을 일신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가장 보람 있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다. 경제 논리로 따져보아도 학교도서관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임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사서는 이용자 교육이 강화되면 도서관을 찾는 학생 수는 더 불어날 것이며 독서 수준도 격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300여명, 대출도서 수가 150여 권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학교 학생들의 인성은 순화될 것이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지 않다. 현 단계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것은 사서배치 문제다. 1년간 계약제로 임용된 사서가 내년에도 근무하게 될 런지 확신이 없다.

만일 사서가 재임용될 수 없다면 도서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교사가 업무분장의 형태로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게 될 때, 도서관은 현재의 모습처럼 살아숨쉬는 학교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모든 학교가 적어도 S학교 수준의 학교도서관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학교도서관 운영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새 학기를 준비하던 기간인 2월, 계약제의 설움을 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서들의 분노와 절망, 학교의 예산부족으로 도서관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사서를 해고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상담으로 보낸 우울했던 한 달을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나. 학교도서관의 현실

학교도서관은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소프트웨어로서의 도서자료, 휴먼웨어로서의 사서 및 사서교사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허약하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수준 미달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전국 이래 최초로 마련된 정부 차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천재일우의 모멘텀으로 삼고,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밖에 없다.

(1) 도서자료의 빈약성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8천여 개 학교의 반이 훨씬 넘는 5천여 학교의 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장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마저도 쓸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천관내는 초등학교는 평균 1학생당 8권 중학교는 1학생당 5권 정도의 수준으로 망신스러울 정도는 벗어났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2) 전문 인력의 취약성

2005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284명으로 전체 교원 수 대비 0.07%, 전체 학교 수 대비 2.7%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서는 경기도의 경우 900여명이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학교도서관을 통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고객이다. 사서 인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완성시킨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學校圖書館活性化綜合方案』은 전국 이래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입안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 또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서배치 문제를 구령이 담 넘어가듯 해버린 결정적인 한계는 있지만, 어떤 계기가 오면 다소 보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사서 인력 문제였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일당제였던 근무조건이 올해에는 월급제로 바뀌어 계약 기간만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3.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며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학교장의 생각을 바꾸는 것,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뜻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독서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설치·리모델링 학교의 좀더 기능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교육청에 도서관 지원팀이 설치된 후 관내 학교의 도서관이 발전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길은 오직 열심히 하는 길 뿐이었고, 마음만 앞서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온 눈물겨운 시간들이 도서관에 다소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소속과의 과장님과 교육장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으로 도서관에 관한 고정관념

을 변화시키고 우수학교도서관을 소개하고 방문하시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도……’ 하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시도록 응원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의기소침해 있는 관내 사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게 하고 홈페이지에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늘 우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 힘써, 뜻을 함께해야만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큰잔치」와 「여름독서교실」을 거의 전학교가 참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전담부서의 설치효과는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5년 학교도서관 대회를 참관하며 장학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타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사업에 비하여 경기도 교육청의 부스는 도교육청사서와 지역교육청사서의 유기적인 업무로 더욱 활기 있었고 전시내용을 더욱 당당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學校圖書館活性化綜合方案』이 마무리 되는 2007년 까지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지역 교육청 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팀’의 조직이 현재 장학사를 팀장으로 독서와 도서관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사서의 세속적인 힘의 미약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의 정상화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기획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학교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면 학부모 도우미든, 서무직원이든 모두 사서인줄 아는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고 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의 전환도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서자격증에 대한 품위와 위상을 우리가 지키고 높여야 할 때이다.

4. 외국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 여러 가지 사회 지표상 중진 국가의 선두 그룹에 속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 관한 한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학교도서관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화여대 정동열 교수가 소개하는 미국 학교도서관과 이웃 일본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책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가. 미국

(1) 캘리포니아 Geyerville 초등학교

이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북쪽 120Km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초등학교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175명이다. 학교도서관은 최신 건물에 15,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서 1명과 보조사서 2명 등 3명의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 펜실베니아 Seteson 중학교

이 학교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대도시의 전형적인 유형의 중학교다. 7학년부터 9학년과정에 각 학년 세 반씩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2층이며, 30,000여권의 장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서는 4명으로, 문현정보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사서 2명과 보조사서 2명이며,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10여 명씩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3) 하와이 Amien 고등학교

1962년에 개교한 중소도시형 사립 고등학교로서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450여 명의 학생과 40명의 교사가 있으며, 정사서 2명과 3명의 보조사서가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전체 소장 자료 50,000여권이 듀이십진분류법에 따라 진열되어 있다. 이 밖에도 1,200권 정도의 참고정보원과 뛰어난 하와이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온라인 목록은 서명, 저자, 주제명,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도서관 내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자료는 물론 미국 내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과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1995년도 학교도서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당 1.9명, 고등학교는 3.9명으로 학교당 평균 2.2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겸임 사서교사와 학교 사서가 포함된 숫자지만, 4만 1천 3백여 개 학교에 8만 9천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일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겸임 사서교사를 전문 사서교사로 대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5. 마치며 –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미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정동열 교수가 소개한 미국의 학교도서관 사례나 일본의 통계 자료는 부러움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 위기감의 근원은 국가적으로 볼 때 미래 인적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인프라가 미국이나 일본과는 아예 비교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시설과 규모 측면의 하드웨어와 도서 자료 및 업무 전산화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배치 측면에서의 휴면웨어 등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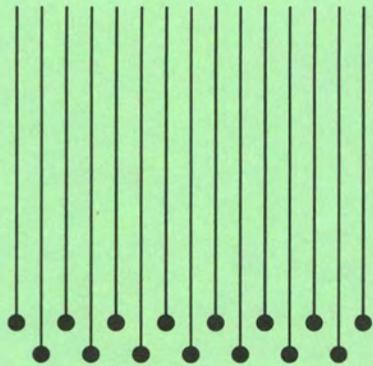
선진국 청소년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읽거나 학습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사색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과외에 시달리거나 0교시 수업과 야자학습에 내몰려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끌어갈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도서관을 육성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며, 그 토대 위에서 국가 인적자원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는 유력한 해법과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가설이 구체화된다. 晚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도서관을 화두로 한 심각한 성찰과 함께 육성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이제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담당 업무부서 설치의 당위성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명감도 확고해 진다.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핵기관으로서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의 요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단위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가닿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김동순.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도서관 연구(서울시 도서관 연구회) Vol.9 1992.
- 김선희. “온라인사서에 대한 고찰” 도서관 Vol.46 1991.
- 변우열. “도서관사서의 업무분석” 도서관 Vol.42 1987.
- 유연선. “새로운 사서들” 도서관연구(서울시도서관연구회) Vol.5 1988.
- 정병환. “정보화시대와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서의 역할”
도서관정보학논문(충남대) Vol.1 1984.

여 백



도서관, 활동의 현장

여 백

2005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경기도수원교육청 사서 / 이 경 옥, 백 혜 림

1. 학교도서관 축제 행사의 의의
2. 수원시 학교도서관의 비전
3.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운영 사례
4. 운영평가

여 백

2005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경기도수원교육청 사서 이 경 옥, 백 혜 림

1. 학교도서관 축제 행사의 의의

가. 행사 개요

수원시교육청은 수원시와 공동 주관으로 2005년 4월 30일(토) 1일간 수원시 송죽동에 위치한 만석공원과 송원여자중학교 일원에서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약 1,730여만원의 예산으로 체험활동, 전시, 강의, 공연, 대회의 5개 분야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준비에서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의 전담 사서, 교사, 학부모 독서 도우미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지역사회의 정관계 관련 인사, 도서관 학계, 경기도 일원의 도서관 관계자 등 내외빈을 비롯 학생, 시민, 학부모 등 1만 여명이 축제를 참관하여 실질적이고도 성대한 규모의 관심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나. 행사의 의의

이번 축제는 '체험해 봐요! 지혜 쑥쑥! 도서관 여행'이라는 주제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적 기능을 통한 교육인프라로서의 중심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도 창의적인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시연하여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촉매 역할 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정보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이번 축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더욱 더 괄목 할만한 것은 자치단체(수원시)와 더불어 지역 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행사를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의 중요한 의미 중 마지막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2003~2007)으로 발령 보임된 수원시내 학교도서관 전담사서들이 주역이 되어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학교교육에서의 사서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2. 수원시 학교도서관의 비전

가. 수원시 관내 학교도서관 현황

2001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그 역사적 태동을 맞았고 2003년부터는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수원시 관내 학교도서관도 서서히 그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어 전무하기만 했던 학교도서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5년도 수원시 교육청 관내 학교도서관 현황〉

학교 급별	학교수	사서배치현황 (자체채용교의수)	학생1인당총장서수 (권)	전담도서관 갖춘학교수	도서관면적1 98㎡이상	비고
초등 (공립)	79	38(27)	7.9	79	26 (33%)	2004.9이후 신설교제외
중학교 (공립)	37	17(7)	4.3	37	8 (22%)	

* 참고자료 :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교육부보고) 2005.4.1. 현재

* 단, 사립학교는 조사에서 제외함

우선 전문 인력인 사서 배치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서 지원교 외에도 학교 자체 채용교가 34개교로 학교도서관 사서의 필요성 인식이 2001년도에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에 도서관 전담공간이 확보되어있고, 교실 3칸 이상을 도서관 공간으로 확보한 학교도 초등 33%, 중등 22%에 이른다. 1인당 총장서의 경우도 초등 7.9권, 중등 4.3권으로 장서량의 증가도 큰 변화이다.

2004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사업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교도서관담당사서를 배치하였고, 수원교육청에도 2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나. 수원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활성화 사업으로 사서전담인력지원, 도서관리모델링지원, 도서관설치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는 2007년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담당 사서를 배치하여 각 학교도서관의 지원업무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에 따라 수원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 다음의 4가지 목표를 중점 정책 과제로 세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1)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자료 확충7

수원시교육청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문제와 자료 확충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한다.

(가) 기본시설 면

신설학교의 경우 공간만 확보해 줄 뿐 기본시설 및 자료,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신설교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도서관을 개관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교와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실처럼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개교 전에 그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도교육청 장학지도 협의회시 의견 제출 등 이 부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나) 자료확충 면

학교기본운영비의 1%이상을 도서관운영비로, 3%이상을 도서관자료구입비로 집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경비와 비품구입 및 설치비, 최신 자료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부분이기에 이를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2) 전담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2005년 수원시 학교도서관 현황을 보면 116개 학교 중 90개교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다. 이에 수원시교육청은 사서가 없는 학교와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담당교사와 학부모독서도우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운영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사서가 없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나가면서 사서의 역할과 필요성도 언급하여 각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데, 이번‘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행사가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 바 있다.

2007년도까지 해마다 학교도서관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이를 중점 정책 과제로 삼아 일선 학교 사서들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창의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4)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우선 교육인프라의 중추인 학교도서관 부분에 수원시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2005년도 도서구입비 지원금으로 224,000,000원, 도서관리모델링 및 도서관설치지원교 지원금으로 510,120,000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3.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운영 사례

가. 기획일반

(1) 운영조직 구성

행사 준비과정에서 수원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팀 사서 2명 외에 추진협의회와 운영책임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추진협의회는 초,중등 교감 11명과 부장교사 4명으로 구성하였고, 운영책임자협의회는 학교도서관 사서 15명을 구성하여 사전협의회를 거친 후 최종 21명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책임자협의회의 책임자 사서 21명은 각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은 사서들의 팀장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예산확보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행사에는 약 17,3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 중 교육청이 10,000,000원 수원시가 7,300,000원을 분담하여 공동 사업으로서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

	수원교육청 본예산	수원교육청 추가지원예산	수원시 지원금
예산현황	4,660,000원	5,340,000원	7,300,000원
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용 도서구입비 4,915,370원 - 초청장 제작비 : 600원×400장=240,000원 - 사방화 100,000원 - 트럭운송비(도협포스터운송비 및 교육청 행사 물품운송비) 484,000원 - 초청장발송비 50,380원 - 물품구입비(커피, 녹차, 사탕, 종이컵) 198,360원 - 물품구입비(각종 문구류) 701,700원 - 만석공원내 아외음악당 대관료 60,000원 - 북-아트 재료비 600,000원 - 버스임대료(환경재단) 300,000원 - 중식비 5,000원×198명=990,000원 - 동화구연 강사수당 2시간 = 180,000원 - 작가와의 대화 강사수당 1시간 2명 = 400,000원 - 명사초청 특강 강사수당 240,000원 - 그리기대회 심사수당 70,000원×3명=210,000원 - 북아트강사수당 50,000원×6시간=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스대여비 28,000원× 37개=1,036,000 -부스탁자대여비 10,000원×167개=1,670,000원 -의자대여비 1,500원×700개=1,050,000원 -안내장(행사안내팜플렛) 제작비 300원×10,000장=3,000,000원 -현수막(37개 부스 소개용 5M) 30,000원× 37개=1,110,000원 -현수막(홍보용 6개 12M) 80,000원×6개=480,000원 	<p>※ 수원교육청 지원요청액은 8,346,000원이나 수원시 실제 집행액은 총 7,300,000원임</p>

(3) 행사준비 일정

2004년 8월 본예산 결정이후, 학교도서관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오다가 본격적으로 행사준비가 진행된 것은 2005년 1월부터이다. 행사당일까지의 진행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월~ :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계획 초안 작성
- 1차 사전협의회 2005. 1.12.(수) : 15여명의 사서를 구성하여 행사 규모 및 추진 절차 논의, 프로그램 목록, 진행 논의 및 홍보
- 2차 사전협의회 2005. 3. 4.(금) : 수원 관내 초·중·고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행사 홍보 및 각 프로그램별 업무분장
- 1차 추진협의회 2005. 3.17.(목) : 수원 관내 초·중등학교 교감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15명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계획 수립
- 3차 운영 책임자 협의회 2005. 3.19.(토) : 각 프로그램별 책임자 사서 21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계획 검토 및 수정
- 2005. 3.23.(수) :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최종 계획안 수립
- 2차 추진협의회 2005. 3.23.(수) : 행사진행에 따른 업무분장
- 4차 운영 책임자 협의회 2005. 4. 8.(금) : 추진협의회 위원들과 각 프로그램별 책임자 사서들을 대상으로 만석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행사 진행 중간 점검
- 2005. 4. 29.(금) : 부스 설치 및 사전 리허설
- 2005. 4. 30.(토) : 행사 진행
- 2005. 5. 27.(수) : 행사 후 평가회

전반적인 계획이나 추진은 수원교육청에서 준비하였으나, 최종계획안이 나오기까지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너무 잦은 모임은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 책임자와 운영진을 두어 책임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프라인 모임을 갖지 않을 때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였다.

(4) 학교와의 역할 분담

15명의 추진협의회 위원들과 21명의 운영책임자 협의회 위원들, 그리고 이 행사에 운영진으로 활동한 80여명의 사서들이 각기 담당 프로그램을 맡아서 팀별로 행사준비를 진행하였다. 100여개의 학교와 사서가 프로그램에 작품을 전시하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5) 자치단체 (수원시)와의 협력 모델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행사를 위한 수원시교육청의 본예산은 466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함에는 예산이 부족하였다. 이에 학교도서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도

서관을 통한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교육 인프라를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축하자는 뜻을 수원시에 전했고, 그 시작의 발판으로 이번 행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수원시는 이 취지를 받아들여, 이 행사의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기를 결정하였고, 7,300,000원을 지원하였다.

나. 운영 내용

(1) 축제의 분야 구성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체험활동 부문 14개 프로그램, 전시부문 7개 프로그램, 강의부문 4개 프로그램, 공연부문 2개 프로그램, 대회부문 1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5개부문,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강의 부문은 송원여자중학교 체육관과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부문은 만석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음향시설과 무대가 필요한 공연 분야는 만석공원 내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중앙무대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체험활동 부문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참여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사탕과 출판사에서 협찬을 받은 그림엽서를 나누어주어 참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작지만 선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위프로그램 소개

만석공원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 부문과 전시 부문은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하나의 부스는 가로6m×세로3m의 사각텐트모양이며, 부스 안에 배치한 테이블은 가로180cm×세로80cm였다. 테이블은 전시작품을 올려놓거나, 체험활동을 할때 참여자들을 위해서 배치한 것이다.

또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50명을 자원봉사자로 섭외하여 각 프로그램마다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사서들의 일손을 돋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개막 축하 행사			
구 분	시 간	장 소	참석대상
개회식(야외음악당)	10:00 ~ 10:30	만석공원 내 야외음악당	누구나
(1) 시링크스 팬플릿 연주	10:30 ~ 11:00	"	누구나
(2) 송죽초 팬플릿 연주	11:00 ~ 11:30	"	누구나

전시 부문			
프로그램명	활동시간	활동장소	참석대상
우리학교도서관자랑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북아트 전시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시화전, 사진전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내가 꿈꾸는 도서관 미니어처 전시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우리나라 그림책 전시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세계 책의 날” “도서관 주관” “독서주관” 포스터 전시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강연 공연 부문			
프로그램명	활동 시간	활동장소	참석대상
동화구연강의	13:00 ~ 15:00	송원여중 시청각실	신청자에 한함
작가와의 대화	초등 11:30 ~ 12:20 중등 12:50 ~ 13:40	송원여중 체육관	신청자에 한함
명사초청 리더쉽 특강	14:00 ~ 15:00	송원여중 체육관	신청자에 한함
행운권 추첨 각 강좌부문 참가자 전원에게 행운권 추첨 기회를 통하여 10명을 추첨하고 당첨자의 학교로 100권의 책을 선물함	15:00 ~ 15:30	송원여중 체육관	강좌부문 참가자 에 한함
학부모인형극	영일초:11:30~12:00, 12:50~13:20 칠보초:12:10~12:40, 13:30~14:00 천일초:14:10~14:40, 14:50~15:20	만석공원 내 야외음악당	누구나

대회 부문			
프로그램명	활동시간	활동장소	참석대상
독서감상화 & 책광고 그리기대회	13:00 ~ 15:00	만석공원	신청자에 한함

체험 활동 부문				
프로그램명	활동시간	활동장소	참가대상	활동확인
북아트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개인장서표 만들기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학교장서표 만들기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책 기증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책 교환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권하는 책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NIE 활동 코너	10:30, 11:30, 13:30	만석공원	누구나	
마인드 맵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5행시짓기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자유롭게 글쓰기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책 읽어 주는 코너	11:00, 13:00, 14:00	만석공원	누구나	
내 실력 테스트 코너	10:00 ~ 15:00	만석공원	누구나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최우수 학교도서관 견학	10:30 ~ 15:00	한일초, 송원초	누구나	
그림책버스 뚜뚜	10:30 ~ 15:00	만석공원	전시 및 활동코너 10개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탑승할 수 있음	
행운권 추첨(좋은책 선물) 추첨시간: 13:00부터 (공연이 없는 시간마다 추첨)	13:00 ~ 15:30	만석공원 내 야외음악당		

1) 체험활동 부문

만석공원에 프로그램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사서들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였다.

가) 작은 책 만들기(북-아트 활동)



북-아트 전시부스와 이어지도록 부스를 설치하여 북-아트 작품들을 둘러보고, 직접 북아트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곡반중학교 사서 외 7명의 사서들과 문화숲속예술샘 북-아트 강사가 운영하였다. 부스 안에 테이블 12개를 배치하여 한쪽에 사서들이 서고 반대쪽에는 참여자들을 마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들이 북-아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전화번호부, 트윈북, 병풍접계책 세 가지의 작은 책 만드는 법을 설명하면 참여자들이 지도에 따라 만들었다. 하나의 작은 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정도가 걸렸다.

나) 개인장서표 만들기&학교장서표 만들기



2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산남중학교 사서 외 5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다. 부스 앞에는 사서들이 미리 준비한 장서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장서표 만드는 과정을 판넬로 만들어 이젤에 올려놓았다. 참여자들은 사서들의 지도하에 지우개에 자신이 원하는 문양을 본을 뜨고, 조각칼로 파내서 자신만의 장서표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이 장서표를 완성하면 스탬프로 찍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서들은 결과물들을 부스 천막에 쭉 붙여놓아 한눈에 활동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장서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정도가 걸렸다.

다) 그림책 버스 뚜뚜



화서 초등학교 외 8개교가 참가하였고, 각 학교마다 <종이봉지 공주>, <헨델>

과 그레텔〉,〈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등 동화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동화책 속 주인공 분장을 하여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가장행렬을 하였다. 오전에는 그림책 버스를 앞세우고, 가장행렬하는 학생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만석공원을 한바퀴 돌았다. 그림책 버스는 환경재단에서 대여하였으며, 리무진관광버스로 그 안에서는 3분에서 5분짜리의 환경동화를 상영하였다. 오전에 가장행렬을 마친 후부터는 그림책 버스는 고정된 자리에서 주차하여 10개의 부스활동을 마친 학생들만을 탑승시켜 환경영화를 보여주었다.

라) 재미있는 NIE 교실



2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영통중학교 사서 외 3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다. 이 부스는 한 부스에 테이블 4개씩을 배치하여 한번에 24명, 즉 48명정도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업형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10시 30분, 11시 30분, 1시 30분 1시간씩 세 번의 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담당 사서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코너이기도 하다. 담당 사서들은 자발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NIE에 대해서 공부하고, 행사 때 사용할 신문도 수집해놓고, NIE 활동지도 제작하였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수집한 신문을 학생들에게 자료로 나누어 주었고, 자체제작한 NIE 활동지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마인드 맵이 알고 싶어요



2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8개의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송원초등학교 사서 외 8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는데, 사전에 담당 사서들이 모여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1~2일 공부하고, 행사 계획을 세웠다. 사서들은 참여자들에게 마인드 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색연필을 사용하여 마인드 맵을 직접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바) 5행시를 지어봅시다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테이블 4개를 배치하였다. 효성초등학교 사서 외 3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고, 참여자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주제로 5행시를 짓도록 하였다. 책상에 전지를 펼쳐놓아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진행하였다.



사) 자유롭게 글쓰기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테이블 4개를 배치하였다. 청명초등학교 사서 외 3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고, 학교 도서관 축제 한마당을 둘러본 소감,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책상에 전지를 펼쳐 놓아서 소감을 적도록 하였고, 묶음 형태의 파일을 사전에 만들어서 감명깊게 읽은 책을 적도록 하였다.

아) 책 읽어주기 & 신나는 동화 구연



이 프로그램은 부스를 사용하는 대신 만석공원에 있는 정자를 활용하여 이야기방을 꾸며서 운영하였다. 풍선아트로 아치를 만들고, 뜻자리를 깔아서 학생들이 앉아서 동화구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영초등학교 학부모독서도우미어머니와 사서, 매원 초등학교 사서가 11시, 1시, 2시 회차별로 운영하면서 1회당 3권의 동화책을 가지고 동화구연을 하였다. 책 읽어주기 전에 간단한 유희시간을 갖고, 책을 다 읽어준 후에는 간단한 퀴즈 및 재연해보는 시간과 옛이야기 CD와 책을 준비하여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자) 나의 독서실력은 얼마일까?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3개의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울전초등학교 외 3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는 담당 사서들이 분담하여 문제지를 준비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0권씩 책을 선정하여 한 장에 한 책에 대한 문제를 10문제씩 출제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원하는 문제지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였고, 6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사탕을 선물로 주었다.

차)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최우수 학교도서관 견학(한일초, 송원초)



만석공원 입구에는 최우수 학교도서관 견학버스를 대기 시켜놓아 매 정시마다 희망자를 태우고 견학을 갔다올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최우수 학교인 한일초등학교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학교도서관의 관심과 열정이 커 자체예산으로 사서도 채용하고, 도서관도 리모델링한 송원초등학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카) 책 기증 & 책 교환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6개의 테이블을 배치 하였다.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에 대한 공문을 학교로 보낼 때부터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2000년도 이후의 책을 한 권씩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책 기증으로 들어 온 것들을 모아서 장서량이 떨어지는 학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기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책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을 기증하거나, 교환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책 기증을 한 사람에게는 500원 할인쿠폰을 제작하여 주었고, 그 500원 할인쿠폰은 권하는 책 바자회에서 책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하는 책 바자회와 함께 탑동초등학교 사서 외 4명의 사서들과 20여명의 학부모독서도우미들이 운영하였다.

타) 권하는 책 바자회

해마다 어머니회나 학부모독서도우미어머니들이 주최가 되어 2~3일동안 책바자회를 하는 학교들이 다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는 학교에게 <교사가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라는 세 가지 주제에 맞는 책 바자회를 열도록 하였다. 각 주제별로 총 3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주제에 맞는 책 목록은 탑동초등학교 외 4명의 사서들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파) 먹거리 바자회



10시부터 15시까지 축제가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홍초등학교의 학부 모독서도우미 어머니들에게 2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김밥, 샌드위치, 음료수 등의 먹거리 바자회를 열도록 하였다.

하) 행운권 추첨

학교도서관 축제에 맞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받는 기쁨을 주고자 행



참여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받는 기쁨을 주고자 행운권 추첨시간을 행운권 추첨시간을 준비하였다. 행운권은 만석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강의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을 지었다. 우선 만석공원에서는 행사 당일 참여자들에게 나눠준 팜플렛에 있는 행운권을 잘라서 추첨함에 넣도록 하였고,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짬짬히 100명을 추첨하여 그 자리에서 책 한 권씩을 선물했다. 강의부문이 이루

어진 송원여자중학교에서는 강의부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행운권을 나눠준 후 추첨함에 넣도록 하였고, 강의부문이 다 끝나는 시간에 추첨을 하였다. 이 행운권은 뽑힌 사람에게가 아닌 뽑힌 사람의 학교도서관에 책 100권을 주는 것으로 10명을 추첨하였다.

2) 전시 부문

전시 부문은 만석공원의 체험활동 부문과 함께 어우러져서 부스에 전시실을 꾸미기도 하였고, 만석공원 길가에 이젤을 사용하여 전시하기도 하였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가) 우리학교 도서관 자랑 및 독서결과물 전시



한일초등학교 외 26개교가 참가하였고, 7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35개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27개교의 참가학교는 학교도서관의 활동 모습 사진, 도서관소개, 독서 결과물 등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전시하였다. 이젤을 사용하기도 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기도 하고, 부스에 걸어놓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각 학교 사서들은 사전에 전시물들을 준비하였으며, 행사 당일 설치 및 철거까지 맡아서 진행하였다.

나) 북-아트 전시



수원시에 있는 문화숲속예술샘이라는 북-아트 전문 단체를 섭외하여, 주제별, 용도별, 종류별 다양한 북-아트를 선보였다. 3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35개의 테이블을 배치하였는데, 3개의 부스가 꽉 차도록 북-아트를 전시하였다. 북-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은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북-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젤을 사용하여 함께 전시하였다.

다) 시화전 & 독서 사진전



수일중학교 외 11개교가 참가하였고, 각 학교의 독서 관련 시화와 독서사진을 만석공원에서 송원여자중학교로 가는 길가에 전시하였다. 이젤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만석공원의 자연경관을 살려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거나, 얹어놓기도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마다 전시물을 덮을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하도록 하여 우천시를 대비하였다.

라) 내가 꿈꾸는 도서관 미니어쳐 전시



매현중학교 외 10개교가 참가하였고,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5개의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우리학교도서관의 현재 모습이나, 꿈꾸는 우리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축소하여 모형을 직접 만들어 전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서, 도서관업 무담당교사, 도서반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하나하나 만든 도서관의 모형을 전시하도록 하였다. 준비기간은 약 1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렸으며, 재료비는 학교마다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가 들었다.

마) 우리나라 그림책 전시



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테이블 12개를 배치하였다. 천일초등학교 외 5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는데, 우리나라 그림책 사랑모임을 섭외하여,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그림책을 전시하였다. 담당 사서들은 섭외를 직접 하였으며, 택배로 그림책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 또한 효과적으로 시대별로 전시를 하기 위해 그물망과 북스택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바) 세계 책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주간 포스터 전시



원천중학교 사서가 운영하였으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세계 책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주간 포스터를 대여하였다. 만석공원에서 송원여자중학교로 가는 길가에 이젤을 사용하여 전시하였는데, 각 학교의 시화전 & 독서사진전과 함께 전시하여 길 전체를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

사) 원화전시



다섯수레 출판사를 섭외하여 그림책의 원화를 전시하였다. 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담당 사서없이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다섯수레에서 직접 원화를 가지고와서 설치하고 철거까지 알아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 사서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3) 강의 부문

강의 부문은 실내공간이 필요하였기에, 만석공원 근방에 있는 송원여자중학교 체육관(작가와의 대화, 명사초청 리더쉽 특강)과 시청각실(동화구연)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부문은 행사 전 학교로 공문을 통해 신청자를 받아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강의 부문은 송원여자중학교 사서 외 5명의 사서들이 운영하였다.

가) 작가와의 대화 (초등 김향이 작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이름은 나답게〉, 〈달 님은 알지요〉의 저자 김향이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하였으며, 300여명이 참여 하였다.

나) 작가와의 대화 (중등 박상률 교수)



중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경제이야기〉의 저자 박상률 교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2시 50분부터 1시 4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다) 동화구연(김진희 동화구연가)



동화구연가 김진희 선생님을 섭외하여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동화구연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100여명이 참여 하였다.

라) 명사초청 리더쉽 특강(김용서 수원시장)



김용서 시장을 모셔서 초, 중등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특강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4) 공연 부문

공연 부문은 만석공원 내에 있는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이루어졌으며, 개회식과 함께 행사가 끝나는 3시까지 공연이 이루어져서 무대가 비워지지 않도록 하였다. 공연 부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가) 팬플룻 연주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개막 축하 행사로 팬플룻 연주를 진행하였다. 접하기 힘든 팬플룻 연주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리 음악제와 같이 행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팬플룻 연주는 시링크스 팬플룻 연주단과 송죽초등학교 팬플룻 연주단을 섭외하였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각 30분씩 공연하였다.

나) 학부모참여인형극



수원시 관내 학교도서관 중 학부모독서도우미들이 대출, 반납의 도우미 역할을 탈피하여 인형극을 직접 제작부터 공연까지 하는 천일초등학교, 칠보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를 무대에 올렸다. 11시 30분부터 15시 20분까지 한 학교당 20분씩 2회의 공연을 하도록 하여 총 6회의 인형극을 선보였다.

천일초등학교는 〈야광귀신〉, 칠보초등학교는 〈개구리네 한솥밥〉, 영일초등학교는 〈방구쟁이 며느리〉를 공연하였다. 실내에서 했던 인형극을 야외로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형극 무대가 작아 야외음악당 무대 한쪽으로 설치하고, 인형극 관람자들을 무대 위에 올라가도록 하여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대회 부문

가) 독서 감상화 & 책 광고 그리기 대회

숙지중학교 사서 외 4명의 사서들이 행사 당일 운영을 하였고, 참가자들의 등록부 관리 및 도화지 배부와 회수를 맡았다. 행사 전 공문을 통해 초, 중학교 학교당 2명씩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학년 1명, 고학년 1명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초, 중학교 중 40학급이 넘는 학교는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은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중학생은 책광고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 128명, 중학생은 56명이 그리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시상은 초등학생 41명, 중학생 2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4. 운영평가

가. 종합평가

(1)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총 27개의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축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사서들에게 타 학교의 다양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수원시를 위시한 경기도 전역의 학교도서관은 그 면모가 크게 일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축제 행사를 통해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2)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행사를 수원시와 공동주관함으로써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공동 개최는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만하다 할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행사 후에 다음과 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 또는 약속한 바 있다.

(가) 수원시 교육경비지원 대상 사업 중 학교도서관 지원

원천초 외 4개교에 2억8천2백5십8만8천원 지원 및 2006학년도 학교도서관 꾸미기로 예산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

(나)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도교육청에서 2005학년도 도서구입 지원교로 수원은 28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수원시에서 112개교 학교에 각 2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 2억2천4백만원을 별도 지원하였다.

(다)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보조금 지원

수원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2005학년도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 및 리모델링 지원 대상 학교로 10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이에 수원시에서 5억 1천 12만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3)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콘텐츠 개발 시도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의 개최 이후, 2005년 가을에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김포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등에서도 학교도서관 축제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각 교육청에서 수원시교육청 행사 계획서를 참고자료로 보기로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곳은 계획서를 보냈다. 각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 중인데, 콘텐츠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 행사를 뒤돌아보며

행사를 뒤돌아보면, 겁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도서관 축제라는 선례가 전혀 없던 행사를 2명의 사서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나간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이 행사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큰 규모의 행사인지,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자세히 알았다면 일은 훨씬 수월하게 추진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선뜻 뛰어들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466만원의 예산을 1천7백30만원으로 확보하기까지가 가장 힘겨운 작업으로 기억된다. 수원시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만큼의 규모의 행사는 불가능했다. 또한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였다. 행사를 추진하는 교육청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서들도 모두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역시 많았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큰 공부가 되었음을 느낀다.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처음과 끝을

함께해준 수원시 학교도서관 사서들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았기에 가능했던 행사이며, 그런 분들이 곁에 있었던 행운에도 감사드린다.

이 행사는 사서들이 주최가 되어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학교도서관과 사서들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행사를 마칠 때까지 힘겨운 적이 많았는데, 그만큼 해볼만한 행사였고 보람이 컸던 행사였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올해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한 사람의 사서로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평택분관 독서치료 동아리 "새봄" 활동 소개 및 제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사서 / 성 경희

- | 1. 모임시작의 경과
- | 2. 실시과정

여 백

평택분관 독서치료 동아리 “새봄” 활동 소개 및 제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사서 성 경 희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치료 모임(새봄)은 사서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어 그저 가볍게 시도되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 활동의 소개는 독서치료의 방법적 개발이나 시도 과정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단지 -독서치료는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고 생각하여 어떤 시도도 어려워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작은 접근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펼쳐 보고자 한다.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과정은 두 가지 차원으로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회 모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토의(이야기 나눔)의 성격을 어떤 치료적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의 운영방법이기도 하며, 현장에서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 차원으로는 독서치료 전문가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적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서 뿐 아니라 아직 진정한 독서치료 전문가가 미비한 현실에서 쉽게 시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도를 해 본다 하더라도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모셔서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어 그다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용자)의 정신건강을 독서자료를 도구로 우리 사서가 치료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 책임져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 상황을 분류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독서자료를 제공하고, 그 상황이 치유되는 과정(개별 또는 독서치료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고민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우리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새봄)을 보아 주시길 바라며 대략 그 운영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모임 시작의 경과

- 2004년 12월 22일(수) 한윤옥 교수(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님을 모시고 독서치료에 대한 특강 실시
- 특강이 끝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독서치료 동아리 결성(최초 25명 신청: 30~40대 주부)
- 독서치료 프로그램(안)을 갖고 사서들이 2차례에 걸쳐 사전 준비 모임을 가짐
1차... 모임의 방향과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나누기
2차... 모임 회차에 읽을 자료 선정
- 독서치료 동아리 모임 운영계획서(안)작성 : 실무자

독서치료 동아리모임 운영계획서(안)

1. 모임명 : 이름은 1회 모임 시 결정한다.
2. 운영기간 및 횟수 : 2005. 3. 23 ~ 2005. 6. 8(12회 운영)
3.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수요일 15:00~17:00, 1층 독서모임실
4. 운영내용
 - 가. 1차 시기에는 독서자료를 중심으로 경험과 느낌 등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삼는다.
 - 나. 2차 시기에는 이론서와 독서자료를 병행하여 치유적 책읽기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다. 이후의 과정은 2차 시기 마무리 모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 모임일시 및 장소가 독서모임실 및 문화교실 운영과 중복될 경우 일시는 사전에 도서관에서 정한다.

5. 운영방법

- 가. 1차 시기에는 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틀을 정한다.
 - 회장 1인을 선출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친목 등을 담당한다.
 - 2명씩 순번을 정하여 발표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 나. 모임진행은 대략 다음의 3단계에 준하여 진행한다.
 - * 호소작용의 경로에 의한 책읽기, 쓰기, 말하기
(김정근/사람과 책, 58쪽 참조)

① 치유적 책읽기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 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부터의 공감이 중요하다.

② 치유적 글쓰기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
-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도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열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
-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종이 위에 솔직하게 적는다.

③ 치유적 말하기

- 준비해 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 다른 참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보며 토론한다.

2. 실시 과정

(제 1기 운영: 2005. 3월-6월)

대상 : 30-40대 주부, (사서 4, 일반회원 8명)

○ 1기 1회 독서치료 모임 실시(2005년 3월 23일)

- 오리엔테이션 및 진행협의, 모임명 결정 : "새봄"(새롭게 본다/ 봄/ 희망/ 시작 등의 의미)
- 자기소개 및 회장 선출
- 회차당 발표자 협의 (참고-1)

☞ 회차당 발표자는 그 회차의 모임을 보다 깊이있게 끌어가기 위해 주제(상황)에 맞는 발제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

- 독서치료 회의록 작성: 발제자 (참고-2)

○ 1기 12회차까지 운영

- 2기 모임 결의

*** ↓ 참고-1)

독서치료 모임(새봄) 진행표

2005년 1차(3.23-6.8)

회차 (월.일)	주제(상황)	내 용 및 자 료
1회 (3/23)	오리엔테이션	① 프로그램소개 및 진행 협의 ② 모임명 협의, 회원소개, 회장선출
2회 (3/30)	유년기의 아픔	선정도서: 학대받는 아이들/이호철/보리/2001 부교재: ①상처받는 아이들:유년기의 상처를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니콜 파브르/김주경 역/동문선/2003 ②학대받는 아이에서 학대하는 어른으로/낸시 벤벵가/생활성서 발표 : 박상미, 김은희
3회 (4/6)	남자와 여자	선정도서: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공저/이종인 역/가야넷/2000 부교재: ①아주 작은 차이/알리스 슈바르처/김재희 역/이프 /2001 ②그 남자가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김 성묵/김영사/2003 ③내 딸이 여자가 될 때: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연구/메리 파이퍼/김영재 역/문학동네/1999 ④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존 그레이/친구 ⑤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들/존 그레이/프리미어 북스 ⑥이갈리아의 딸들/제르드 브란튼베르그/황금가지/2004 발표 : 이미옥, 이은영
4회 (4/13)	가부장 사회	선정도서: 나는 제사가 싫다: 삼십년 동안 가부장제와 싸운 한 여성작가의 외침/이하천/이프/2000 부교재: 장남과 그의 아내:33쌍과의 인터뷰/김현주/새물결 /2001 발표 : 문영순, 강영주
5회 (4/20)	마음상함	따귀 맞은 영혼/베르벨 바르데츠키/궁리출판/2004 부교재: ①위장된 분노의 치유/최현주/규장/1995 ②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발견과 치유를 위한 안내서/휘트필드, C.L./김웅교, 이인출 역/글샘 /1995 ③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데이빗 스롭/예수전

		도단 발표 : 박현주
6회 (4/27)	화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틱낫한/명진/2002 부교재: ①화가 날 때 읽는 책/알버트 엘리스/학지사 ②비디오 자료: TV책을 말하다, 틱낫한 스님의 화(KBS, 2002.9.5) 발표 : 최진영, 김연주
7회 (5/4)	용서	용서: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프레드 러스킨 /장현숙 역/중앙M&B/2003 발표 : 윤충노
8회 (5/11)	사랑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1,2/김형경/푸른숲/2003 부교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배리 비셀, 조이스 비셀/전경자 역/열린/2002 발표 : 이미옥
9회 (5/18)	성폭력 /가정폭력	나는 인생을 믿는다: 고통받는 소녀에서 당당한 여성으로/사미 라 멜릴 저/용경식 역/마음산책/2003 부교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정희진/또하나의문화/2001 발표 : 윤충노, 이미경
10회 (5/25)	말기환자와 가족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인생의 마감시간에 우리는 무엇 이 되어서 만날 것인가/최화숙/월간조선사/2002 부교재: ①비디오 자료: 영원한 순환:죽음(BBC) ②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미치 앤봄/공경희 역/세종서적/1998 발표 : 김은희, 박현주
11회 (6/1)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부모)	선정도서: 흔들리는 부모들/수잔 포워드/사피엔티아/2000 부교재: ①마음속의 그림책/이희경/미래M&B/2000 ②미안하 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이훈구/이야기/2001 ③이 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김정일/박영률출판사 /2002 ④영화자료: 매그놀리아 발표 : 최진영, 문영순
12회 (6/8)	마무리/평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최훈동/한울/2001 부교재: ①아직도 가야할 길/스캇 펙/신승철, 이종만 역/열음 사/1991 발표 : 마도균

*** ↓ 참고2)

독서치료 회의록

11 회

일 시	2005년 6월 1일	장 소	독서모임실
오늘의 주제	어른들의 두지와 몰이해(부모)		
토론도서	흔들리는 부모들	저자명	수잔 포워드
참가자	강영주, 김연주, 김은희, 마도균, 박현주, 이미경, 이미옥, 최진영, 문영순, 박상미, 이은형, 윤충노	발표자	최진영, 문영순
참가인원	12명	누계	93명
내용	<p><흔들리는 부모들>은...</p> <p>거의 모든 부분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선행주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함.</p> <p>부모-자식 간의 주제라기보다는 '부모'라는 자아가 '어린아이였던 자신'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시절을 돌아본다.</p> <p>선정도서 외에 <마음속의 그림책>,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등 부교재를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p> <p>오고갔던 말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들리는 부모에게는 흔들리는 부모가 있다 - 나의 상처가 자식의 상처가 된다(고리를 끊어야 한다) - 분노는 쏟아야 할 상대에게 쏟아야 한다 - 내면의 어린시절로 돌아가 당시의 어린아이였던 자신을 용서하라 -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를 인정할 것. 그래야 변화의 여지가 생긴다. 		
특기사항			
차기계획 및 작품	<p>선정도서 :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 최훈동 발표자 : 마도균</p>		

2005.3. 23 - 6. 8 (2005년 1기)

(제 2기 운영 : 2005. 9월 -)

대상 : 1기 모임 회원과 추가모집 (사서 5, 일반회원 7)

○ 2기 독서치료 모임 준비

- 사전 준비 모임 2회 가짐

▶ 방향과 방법 결정

- 1기 때 매주 하던 것을 월 1회로 정함 (둘째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발제자가 따로 없이 회차별 노트에 자신이 그 자료에서 뽑은 key word 중심으로 직접 써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바꿈.(참고-3)

▶ 독서치료 관련자료 목록 선정 (참조-4)

사서들이 독서자료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갖고 각 회차에서 다음 독서자료 선정

*** ↓ 참고-3)

(회차 별 노트-1)

구분	회차 ()	모임일 ()
	참여자	
읽은 자료	제목: 지은이 및 서지사항 :	
key word		
느낀점 & 내가 갖는 마음		
치유될 수 있는 마음확인		
치유가 가능한 자료 찾기		

(회차별 노트-2)

마음나눔



(모임활동 중에 이야기되는 내용이나, 그때그때 생각드는 내용을 기록)

free...

*** ↓ 참고-4)

제 2기 - □ 독서치유 관련자료 목록 □

번호	책 이름	지은이	출판사	출판년	분류번호
1	절망이 아닌 선택	디오도어 루빈	나무생각	2004	199.1
2	자유로운 여성이 되라	오쇼 라즈니쉬	지혜의 나무	2001	155.9
3	늑대인간	프로이드	열린책들	1996	185.5
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토마스 화이트맨, 랜디 패터슨	사랑플러스	2004	186.5
5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간바 와타루	더난출판	2002	182.12
6	거짓의 사람들	M. 스코트 펙	두란노	1998	180
7	몸에 밴 어린시절	W. 휴 미실다인	가톨릭교리신학원	2002	183
8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윤영무	면진출판	2004	818
9	풍경	원성	이례	1999	811.6
10	작은위로	이해인	열림원	2003	811.6
11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교육출판부	우리교육	2003	337.4
12	페미니스트, 남성을 말한다	송명희	푸른사상	2000	337.8
13	남자의 위기	엘리스 코즈	한송	1997	337.8
14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최재천	궁리	2003	337.1
15	중국여성 잔혹풍속사	이영자	에디터	2003	337.0912
16	엄마와 딸	폴린 페리	큰나	2004	848
17	마음 깊은 곳에	칼릴지브란	아선미디어	2001	844
18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유하	열림원	1999	811.6
19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무죄이다	문정희	을파소	1998	811.6
20	당당하게 살자: 수줍음을 극복하는 법	머라이 우테인, 존 워커	FKI미디어	2002	
21	결혼하면 행복한가	김선희	넥서스북스	2004	332.22
22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	마리나 피카소	효성출판	2002	653.27
23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한겨레신문사	2002	813.6
24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21세기북스	2002	189

25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게일 에반스	해냄출판사	2000	*
26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매경이코노미 글로벌비즈니스팀	매일경제신문사	2003	*
27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한창욱	새론북스	2004	199.1
28	인간	마광수	해냄	1999	818
29	달려라! 형진아	박미경	월간조선사	2002	818
30	나에게 남겨진 생이 3일밖에 없다면	구효서 외 17명	백성	2003	818

○ 제 2기 1회차 모임 시작 (2005. 9월 8일)

- 제 2기 운영 방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회원 소개 및 회장선출
- 다음 회차에 읽을 독서자료 선정 (참고-4)

○ 각 회차 회의록 작성(담당자)

※ 운영상의 평가

☞ 1기 운영에 있어서는 발제자를 따로 두고 있어 해당 발제자들의 부담이 크고, 독서자료 선정목록이 타 도서관에서 발행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독서자료 목록개발이 아쉬움

상황별(주제)접근을 하고 있어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는 도움이 많이 됨

☞ 2기 운영에 있어서는 발제자없이 각자의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발제에 대한 구성원의 부담은 줄었으나, 역시 독서자료 선정 목록(참고-4)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자료들 보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을 때 해결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어 독서자료 선정의 아쉬움이 큼.

1기의 상황별 접근보다 자신의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됨 ※...

이렇게 우리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은 2005년 상반기(1기) 12회차 모임을 마치고, 모든 회원들의 바람으로 하반기(2기) 모임을 다시 시작하여 현재 3회차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 스스로는 자신의 변화(치유된 마음)가 실로 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서들의 입장에서는 그 구성원으로 참여해 봄으로써 독서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방향성 등을 익혀갈 수도 있고, 개개인의 문

제 즉 일로 만난 조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런 기회에 드러내게 됨으로써 서로가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사례 : 직장에서 겪게 되는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었다- 상황 좋아짐)

일반 회원들의 경우는 여러 구성원들 중의 하나로 자신이 소속되었다는 느낌의 위로와 이 모임에서는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어 치유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만큼 변화되고 있다.

(사례1 : 모든 이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자신의 자존감을 많이 회복)

(사례2 : 일반 독서회 모임에서 얻을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나 자신 뿐 아니라 인간애가 많아졌다 - 처음에는 독선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갔으나 현재는 수용적으로 변함)

(사례3 : 자신은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 뿐 아니라 시댁식구들에게도 지나친 대우를 받으면서 저항할 수 없었던 상처로 마음의 병이 깊었었는데- 지금은 남편 없이도 여행도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억눌려왔던 감정 때문에 울먹이기는 하나 자신감을 많이 회복함)

이렇게 우리 독서치료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독서치료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독서치료 모임의 구성원들이 이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독서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준비된 힘이 발휘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독서치료 모임은 사서들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수용적인 마음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3. 제언

우리 독서치료 모임(새봄)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제언, 아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그 첫째가 독서치료 모임은 치료라는 범위(마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만 않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저 일반 독서회 모임처럼 가볍게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같은 책을 읽고도 각자의 마음작용(문제상황: keyword)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상황을 건드려보고 꺼내 봄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소집단 모임을 통해 보편화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보자고 권하고 싶다.

둘째로는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듈다.

지금과 같이 몇몇 도서관에서 만든 목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의 사서들이 관심을 갖고 상황을 분류하고, 그 상황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목록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독서치료 모임에서 선정한 목록들을 보더라도 이론서에 가까운 자료들도 있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자료보다 그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론서도 볼 수 있고 또 스스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그 상황에 맞는(치유를 위한) 자료들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는 독서치료는 문제발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런 목록 개발은 우리 사서들에 있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독서치료를 실시할 때 상황별 접근 방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우리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의 경우를 보면, 1기 때의 상황별 접근 방법, 즉 주제 상황을 미리 정해서 이야기 하는 방법은 자신이 그 상황에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비판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어 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2기 때에는 스스로의 키워드를 갖고, 자신의 문제(상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해보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해 보고 있기도 하다.

미리 상황(주제)를 정해놓고 그 상황에 맞는 책을 읽고/이야기 나누는 것은 그 상황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그리고 독서 자료에서 자신의 문제(상황)별로 keyword를 찾아 자신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만나보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의 접근이 더 바람직할지는 그 모임의 구성원에 따라 또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이 부분도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네 번째로는 진행상황에서 실제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을 들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야기를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독서치료 모임은 집단치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그 본인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지루함이 있을 수 있어 운영의 탄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하나는 수용은 하되 절대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용(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바라보고 등)하는 자세가 아니고 비판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그 사람의 상처는 더 커질 뿐 아니라 독서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치료 모임에서 오고간 이야기...또 듣게 되는 타인의 이야기(문제)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기에 항상 염두에 두고 독서치료

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서관의 독서치료 모임은 3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독서치료 과정이 아닌 일반적인 독서치료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회원 각자는 이 모임을 통해 스스로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모임에서 기쁘게 자신을 만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처럼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그 의미는 실로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서들의 관심만큼 독서치료와의 거리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독서치료를 어렵게만 생각하여 시도해 보지도 않는다면 독서치료라는 영역은 점점 우리 도서관과 또 사서들과 멀어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용기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시작해 보자고 제언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관심만큼 확인하게 될 것이고,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성도 쌓아질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이 자료화가 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될 거고, 무엇보다 독서치료는 도서관에서 사서가 한다는 당연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 모임 사진

여 백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 진 경 미

1. 들어가며
2. 독서캠프 운영 목적 및 운영 현황
3. 독서캠프 구성원 및 선행활동
4. 독서캠프 운영 프로그램
5. 독서캠프 운영 평가
6. 나오며

여 백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진 경 미

1. 들어가며

독서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독서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계속되는 습관적인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에게는 독서생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독서가 생활화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독서교육과 일생동안 독서생활에 대한 동기를 계속 유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에 독서캠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며, 학생들이 캠프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독서방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생활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2001년 문화캠프를 시작으로 2002년 문화캠프 및 가족캠프를 병행하였으며, 2005년까지 총6회의 독서캠프를 실시하였다. 2002년까지는 야영을 통한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한 독서캠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서캠프 운영 목적 및 현황

가. 운영 목적

자연속에서 다양한 독서활동 및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고 독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캠프를 통해 유발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나. 운영방침

- (1) 참가대상은 순회문고, 협력문고 대상학교 및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성남 지역 초등학생은 2005년에 실시함)
- (2) 캠프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 운영한다.
- (3) 참가학생은 5, 6학년생으로 하며, 접수방법은 순회 및 협력문고 지원학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접수하며, 성남시 관내는 개별 접수 받는다.

- (4) 전체인원을 총4모둠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각 모둠에는 모둠사서1명을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 (5) 참가학생은 선정된 과제도서를 미리 읽고 내용을 숙지하며, 캠프 참가시 과제도서를 가지고 오도록 한다.
- (6) 참가학생에 대한 개별 우수자 평가는 하지 않는다. 단 캠프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모둠 및 모범적인 개인 약간명을 선정 시상한다.
- (7) 성실히 독서캠프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 기대 효과

- (1) 단체생활을 통하여 협동심, 공동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과제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모둠활동을 통하여 창의력, 발표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3) 심신수련 시간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4) 강의 및 참여수업을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깨달고 독서를 하고자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라. 운영 현황

(1) 연도별 운영 현황

실시년도	캠프일정	캠프장소	참가 대상	참가인원	캠프주제	캠프형태
2001	8.8-8.10	양평학생야영장	순회문고대상학교 3개교 (초등 5,6학년)	35명	캠프를 통한 독서지도	야영
	8.12-8.14 (문화캠프)	양평학생 야영장	순회문고대상학교 3개교 (초등 5,6학년)	32명	환경의 중요성	야영
2002	8.15-8.17 (가족캠프)	"	관내3~6학년 학생을 둔 9가족	31명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캠프	야영
2003	8.6-8.8	국립평창청 소년수련원	순회문고 대상학교 4개교 특별지원대상학교 1개교 (초등 5,6학년)	45명	이효석/ 메밀꽃 필무렵	시설 이용
2004	8.11-8.13	"	순회문고 대상학교 5개교 협력문고지원학교 1개교 (초등 5,6 학년)	58명	"	시설 이용
2005	8.11-8.13	안성 엄마 청소년수련 원	순회문고 및 협력문고 대상학교 3개교, 성남지역 학생 (초등학교 5학년생)	38명	책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시설 이용

(2)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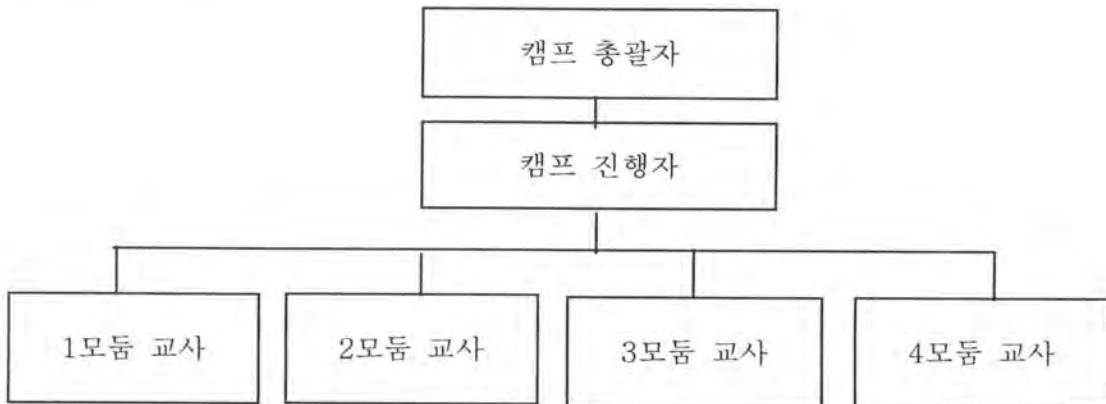
설시 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중심의 독서토론 강의로 지루함 * 12인승 승합차 2대 운영으로 학생 수송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 진행 유도 * 45인승 대형 차량 임차 필요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 취사, 위생시설의 불편 * 독서퀴즈 : 학년별, 학교별 수준차가 많이남 (가족캠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위주의 야영지 선택 * 가능한 학년을 일치시킴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석골든벨 : 문제풀이 형식으로 단조로움 * 숙소에 음용 식수대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든벨 중간에 학교, 개인별 장기자랑 및 패자부활전 실시 * 생수를 숙소에 조달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가지 종류의 독후활동을 하다 보니 작품탐구에 미흡한 점이 발생 * 냉, 난방 및 곤충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연천, 가평 학생들 수송에 어려움이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발표에 치중하지 말고 모둠별 특색을 가지고 2가지 정도의 주제로 심도있게 토론 유도 * 에어컨, 선풍기, 방충망 시설 점검 필요 * 지역적으로 가까운 캠프장 지정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운물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 조명이 어두워서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난방 여부 확인 * 사전에 조명 상태 확인

3. 독서캠프 구성원 및 선행활동

가. 독서캠프 구성원의 임무

- (1) 캠프 총괄자 : 독서캠프가 운영되는 동안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구성과 교육 등 전체의 흐름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일을 맡는다.
- (2) 캠프 진행자 : 독서캠프 진행 및 모둠별 활동 지원, 캠프 운영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 사항 점검
- (3) 모둠별 담임 : 각 모둠별 학생 관리 및 모둠 활동 지도 및 평가,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캠프 조직도



나. 캠프운영에 따른 선행 활동

- (1) 독서캠프장 선정 및 시설 확인
- (2) 독서캠프 주제 및 프로그램 선정
- (3)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4) 독서캠프 교재 제작
- (5) 독서캠프 차량 예약
- (6) 캠프 참가자 안내문 발송
- (7) 독서캠프 물품 및 기념품, 도서구입
- (8) 모둠교사 지정 및 모둠활동 협의
- (9) 상장 및 수료증 준비
- (10) 여행자 보험 가입
- (11) 임시출납원 승인

다. 생활 수칙 및 캠프안전관리

- (1). 생활 수칙
 - (가) 공중도덕과 질서 유지
 - (나) 식사시간
 - (다) 정리정돈
 - (라) 숙소생활

(2) 캠프 안전 관리

(가) 목 적

캠프 참가자 전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방 침

- 캠프참가자 전원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 모든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조치 후 실시 한다
-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캠프 운영자 전원은 안전지도 및 위생 점검을 공통 업무로 수행한다

(다) 응급처치

(라) 안전사고 예방

(마) 캠프교사 안전 및 위생교육

4. 독서캠프 운영 프로그램

가. 독서캠프 프로그램 운영

독서캠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본계획과 세부운영계획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여야 한다. 독서캠프는 도서관이 아닌 외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참가학생의 안전지도와 캠프장 시설의 점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 할때를 대비하여 인근 병원이나 관할 119 구급대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외부강사 확인, 시간 스케줄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캠프 장소가 야영일 때와 주거형태 시설일 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겠다.

나. 독서캠프 프로그램 구성

실시 연도	운 영 프 로 그 램
2001	* 책읽기 * 동시짓기(강의, 백일장) * 과학교실 * 독서퀴즈
2002	1. 문화캠프 * 환경교육 * 독서토론 * 창작조형활동 * 글쓰기
	2. 가족캠프 * 자녀독서지도(학부모) * 창작조형활동 * 에어로켓 만들기 * 독서퀴즈
2003	* 선정도서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 작품관련 스토리텔링 * 독서생활, 도서관이용 * 심성수련 : 각 조별로 인간관계 지도 * 효석골든벨 * 효석문학관 답사
2004	* 선정도서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 주제작품-스토리텔링 * 전통문화체험-아리랑 배우기 * 작은책 만들기 * 도자기 교실 * 독후활동 : 작품관련 노래 만들기, 뒷이야기 이어쓰기, 역할극 등 발표
2005	* 선정도서 : 이금이 선생님의 밤티마을 영미네집, 나와조금다를뿐이야 * 심성수련-작품관련 독서치료 강의 * 작가와의 만남 - 이금이 선생님과의 대화 * 나만의 책 만들기 - 작품과 관련하여 팝업창 및 입체북 만들기 * 작품관련 편지쓰기-과제작품과 관련하여 부모님이나 작가,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 독후활동 : 역할극 발표, 독서다짐문 작성, 작품탐구학습

다. 프로그램별 분석

강의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필요성 * 작품관련 스토리텔링
참여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활동 : 독서토론, 재미를 곁들인 창의적 독후활동 실시 * 책만들기 : 작품관련 책만들기 * 독서생활, 도서관 이용 안내 * 작품관련 편지쓰기 * 작가와의 대화 * 독서퀴즈

- (1) 도서영역 : 캠프생활을 통하여 독서흥미를 유발시키고 독서의 필요성을 재인식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 한다
- (2) 심신수련 :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고취 (수영교실, 담력훈련, 축구교실 등)
- (3) 인성교육 : 인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모둠별 개별 지도하여 인간관계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 확립 (독서치료, 심성수련교육)

5. 독서캠프 운영 평가

가. 설문 및 자체 평가

(1) 설문 평가

매년 독서캠프가 끝나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독서캠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문항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평 가 문 항	응답내용
독서캠프 기간 중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1. 캠프생활이 즐겁고 재미 있었다 2. 독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3.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다 4. 친구를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심신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중 도움이 되었던 강좌는?	1. 수영교실 2. 캠프화이어 3. 인성교육 4. 독서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없었던 시간은?	1. 없다 2. 독서 강의 시간 3. 글쓰기 시간
캠프생활 중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1. 숙소 문제 2. 급식 문제 3. 휴식 시간 부족

위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독서캠프 생활을 통하여 독서의 필요성을 깨달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캠프라는 형태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독서방법을 터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2) 자체평가

도서관 자체 평가는 독서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는지 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차기 독서캠프에 적용하는데 그 평가 목적이 있다. 이에 자체평가 문항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문 제 점	개 선 방안
운영 프로그램	독서 관련 강의	강의와 참여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독서 퀴즈	폐자부활전이나 장기자랑으로 분위기 상승
	독후 활동	모둠별 특색있는 독후활동으로 발표시 다양성 유지
캠프 생활	숙소	냉방시설 및 조명, 곤충 및 벌레, 온수 미사용으로 어려움 캠프장 선정시 야영 및 시설이 용시 검토해야하며, 미리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 준비해야함
	급식	동일시간에 다른팀과 함께 식사를 해서 복잡하였으며, 자율 배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림 식사 시간대를 미리 조절하여 번잡함을 피하고, 자율배식 시 모든 교사들이 배식을 도와줌
	식수	식수가 숙소에 준비되지 않아 식수를 제공함 대부분 수련시설이 숙소에 수돗물 외에 식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생수를 준비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위 평가를 토대로 차기 독서캠프 운영시 참고하여 원활한 캠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6. 나오며

독서캠프는 자연과 더불어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방법을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며,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수단이다. 독서캠프 교육내용은 자신의 독서능력을 개발하고, 캠프에 선정된 도서를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2박3일간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핵심을 지도하여 계속 응용 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계속 응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독서교육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도서관에서 그동안 실시한 독서캠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경제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 현황에 맞게 다른 독서캠프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학교 교실을 활용한 1박2일 독서캠프라든지, 학교운동장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독서능력 증진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에서의 적극적인 독후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청소년독서회 "아름드리" 운영사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 황 원 규

1. 들어가며
2. 아름드리 독서회 소개
3. 독서회 운영 개요
4. 독서토론 운영 내용
5. 돌아보기
6. 맷음말

여 백

청소년독서회 “아름드리” 운영사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황 원 규

1. 들어가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책 읽는 습관은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의 독서는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발달을 도우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우는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고, 단순히 학교 도서관에서 관심 있는 도서를 찾아서 읽을 수도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이 모두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 생활의 일부분으로 책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 줄 수 있다. 책을 읽은 후 작가, 등장인물, 등장배경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약간의 구속력이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독서회인데 독서회에 소속되어 양서를 정독하고 스스로 느낀 점을 다른 회원들과 나누며 의견이 다른 점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독서회 활동은 소속감을 길러주고 사회생활 속에서 상대방과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청소년독서회(이하 아름드리 독서회)를 2005년 4월 창립했다. 첫해를 지내면서 회원들에게 청소년 독서회 1기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누차 강조하면서 스스로 기특해 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기에 자책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본다. 내년, 내 후년에는 좀 더 나은 독서회를 만들고자 아름드리 독서회 운영 사례를 보고한다.

2. 아름드리 독서회 소개

가. 운영 목적

아름드리 독서회는 청소년의 독서습관을 기르고 올바른 독서토론 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독서회의 운영 목적을 살펴보면,

아름드리 독서회의 운영 목적은

- (1) 올바른 독서활동을 통한 사고력 향상 및 논리력을 고취하고
- (2) 바람직한 독서토론 문화를 형성하고
- (3) 독서활동을 통한 여가시간 활용 및 평생 독서인으로 유도 하며
- (4) 독서의 생활화 및 좋은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함이다.

나. 운영 내용

- (1) 2005년 4월 아름드리 독서회 결성
- (2) 운영대상 : 수원시내 중학교 1~3학년
- (3) 회원수 : 22명
- (4) 모임일시 : 매월 2회 실시 (첫째 · 셋째 토요일 15:00~17:00)
- (5) 모임장소 : 본 도서관 3층 강의실
- (6) 회원모집방법 : - 선착순 모집을 하되, 초등학교 독서회와 독서교실 참가자를 우선 선정
- 회원수를 감안하여 상시 가입을 가능케 함
- (7) 홍보 : 도서관 홈페이지 및 홍보문 게시
- (8) 등록방법 : 방문접수에 의한 선착순 접수

다. 운영방법

아름드리 독서회 운영은 월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모임은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토론을 운영하고 1회 모임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 한다. 독서토론은 회원과 함께 독서토론을 위한 도서목록을 선정하여 연간 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지도사서가 진행한다. 도서목록은 각 단체(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에서 발행한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을 참조 후 회원들과 함께 선정한다. 지도사는 회원들이 선정된 도서를 정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주제를 선정하여 그룹 토의를 진행 한다. 독서토론은 학생들의 자율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독서회의 흐름을 유도하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알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독서토론의 운영은 학생 상호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의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알차고 계획적인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독서회 토론용 자료는 그 달의 발표자가 준비하고 회원 간의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을 유도한다. 지도사는 독서토론 주제의 큰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의견을 경청하며 중간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독서회의 특강은 독서토론으로 부족한 논술관련 강의를 주

로 하며 연간 강의 일정에 맞춰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 한다.

3. 독서회 운영 개요

가. 정기모임

독서회 운영의 근간은 정기적인 모임에 있다. 아름드리 독서회는 월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독서토론과 독서·논술특강을 번갈아 가며 진행을 한다. 운영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중학생들이 평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운영한다. 정기모임은 모든 회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2005년 11월 현재까지 13회가 운영이 되었으며 1회 평균 12명 정도의 회원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나. 독서토론

독서토론은 독서회의 운영목적이자 중심 내용이다. 지도사서는 독서토론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하며 회원 스스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독서토론의 주제진행은 그 회차의 주제를 맡은 회원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에 관련된 발표를 유도한다. 독서토론의 진행은 크게 선정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심화학습'과 그 달의 시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회원들간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사토론'으로 나누어 진다.

다. 독서·논술특강

독서·논술특강 운영은 아름드리 독서회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의 하나로 특강을 통해 보다 논리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고 이로 인해 독서토론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전문적인 논술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진행된다.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하지만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사서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함께 참관하면서 운영을 돋는다. 앞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서·논술특강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특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독서회 커뮤니티 운영

독서회 커뮤니티는 포탈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까페'나 '블로그'의 개념과 같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gglip.or.kr)에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메뉴가 있다. 현재 '아름드리 독서회'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며 독서회 공지와 회원 간의 의사교환을 위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독서회 관련 자료를 업·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료실도 운영 중이다. 아직은

게시판이 커뮤니티의 주 활용방법이지만 메신저 활용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인터넷에 친숙한 회원들과 온라인 상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독서토론 운영 내용

독서토론은 양서를 읽고 도서의 내용을 연구하며 토론 주제를 가지고 회원간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의사전달로 다른 회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독서토론은 독서회의 중심내용이니 만큼 독서회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며 운영계획을 세울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독서토론의 운영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도서선정

먼저, 담당사서는 대형출판사의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나 '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어린이 도서연구회' 등의 도서목록을 참고하여 독서토론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한 후 회원들과 함께 연간 운영할 도서를 선정한다. 선정된 도서목록은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정독하고 독서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독후활동

독서토론은 미리 선정된 그 달의 발표자가 진행을 한다. 회원들과 함께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독서토론을 시작하며 이때 지도사서는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회원들의 발표 중간 중간에 보충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달의 발표자는 도서에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발표 주제를 2가지 정도 준비하여 준비된 토론주제를 회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독서토론으로 들어간다. 이때 지도사서는 모든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어느 한곳으로 치우침이 없이 진행하며, 회원간의 의견발표 중 주제가 빗나갈 때는 적당한 시기에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를시키고 토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름드리 독서회의 독서토론은 크게 '심화학습'과 '시사토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1) 심화학습 - 1) 줄거리 : 발표자가 작품의 줄거리를 발표하면서 회원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 한다.
- 2) 등장인물과 배경 : 각자 등장인물과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3) 자신의 상황과 비교 : 작품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과 비교하며 생각해 본다.

4) 발표주제를 통한 독서토론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 중에 찬·반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2) 시사토론

'시사토론'은 그 달의 시사문제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한달에 한번씩 시사문제를 다룸으로써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현실감각을 기르고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 토론내용 정리

토론내용은 매 회 정리하여 자료로 남겨두며 언제라도 회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서로만 남겨두던 자료는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커뮤니티 자료실에 업로드해서 모든 회원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회의록 작성

토론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남겨두며 다음은 독서회를 진행하고 작성한 회의록의 한 예이다.

일 시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 5:00 【2005년 제13회】
작 품	「날개」(이상 지음)
독서활동	<p>1. 작품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작가와 줄거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이야기 해보자. ◎ 작품속의 '날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 해보자. ◎ '이상'의 삶과 작품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p>2. 등장인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이 앓고 있던 결핵은 작품속의 주인공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 '이상'의 삶에서 등장하는 세 여인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자. ◎ 작품속의 주인공과 실제 '이상'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p>3. 시사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to P 서비스의 '정보공유'와 '저작권'과의 문제 예)소리바다, 당나귀 등
참석인원	<p>총 (11 명) : 남 (3 명) / 여 (8 명)</p> <p>참석자 : 김나영, 김민재, 김은진, 박수지, 양소라, 노효진, 한성일, 임예지, 윤서현, 채정필, 이해미</p>
다음계획 및 작품	◎ 12월 3일(토) 「독서·논술지도 강의」(강사 문기석)

5. 돌아보기

좀 더 알차고 탄탄한 독서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보았다.

가. 회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체계화된 독서회 구성

독서회를 시작하는 첫 회에 회장과 총무를 선출했다. 약간은 구속력이나 부담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독서회에 꾸준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받았다. 회장과 총무에게 독서회와 관련된 일을 맡도록 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모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스스로 모임의 일원임을 생각할 때 내실 있는 독서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완전히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회칙을 만들고 스스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독서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 학교공부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단순히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모임일지라도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와 떨어져서 시간을 내 줄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도서를 선정할 때 중학교 문학작품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던지 다양한 특강을 활용하여 회원들이 학교공부와 동떨어져 있다는 부담감을 줄여주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다.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활발한 독서회 활동

이제 인터넷 메일이나 메신저는 학생들에게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회원들과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독서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용도 그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메신저를 활용한 의견교환이나 자료전송, 함께 영화감상을 한 후 토론하기 등 회원들의 놀이문화와 생활을 함께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지도사서의 끊임없는 관심과 전문지식 필요

지도사는 회원들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독서능력, 개인적인 취향 등 회원과 관련된 사소한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보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독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사는 선정된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를 읽고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원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회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탐

독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독서회 운영 방법을 연구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맷음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덩쿨독서회',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늘푸른', '해맑은독서회'가 있다. 청소년 독서회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올 한해 동안 그 가능성을 본 것이다. 아름드리 독서회의 운영은 초등학생이나 주부들의 독서회와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다양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학교공부와도 연계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화하고 앞으로 논술과 관련된 시사문제에도 관심을 쏟아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회 본연의 목적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회원들에게 학교에서 독서토론을 포함한 토론수업이 가끔이라도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그 수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입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에서 아름드리 독서회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책을 사랑하고 책읽기를 즐기는 회원들에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말하는 능력이 많이 신장되고 있음을 느꼈다. 책을 많이 읽은 회원들은 생각과 말이 매우 논리적이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받아들인 책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름드리 독서회는 회원각자의 노력과 지도 사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속에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여 백

대출 · 반납 업무의 표준화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 원 혜 정

1. 들어가며
2. 경제이론의 도입
3. 공공기관과 서비스
4.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5. 맷으며

이 자료는 성남도서관 11월 혁신주제발표로 인용된
자료로써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중 대출 · 반납 업무
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음.

여 백

대출·반납 업무의 표준화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원 혜 정

1. 들어가며

“세계의 눈높이에 맞춰라”이 슬로건은 2005년 11월 우리나라의 한 도정(道政)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정(道政)을 혁신(革新)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 도정 구현을 위한 2008년 10월까지 3년의 장기 프로젝트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정 혁신의 목적은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 및 전략·전술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와 달리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에도 과감한 기업정신과 효율적인 민간 경영관리 기법 등 서비스 개선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지금 시대적 요구와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움직임 또한 혁신이란 단어가 주는 강한 어감과 함께 개인이나 조직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인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혁신”에 대한 의미를 도서관 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혁신이란 작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모아지고, 새로운 시도를 통한 발전적 모색의 과정들”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의 전체 업무 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인 대출·반납업무의 표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경제이론의 도입

그런데 이 표준화란 단어는 바로 경제의 개념이다. 이런 표준화의 개념을 도서관의 일련의 업무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 직원들은 대출·반납 업무를 반복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용자)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표준화이다.

우선 표준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즉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사전적 정의). 또한 한국

산업규격 KS A 3001에서는 표준(Standard)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동작 절,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의미하며 표준화란 이러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준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부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은 사회·경제적인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표준은 자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의 효율을 증대하고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물류·소프트웨어 · 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다가오는 21세기 노령화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획기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표준은 산업기술기반이 된다. 셋째, 표준은 교역증대 및 무역자유화의 기반이 된다.

표준은 또한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한 규모의 경제(scope of economy)를 가능케 하고, 판매경쟁을 가속화시키며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한다.

표준은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매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표준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통하여 시장에서 거래행위에 부수적으로 발생 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경쟁전(pre-competitiveness)단계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형성되면,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실상의 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첨단 산업과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준의 영역에 따라 표준을 분류하는 것은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 영역에 따른 구분으로 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국제표준의 5영역으로 나뉜다. 좀 더 살펴보면 사내표준은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으로서 한 회사의 규격이나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내표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전사표준, 사업부표준, 공장표준 등과 같이 적용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단체표준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의 ASTM, ASME, IEEE, 그리고 UL 규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표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표준으로서 ISO/IEC의 지침에 따르면 국가규격기관이 채택한 규격이다. 즉 특정국가에서 제정하여 사용되는 규격으로 1901년에 세계 최초의 국가규격이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등이 있으며 독일의 DIN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지역표준으로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 자격을 제한한 표준화단체,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으로 유럽의 EN규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은 전 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즉 ISO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

는 규격이다. 이렇게 본다면 도서관에서 정한 표준은 사내표준이나 단체표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의 목적으로는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상호이해), 전체적인 경제성 추구, 소비자 및 작업자의 이익보호, 현장 및 사무실의 자동화에 기여하며 표준이 가져다주는 효과로는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증가, 인력과 자재의 절약, 종업원의 교육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 등으로 나타난다.

3. 공공기관과 서비스

위에서 살펴본 표준의 개념 및 목적, 효과를 보면 업무처리의 표준화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높아 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이나 기업, 공공 기관 모두의 노력은 소비자의 고객만족을 넘어서 더 큰 고객감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 한 곳은 지난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사명(社名)의 명칭변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명칭변경을 통해 기업이 내세운 이미지는 Good Service, Good Satisfaction을 의미한다. 고객을 향한, 고객을 위한, 고객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고객감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은 고객현장을 통하여도 살펴 볼 수 있다.

행정서비스 현장, 즉 고객현장(Customer's Charter)이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절차와 방법,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써 1990년대 초에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고객현장 제도는 공공 부문 종사자의 서비스 자세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서비스 질의 현저한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로 영국은 시민현장(Citizen's Charter)으로 미국은 고객 서비스 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으로 구체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관세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환자현장, 고객현장, 승객현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행정서비스현장은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행정서비스 현장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Customer Driven)이어야 하며,

둘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Specified Service)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Top Level Service)를 제시 하여야 하며, 넷째,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Cost & Benefit)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Systematic Information)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소비자이듯이 공공기관의 고객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바로 국민이다.

고객만족은 *BPR의 절대전제이며 고객 만족도 향상이 BPR의 목적임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BPR의 목적으로 바로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목표 수준 설정의 어려움, 서비스 질의 측정 곤란, 법령에 의한 제약과 경직성, 강력한 신분 보장, 서비스 마인드의 부재 등으로 민간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BPR이 민간부문과 비교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공기관의 BPR효과는 민간 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기관의 고객의 범위는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민간 기업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고 둘째, 공공기관은 아직도 많은 작업이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셋째,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하기관 혹은 유관 기관과의 많은 정보의 교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원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등과 같은 행정 업무의 BPR 효과를 상상해 보면 서류가 간소해지고, 처리과정이 단순화되어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면 그 효과는 민간부문에서 상상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예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하는 ‘2005년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서비스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경영학회 소속 교수들의 심사로 선정되며, 그동안 삼성에버랜드·교보생명 등 최우수 고객만족 우수 기업들이 수상을 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행자부의 업무혁신에 대해 “민간 기업이 수년에 걸쳐서 이룩한 고객만족 혁신을 불과 10개월에 걸쳐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행자부는 올해 고객만족 추진 로드맵을 세우고, 업무관리·성과관리·고객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행정혁신시스템 하모니를 7월 1일부터 가동했으며, 또한 각 팀의 성과평가 100점 가운데 고객만족도 결과를 최고 24점까지 반영해 고객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기업 경영 혁신.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리과정을 개혁해 업무성과를 올리자는 이론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말한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전 분야의 전산통일화를 이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창안됐다. 과거에는 한 부분의 일이 끝난 뒤에야 다른 부서에서 결과물을 이어받아 일을 진행 할 수 있었다면, BPR은 실시간으로 다른 부서의 진도를 체크,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업무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행자부의 좋은 사례처럼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과 노력의 결과물은 하나 둘 씩 가시화 되고 있다.

4.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앞에서 살펴 본 표준의 목적과 효과가 말해 주듯이 지금 산업 경제 전반은 표준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세계 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세계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하는 것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위에 서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표준을 통하여 종주국이 되고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 표준화의 목적과 효과

경제개념		도서관 업무
표준화의 목적	<p>제품 및 업무행위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관계자들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상호이해) 전체적인 경제성 추구 안전/건강/환경 및 생명보호 소비자 및 작업자의 이익보호 현장 및 사무실 자동화에 기여</p>	<p>*client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 또한 도서관의 일련의 업무처리시 claim을 표출하는 일부의 사람들</p>
표준화의 효과	<p>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증가 인력과 자재의 절약 종업원의 교육·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p>	<p>*client와 연결된 업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claim의 발생 미연에 방지 *업무처리의 신속성·신뢰성 극대화</p>

그 예로 우리가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있는데 삼성의 반도체 기술, 삼성·LG의 PDP, LCD 기술, 디지털 위성방송의 셋톱박스, CDMA, 인터넷 보급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연구와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는 것도 바로 표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효과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처럼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업이 이윤의 추구를 목적하는 것처럼 Client의 만족도의 극대화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표준화의 개념을 도서관 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서관을 방문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의 일련의 업무처리에 claim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모두 client로 본다.

도서관업무의 표준화란 도서관의 세분화된 업무의 진행과 처리과정에서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획일성을 통해 client의 만족도는 극대화시키고, 업무처리의 기

대효과를 높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표준 업무의 활용사례는 client 응대 요령, 방문자 및 전화상담자 응대방법, 대출·반납 처리, 자료예약, 자료검색, 서가안내, 보존서고 이용 안내, 상호대차 이용 안내, 희망도서의 처리 등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업무의 사례별 표준화의 필요성은 업무처리의 집중화, 업무처리의 단순화, 비가치 업무의 제거, 이는 곧 불필요한 군더더기의 과정을 제거하고, 업무의 단순화는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client의 불편사항을 감소시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도서관 업무처리 능력의 확실성과 신뢰감을 증대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client와의 사소한 분쟁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의 소요시간 및 error을 감소 및 업무처리 진행과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업무처리의 완성도 향상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Client의 대부분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대출·반납업무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이 업무를 통해 받는 인상으로 전체 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대출·반납업무의 표준화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5. 맷으며

client들은 공공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업무의 연속성과 반복성은 비전문적이란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일련의 업무수행 과정과 능력은 작은 부분의 error에서 client에게 확신과 믿음을 배제시키고, 불만사항으로 도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도서관 업무의 연속성과 반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누구나가 익숙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대응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client는 동일한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client쪽에서 받는 인상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규격화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과 함께 비신뢰감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기업이 제품의 품질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다면,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은 client의 만족도에 의한 평가로써 나타난다.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교사들의 수(數) 혹은 의료요원들의 수와 같은 전문인력의 투입량을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의 서비스의 품질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주체인 전문 사서의 수, 그 투입(input)량을 척도로 하여 나타날 수 있다.

좀 더 많은 도서관의 수와 좀 더 많은 사서가 존재하여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빠른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도서관 업무의 일련의 과정과 처리방법에 대한 단순하지만 detail한 응대방법으로 도서관을 찾는 모든 client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꿈꾼다.

사례

대출·반납 업무의 표준화

CASE	Client 사례	Client 응대요령	비고
방문객	*인사 *긍정적 *무표정 *적대감	*눈인사(편안한 표정, 미소 띤 얼굴의 눈인사) *가벼운 목례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상담자	*인사 *공격형 *질문형 *본론형	*감사합니다. 성남도서관 문현정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정보실 ()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정보실 ()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실 ()입니다. *성남도서관 문현정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현정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부서(자료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번으로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초기 전화 응 대시 client가 듣기에 너무 긴 미사여구의 사용은 식상할 수 있음 *호의적이고 친 근함을 전할 수 있는 느낌 이 중요
자료검색	*다급함 *자료가 없을 시 부정적	*제목, 저자, 출판사 등 서지사항이 부정확할 경우 -keyword로 검색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중의 일부라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미소장도서의 경우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자료는 저희 도서관에 소장되어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자료이면 희망도서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희망도서에 대한 부연 설명) -이 자료가 있는 인근 도서관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cyber도서관 이용의 안내 부연 설명, 상호대차 포함)	*그럼 찾기 어려워요~ *하나라도 아는 게 있어야 찾는데~

대출·반납 업무의 표준화

CASE	Client 사례	Client용 대요령	비고
자료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가능 자료이나 부재도서일 경우 -소장도서이나 현재 서가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도서 유도 혹은 확인 후 추후 연락 공지) 	
대출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표정 *무언 *무반응 *일부는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수 초파인 경우 -예약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지의 여부 파악 -현재()권 대출중이시므로()권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예약 자료를 서가에서 가져온 경우 -죄송합니다. 이 책은 다른 회원분의 예약자료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타 부연 설명 시 자세한 내용 안내) *각각의 대출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반납기일에 대해 재주지시킴 -먼저 반납하실 자료는 ()입니다. *대출처리가 끝난 후 -반납은 몇 월 몇 일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딸림 자료와 함께 대출시 -딸림 자료는 반드시 책과 함께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증 미소지시 -다음 대출 시엔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번호, 전화번호 구두 확인 후 대출 *동일 자료의 재대출 요구시 -동일도서는 반납 후 7일 후에 재대출 가능합니다. -다른 자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1회 가능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비회원이 자료를 갖고 온 경우 -우리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에 먼저 가입 하신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절차 상세 설명)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열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료열람 방법 설명) *습니다. 니다. 등의 종결어구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섯권 모두 대출하셨는데요~ 예약 도서로 입력되었는지 여부 파악 *어? 이 책이 왜 서가에 있지요? *어머, 놓지 않았네요~ *~데요, *기타 해명 성의 부정 확한 표현 어구 자체

대출·반납 업무의 표준화

CASE	Client 사례	Client응대요령	비고
반납처리	* 반납 처리 의 무성의 *즉각처리 요 구 *자기주장 강함 *error 발생시 부정적 대 응	<p>*연체의 경우 -()일 연체하셨습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대출 가능합니다.</p> <p>*반납일 1일 연체의 경우 -동일하게 처리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번은 대출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반납일 또는 대출요일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사항에 기재)</p> <p>*그 외 연체의 경우 대출을 요구할 경우 -다른 분은 해 주시던데요? 예, 아마 그 직원 분께서도 다음 번 반납일 엄수를 말씀하셨을 겁니다.</p> <p>*반납자료 분실의 경우 -분실의 경우 동일 자료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자료의 출판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판·품절의 경우 대체도서를 알려드립니다.</p> <p>*client의 자료 반납 주장하는 경우(반납 처리error)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가에서 자료가 확인 된 경우 죄송합니다. 반납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처리해 드렸습니다.</p> <p>-서가에 자료가 없는 경우 혹시 미반납하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쪽에서도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p> <p>*타 자료실 자료의 연체시(client의 완납 주장의 경우) -자료실 담당자간 통화 시도 -client의 강한 반발과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특별대출로 자료대출 한 후 client가 직접 해당부서 에서 미반납 자료의 처리를 확인하도록 권함 (혹은 상황에 따라 직원이 처리)</p> <p>*딸림 자료를 갖고 오지 않은 경우 -자료와 함께 반납하기를 권유 -금일 미처리 시 연체의 경우 1회 반납연기 처리 또는 재대출 후 익일 반납 요구 (딸림 자료와 동시 반납의 이유 설명)</p>	<p>*client와의 불편사항 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여유 롭고 친절 한 응대는 필수!</p> <p>* 반납 과정 의 error 를 해결하 기 까지 강한 주장 과 단정은 금물!</p>

대출·반납 업무의 표준화

CASE	Client 사례	Client용 대요령	비고
서가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도서의 서가 위치를 찾지 못할 경우 -이쪽으로 오십시오 -청구번호의 이해 도움 -입구 서가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포함) *소장도서의 서가 부재시 -미대출 자료이나 현재 서가에 없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대체방안 설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도서의 서가부재의 경우 client 쪽에서는 불만이 극대화 됨. 직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보존서고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서고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확인 후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을 상황의 부연설명 필요) -보존서고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claim 제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ient의 불만사항의 표출시 -정확한 상황의 파악 후 직접 해결이 가능한 지 혹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 -과정상 어느 쪽의 실수가 되었던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대응 -client쪽의 실수시 다시 한 번 주의사항 공지 -도서관 쪽의 실수시 error의 수정과 더불어 정중한 사과로 도서관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 -비상식적인 요구사항과 claim 표출시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임을 강조하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불가함을 인식시킴 *client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 편견과 부당한 요구에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주지시킴 *공공기관 이용시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준수를 짚지만 설득력 있게 주지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상황 시 상대적 대응이 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이성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주의권 고시 훈계적 느낌이 드는 것을 배제함
메인화면의 정확한 체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의 정확한 Reading -한 템포 느리지만 정확한 대답이 중요 -대출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놓치지 말자 -client의 모든 대출·대출이력의 정보가 있는 곳 	

위에 표로 제시한 내용은 대출·반납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CASE별로 그 처리 과정이나 항목별 사례는 더욱 구체화·세분화되어 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의 치열한 경쟁과 이를 통한 기업이익의 극대화처럼 도서관이 지역중심의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도서관의 변화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Client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감의 극대화를 위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 참 고 문 현 -

1. 신희권 외. 2001. 「시민행정과 정부」 서울 : 대영문화사.
2. 강원일보. 2005. 11. 29.
3. 김일. 행정학개론. 2005. 서울 : 넥서스아카데미
4. 국정브리핑. 2005. 11. 16.
5. 노시평 외. 2000. 「행정서비스마케팅」 서울 : 법문사

여 백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문고 운영사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 윤 선 경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그 공감대를 형성한다. 독서는 물론 교수·학습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교육 기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을 갖추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획기적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학교도서관 5개년 종합계획(2003-2007)” 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그리고 그 3년차에 접어든 지금 학교 현장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성남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경기도의 교육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를 지원·협력하여 그들의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선도적 지위에 있다 하겠다.

성남도서관의 ‘협력문고’ 사업은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육성 시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여 왔던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립도서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도서관을 지원하여 온 바 있다. 이번의 ‘협력문고’ 사례는 처음으로 시도된 유형으로 본 지면을 통하여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는 물론 사업의 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여 백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학교도서관 협력문고 운영사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윤 선 경

1. 협력문고 운영 개요

가. 운영목적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2003~2007)” 추진에 발맞추어 학교도서관 육성·발전이라는 교육적 현안에 공공도서관적인 역할과 기여를 실현하기 위함.

나. 운영 배경 및 의의

- (1)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 있어 장서여건 측면의 미진한 학교를 발굴하여 보완함
- (2) 공공도서관측면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정책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교도서관 육성·발전에 일조하고 학교도서관은 장서 구입의 예산 부담 완화, 학교도서관의 필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조직된 자원의 제공, 도서 구입 및 정리에 소요되는 인력 부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의를 가짐
- (3) 특히 초·중·고 계층별 학년별 관련 교과별 연계 학습 도서(교육인적자원부선정)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학습지원 기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수준적 기회의 마련.

다. 운영 기간 및 규모

- (1)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 기간과 연계하여 2003~2007년도 5개년 중기사업으로 추진한다.
- (2) 재원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금을 활용하되 보충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라. 운영방침

- (1) 우리도서관 봉사대상 9개 교육청 12개 시·군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다
- (2) 초·중·고의 선정은 각 60%, 20%, 20% 의 비율로 배분 선정하여 추진 한다
- (3) 1개교에 지원된 자료는 3년간 동일교에서 운영 한다.

마. 기대효과

- (1) 학교도서관 활성화 촉진
- (2) 학교현장의 장서구입예산 부담 완화
- (3) 자료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의 부담 해소
- (4) 교육인적자원부 선정도서로 균형 있게 조직된 자료로 학생의 독서의욕 고취 및 학습활동 지원

2. 협력문고 운영의 실제

가. 대상지역 : 9개 교육청 12개 시·군

(성남, 의정부, 동두천(양주), 남양주(구리), 광주(하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나. 자료 : 학교당 2,200권 ~ 2,500권 지원

다. 해당지역 학교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기타	계	비고
계	290	138	97	8 / 3	536	특수학교제외 525개교
비율	54.1%	25.8%	18.1%	2.0%	100%	

라. 대상학교 선정기준

- (1) 도서실 시설 : 독립 공간으로 교실 2칸 이상
- (2) 전담인력배치 가능 (임시직 포함)
- (3) DLS 설치 사용학교
- (4)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

마. 도서관 지원자료

- (1)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학년별 교과별 연계 독서자료
- (2) 학교별 정리된 자료 및 자료 데이터

- (3) 학교별 문고는 초·중·고별 2,200권 ~ 2,500권으로 함
 (4) DLS시스템 적용프로그램으로 전환 사용가능토록 함

바. 선정방법

- (1) 범위 : 9개 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및 기타 각종학교를 제외한 493개 초·중·고등학교에 개별 시행하여 해당학교가 도서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함
 (2) 방법 : 해당 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기준적용 선정하고, 선정기준평가표에 의하여 1차선정하고 1차 선정학교를 현지방문 실사 후 최종지원대상학교로 결정 지원함

(3) 항목별 가중치

항 목	비 율	세 부 항 목
시설	20	교실 크기, 환경 (교내위치), 집기
인력	20	전담사서, 임시사서, 도우미
DLS사용여부	20	사용 중, 예정, 미정
장서구성 양	15	수량의 경기도 평균도달, 최근자료, 예산의 확보
학교의 의지	15	관리자, 담당자, 이용자
도교육청 지원 여부	10	활성화 지원, 비지원
합계	100	

(4) 평가 주안점

- 전용공간, 자료수, 예산반영, 전담인력의 4대 요소를 평가함
- 시·군 간의 형평을 유지하여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개 시·군 1개 대상을 원칙으로 함

(5) 평가 지표

등급별	배점	전용공간 (m^2)	1인당 자료수 (권)	도서구입비 예산반영비율(%)	인력
1등급	3	200 이상	8권이상	5%	
2등급	2	132~199	6권이상	4%	전담, 사서
3등급	1	132내외	5.4권까지	3%	전담, 비사서

- 전용 공간은 교실 2칸 면적을 ($132 m^2$) 기준으로 함

- 학생 1인당 자료수는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인 5,54 권을 기준으로 함
- 도서구입비 예산 반영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의 권고 수준인 3%를 기준으로 함
- 인력평가는 전담성과 전문성을 구분하여 양대 요소의 충족도를 기준으로 함

사. 학교준비사항

- (1) 서가 및 비품
- (2) 자료대출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 (3) 자료관리 전담인력

아. 기타 행정사항

- (1) kolas로 정리된 자료데이터는 마크반출을 통해 학교별 DLS에서 D/B화하여 지원하며 학교별 문고설치와 병행 학교에 자료 데이터를 사서과 협조로 설치함
- (2) 해당학교는 집기 및 일체의 소모품은 학교에서 구비함
단, 각종 통계로 필요한 경우 양식은 도서관에서 지정함
- (3) 학교는 학기별 이용현황을 집계 보관하고 도서관에 통계 보고하여 별도 협력문고 지원 및 이용현황을 관리함
- (4) 자료의 수송은 순회문고 차량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차량을 임차하여 수송토록 함

자. 지원도서 운영관리 사항

- (1) 협력문고 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함.
- (2) 문고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학교 자체 자원과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협력 취지를 도모해 주기 바람.
- (3) 협력문고 활용 상황을 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학교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반기별(매년 6월, 12월) 현지출장 또는 서면조사 활동에 협조해 주기 바람.
- (4) 담당교사의 변경 등 운영상의 중요한 사정 발생시 즉시 통보 해 주시기 바람.
- (5) 오·훼손 도서 관리
 - (가) 라벨 및 바코드 손상
 - 라벨 및 바코드 손상 도서 발생시, 일정분(50권 정도)을 모아 도서관에 보내주면 일괄적으로 재정리하여 학교에 송부
 - 라벨과 바코드 원본은 손상없고, 단순히 부착 상태가 불량시에는 바코드 키퍼로

재처리하여 이용

- (나) 책의 장정이나 면수가 떨어졌을 시에는 자체 보수
 (다)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면수가 손상되었을 시에는 별도 보관하시어
 도서관의 요청이 있을시 반납함

(6) 분실도서 관리

- (가) 분실도서 발생시, 동일도서 변상을 원칙으로 함
 (나) 품질이나 절판 등으로 인해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유사도서로 대체함
 (다) 변상된 도서는 별도 보관하여, 학년말(12월중)에 도서관으로 보내 주면 일괄 정리하여 보냄
 - 동일도서는 등록번호와 청구기호를 기록함
 - 대체도서는 분실도서와 그 대체도서에 대한 서지사항을 작성하여 송부함

3. 협력문고 운영현황

가. 지원현황

지원년도	구분	학교수	책 수	비 고
2003년도 (1차)	초등	6	15,138	2003년 예산은 계획 수립, 대상선정, 문고 준비로 인해 실제보급은 2004년3월에 시행함
	중등	2	4,482	
	고등	3	7,431	
	소계	10	27,051	
2004년도 (2차)	초등	2	5,143	
	중등	1	2,352	
	고등	-	-	
	소계	3	7,495	
2005년	초등	2	3,045	
	중등	1	2,478	
	고등	1	2,330	
	소계	4	7,853	
	계	18	42,399	

나. 이용현황

이용기간	구분	학교수	지원책수	총이용자수	총이용책수	1책당 이용자수	1책당 이용횟수
2004상반기 (2004.1.1 ~ 2004.6.31)	초등	6	15,138	61,186	68,183	4.0	4.5
	중등	2	4,482	2,261	2,720	0.5	0.6
	고등	3	4,946	5,602	5,598	1.1	1.1
	소계	11	24,566	69,049	76,501	2.8	3.1
2004하반기 (2004.7.1 ~ 2004.12.31)	초등	7	17,749	67,607	82,916	3.8	4.7
	중등	3	6,834	4,869	6,180	0.7	0.9
	고등	3	7,431	6,944	6,944	0.9	0.9
	소계	13	32,014	79,420	96,040	2.5	3.0
2005상반기 (2005.1.1~2005.6.31)	초등	8	20,281	78,627	196,162	3.9	9.7
	중등	3	6,834	9,876	9,792	1.4	1.4
	고등	3	7,431	6,281	7,172	0.8	1.0
	소계	14	34,546	94,784	213,126	2.7	6.2

다. 학교별 지원현황(총 18개교 42,399책 지원)

구분	문고명	학교명	자료지원현황	지원일	비고
초등	초등1	태평	2,523	2004. 3. 29	2003 예산
	초등2	삼리	2,523	2004. 3. 29.	"
	초등3	어룡	2,523	2004. 4. 8	"
	초등4	남양주송라	2,523	2004. 4. 8	"
	초등5	답내	2,523	2004. 4. 8	"
	초등6	내촌	2,523	2004. 4. 9	"
	초등7	선단	2,611	2004. 10. 27	2004 예산
	초등8	희망대	2,532	2005. 1.	"
	초등9	백문초	528	2005.12.7.	2005 예산
		늘푸른초	2,517	2005.12.1	"
중등	중등1	대원여중	2,241	2004. 3. 29	2003 예산
	중등2	일동중	2,241	2004. 4. 9	"
	중등3	군남중	2,352	2004. 10. 27	2004 예산
	중등4	구미중	2,478	2005. 12.1	2005 예산
고등	고등1	충훈고	2,485	2004. 3. 12	"
	고등2	용문고	2,485	2004. 4. 9	2003 예산
	고등3	호원고	2,461	2004. 5. 11	"
	고등4	성남여고	2,330	2005.12.1	2005 예산
계	총 18개교	42,399			

4. 협력문고 운영 결과

협력문고 운영의 활용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학교도서관과의 상호 협력활동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반기별(매년 6월, 12월) 현지출장 또는 서면조사 활동을 통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 지원도서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에 관한 평가

- 가. 도서관 활용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나. 아동들의 흥미 유발하는 도서가 많아 만족도 높음
- 다. 협력문고 지원 후 대출권수가 약 1.5배 늘었음
- 라.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지원도서의 대출 비율이 소장도서에 비해 10% 높음
- 마. 장서가 보완되어 매우 만족함
- 사.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아.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장서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 자. 다양한 주제의 자료이고 신간도서라 이용률이 높다.

문항 2) 협력문고 도서 선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 가. 만화류의 책 등 제본 상태가 불량한 도서는 제외
- 나. 소장도서와 복본인 도서가 많음
- 다. 소장도서와 적절한 주제별 비율 고려해 주었으면 함
- 라. 학교급에 대한 고려(고교생에게 부적합한 도서 일부 포함됨)
- 마. 교과학습 외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선정
- 바. 입체모형이나 입체도서 등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되었으면 함.
- 사. 참고도서나 어학관련 도서의 경우 고급수준의 책은 제외
- 아. 시리즈 도서의 경우, 권차를 확인하여 복본이나 결권여부 확인
- 자. 학교의 교육과정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청각 자료도 지원되었으면 함

문항 3) 우리도서관 협력문고 사업에 관한 기타 의견

- 가. 관리 중 파손된 도서의 사후 처리면에서 완전 기증여부 검토바람
- 나. 학부모나 지역주민, 교사들을 위한 자료 지원을 요청함
- 다. 지원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함
- 라. 학교도서관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매우 감사드립니다.
- 마. 사서들의 현장 지도가 이루 졌으면 함
- 바. 1~2년 단위로 순환 대출 되었으면 함
- 사.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었으면 함

여 백

학교도서관, 그 현장속에서

경기도포천교육청 사서 / 한 윤 조

1. 들어가며

2. 마치며

여 백

학교도서관, 그 현장 속에서

경기도포천교육청 사서 한 윤 조

1. 들어가며

“제언(提言)이란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했고, 제언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니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이 단어의 뜻은 포천교육청에 발령 받은 약 1년 4개월이란 시간을 전개시키면서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팡켜 놓았다. 그 동안 이 자리에서 해왔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인지, 지금의 내 위치와 앞으로의 이 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인지 등의 생각이 복잡하게 얹히고 설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마 나와 같은 심정은 도서관이 아닌 아직은 낯선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게 변화해 가야하는 우리 사서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트렌드화로 흐지부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학교도서관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학교교육의 핵심시설로 계속 발전하게 될지, 학교도서관 현재의 상황을 조명해 보고 한번쯤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학교도서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채택되면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메카로 떠올랐고, 정부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핵심시설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처음의 거창한 계획에 비하여 지금의 학교도서관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점차적으로 망각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학교도서관이 홀륭히 운영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곳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만 번듯하게 해놓고 학교의 보여주기 시설이 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의 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인성·지적능력의 향상을 실천해 가는 곳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학교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몇몇 소수의 교육자들만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부모 등에게 학교도서관의 필요성 및 역할을 각인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과 2~3년 전에 비하여 학교도서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시설이 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대도시·농어촌도시 모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시작 된지 불과 3년이 된 지금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물적 지원을 받은 학교들은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하여 학생들의 독서교육 및 학교의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그곳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사서인력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력 외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시와 대응투자 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서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대도시와 같이 충실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도시지역에 속하는 몇 개 큰 학교를 제외한 소수학급 학교의 경우 물적·인적자원에서 많이 열악하고 지원받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대안은 대도시처럼 지자체나 다른 사회기관 단체에서 재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 사서가 발로 뛰어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말단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사서들이 큰 재원을 지원받기 위한 힘은 현실적으로 미약하다. 각 지역교육청의 장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외되고 열악한 학교도서관을 점차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학교도서관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장 및 장학사들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연찬회가 아닌 진정으로 학교교육의 중심이 학교도서관 있다는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도서관에 정보가 부족하다?

학교도서관은 정보센터로써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은 학습 및 문화의 장이 되고 독서의 장, 인성개발의 장이 되는 곳이다.

학교현장을 방문하면 이러한 장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그곳을 운영해 가는 교사들이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지만 이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에게 현행의 연수방식을 개선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담당교사 및 사서교사 수준에 따른 연수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간의 근거리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사서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 학교도서관 담당사서의 재교육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나는 학교도서관을 맡아 고생하는 교사 및 사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

학교측에선 우리에게 항상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담당교사들은 업무과중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을 소홀히 하게 된다며 사서인력을 요구하고,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교육 자료와 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한다. 물적지원과 사서인력지원은 예산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정부차원 또는 기관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문제이다.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및 활용수업 부분은 교육청 사서의 능력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교육청 사서들 대부분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그리고 활용수업에 대해 어렵잖하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학교도서관 축제에 참여하거나 장학자료와 같은 자료를 보고 공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나 사서교사들에게 연수와 같은 재교육의 기회가 있지만, 정작 그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교육청 사서에게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기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 학교도서관 흐름에 발맞춤과 동시에 그 흐름을 주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교육청에서 우리의 위치도 확고해 지리라 본다.

2. 마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5개년을 발표한 후 학교도서관 사업이 전개 된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도서관 사업은 예산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라는 큰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다시 나서서 학교도서관 계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학교도서관의 부작용이 되어버린 해답없는 비정규직 문제도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빼꺽거리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한다면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들이 질적으로 한 층 더 발전되리라 본다.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로서의 역할

-학교도서관 사서와 지역교육청 사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안성교육청 사서 / 이 재 은

여 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로서의 역할

- 학교도서관 사서와 지역교육청 사서를 중심으로 -

경기도안성교육청 사서 이재은

처음 학교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1999년도.

그 당시 군포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근무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난 집에서 가까운 군포의 한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출근하게 되었고 출근한 첫 날, 도서실을 보고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교실 1칸 반의 도서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도서실 서가와 책상, 의자 등 도서실 비품을 구입하여 도서실 공간이 점점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3,000권정도의 도서 전산화 작업이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서실 개관식을 빨리 하길 원하셨고, 그 당시 도서입력 프로그램은 지금의 DLS처럼 같은 목록이면 체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MAE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록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처음에 도서실을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도서실 개관작업에 들어갔고 시간부족으로 인해 야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 달 반을 꼬박 야근을 하고나서야 자료 전산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학교라는 곳이 밤이 되면 은근히 무섭고 겁이 나는 곳이지만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뿌듯함과 무서움을 겸여낸 내가 자랑스러웠다.

야근을 하고 난 후 교장선생님께서는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비정규직으로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도서실 일을 나에게 전격적으로 맡기셨다.

개관식을 하고 난 후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서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도서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기관장의 관심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서실이용을 위해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도서대출증에 사진을 붙이고 학년별로 다른 색으로 만들어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 첫 해는 단행본위주의 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활용수업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 비도서자료를 많이 구입하여 활용수업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주 수요일은 영화 보는 날로 정하여 영화상영시간을 게시판에 붙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출 반납하는 학생들로 도서실이 북적거렸고, 신간도서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도서실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서로 학생도우미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기도 하고, 급기야 학생도우미 신청받겠다는 공고문을 내보냈을 때는 70명이 지원서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중 7명을 도우미로 위촉하고 요일별 해당업무를 분담시켜주었다. 방학 때는 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민속박물관이나 신문박물관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나는 선생님이자 학생들과는 친한 언니, 누나로 학부모님들은 상담자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위치는 대상자에 따라서 변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에서 일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했고 항상 아이들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비정규직 사서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마다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지원이 안 되면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이었다. 항상 해마다 12월이 되면 내년에는 학교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불안함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가지 않게끔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한 학교에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한지 5년이 지나고...

2004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순간 너무나 기뻤다. 그동안 시험을 준비한 기간도 길었지만, 학교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험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경험을 살려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독서행사 등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설레임 반 기대감 반으로 안성교육청이라는 낯선 곳으로 출근했다. 안성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안성맞춤, 안성탕면, 안성포도, 안성유기 등을 들어봤기 때문에 친숙하게 생각 되어졌다. 첫날 교육청에 들어설 때의 느낌은 참 편안하고 아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의 한 정취를 맛 볼 수 있는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나를 반기는 듯했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더없이 좋았다.

교육장님 인사 하에 소개를 받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 간의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무과 중등교육계의 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장학사님들과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학교도서관에서 근무 할 때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사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전부였지만 교육청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계와 함께 각자 자기의 맡은바 업무를 하는 곳이었다.

처음 나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일정이나 행사가 진행되어온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공문 파악 후 전자문서시스템을 배웠고 직접 공문 작성도 해봤다. 공문 작성시 신경이 많이 쓰였다. 안성시 관내 초·중학교 전

체에 배부되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점검을 나갈 찰나면 학교에서 언제 점검 나오느냐, 누구랑 함께 나오느냐 등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났다.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교육청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서가정리, 책상정리, 장부정리 등 재정리작업을 하고, 교장선생님도 자주 들려서 확인하시곤 했던 일이 생각났다. 학교도서관 근무 당시 점검을 받던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점검자로서 학교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마다 차이점이 파악된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눈에 띄게 확연히 들어난다.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학교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에서 그런 상황을 겪어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가 보면 담당교사가 도서실 업무를 하는 학교가 있다. 내가 학교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지역은 거의 모든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안성이라는 곳은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자체채용학교까지 해서 10개교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학교 도서실은 담당교사가 맡고 있고 시내학교 몇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다. 처음에 학교도서관 방문을 했을 때 많이 놀랐다. 지역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의 낙후성은 정말 심각했다. 학교의 기관장들의 의지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 학기에 세 번을 나갔다. 점검을 할 때마다 점차 조금씩 바뀌어가는 학교도서관을 보면서 교육청의 사서로서 부족하지만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관심도 많아졌고 오히려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전화가 오기도 한다. 지금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었고, 학교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점검을 나가면서 학교 사서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사서회의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재 끝에 사서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결정했고, 사서의 인원수가 10명 밖에 안되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사서선생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주제발표시간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양한 연수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배운 연수를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면을 보면서 연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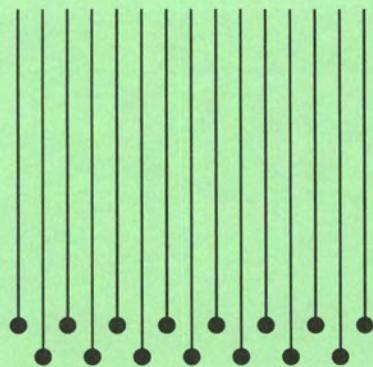
비정규직이지만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 또한 사서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어디서든 말없이 조용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솔직히 별로 티가 안난다. 독서를 조금 안했다고 해서 티가 확 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소중함과 사서의 소중함

을 느끼지 못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안성교육청 관내의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는 미약하다. 하지만 1년마다 바뀌어 가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보면서 희망적으로 가능성은 가름 해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근무와 지금의 교육청에서의 근무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같다. 위치가 틀릴 뿐이다.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사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외 연수 보고

여 백

WLIC 제7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대회 참가 보고서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1st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 김 진 숙

1. IFLA대회 참가 개요
2.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3. 스웨덴 및 핀란드 도서관 연수
4. 맷는 말

여 백

WLIC 제7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 참가 보고서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1st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김진숙

1. IFLA대회 참가 개요

가. 목적

세계도서관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업무협력 및 상호교류 증진과 도서관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2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대비 국제적인 행사의 참여로 방문도서관으로서의 운영시스템 점검과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운영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에 있다. 또한 외국의 선진도서관 견학으로 문헌정보서비스 및 도서관운영, 도서관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첨단정보습득 및 전문성 제고에 있다.

나. 참가기간 : 2005년 8월 13일 ~ 8월 25일(12박 13일 / 기내 1박 포함)

다. 참가국 :

- 노르웨이(오슬로 소재) : IFLA대회의 참가 및 도서관 연수
Oslo Public Library, Oslo Public Library Grnerløkka branch
Vahl Primary School Library
- 스웨덴 : 스웨덴 국가도서관(스톡홀름 소재) 연수
- 핀란드 : 핀란드 국가도서관(헬싱키) 연수

라. 대회 참가 일정

일자	지역	일정
8월13일(토)	인천 <u>프랑크푸르트</u> <u>오슬로</u>	인천출발 / 프랑크푸르트 경유 오슬로 도착
8월14일(일)	오슬로	제71차 WLIC 대회 참가등록,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전시회 개막 리셉션
8월15일(월)	오슬로	전시회,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신관 개관식
8월16일(화)	오슬로	문화시설 견학(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바이킹박물관, 시청사, 비겔란드 조각공원, 홀멘콜렌 점프대, 국회의사당, 국립미술관 등 문화의 밤 행사(WLIC2005 오슬로 NOC주관)
8월17일(수)	오슬로	전시회,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도서관 견학(WLIC2005 오슬로 주관) : Oslo Public library, Oslo Public library Grünerløkka branch
8월18일(목)	오슬로	전시회,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도서관 견학(WLIC2005 오슬로 주관): Vahl Primary School library
8월19일(금)	베르겐, 송네피요르드, 베르겐	플롬라인 송네 피요르드 견학
8월20일(토)	베르겐, 스톡홀름	스웨덴국가도서관 견학
8월21일(일)	스톡홀름	문화유적 견학 : 감라스탄 구시가지, 시청사, 왕궁, 바사호 박물관 스톡홀름 출발
8월22일(월)	헬싱키	핀란드국가도서관 견학 문화유적 견학 : 국립박물관,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8월23일(화)	헬싱키	문화유적 견학 : 수오멘라나 요새, 시벨리우스 공원, 시청사
8월24일(수)	헬싱키, 프랑크푸르트	문화유적 견학 : 우스펜스키 사원, 국회의사당 견학 헬싱키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8월25일(목)	인천	인천도착

마. 개최국 노르웨이의 일반현황

수 도	노르웨이(Norway)는 노르웨이어로 노르게(Norge)로 표기하는데 노르게는 '북방의 길'을 의미하며 정식 명칭은 노르웨이 왕국(Kongeriket Norge/The Kingdom of Norway) 수도는 Oslo (인구: 약50만명) * Greater Oslo 개념의 수도권 인구는 약 95만명 오슬로는 1048년 바이킹 왕 하랄(Harald)이 건설하였고 13세기에 수도로 정해져서 한자 동맹(Hansaneatic League)의 항구로서 번영하였다. 녹지가 많고 주거 환경이 매우 쾌적이며 피오르드가 들어와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면적	386,958km ² (남한의 약 4배 유럽에서 5 번째로 큰 나라)
인구	457.4만명(2004.7월), 인구밀도는 유럽에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적음.
인종	노르웨이인을 구성하는 주체는 큰키에, 흰 피부, 금발의 머리카락 그리고 파란눈을 가진 게르만계인이며, 북부에는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약 3만 명의 싸미(Sami)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	노르웨이 어 (스웨덴, 덴마크어와 유사성이 많음) 덴마크어의 영향을 받은 Bokmal語, 노르웨이 지방 고유어인 Nynorsk語 두개 언어 모두 공식언어로 통용
종교	헌법 제2조에 의해 루터 복음교(전체국민의 94%)를 국교로 지정하였으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며, 비국교 신봉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4% 이다.
기후	전체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음. 서해안은 멕시코만 난류가 북상하는 영향으로 겨울은 평균 기온 -1~ -2도로 온화하며, 여름은 평균기온 9~ 17도임. 내륙 산악지역과 북부는 대체로 서해안보다 한랭하고 바람이 강함.
지리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부는 북쪽으로부터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과 접하고 있고, 서부는 노르웨이 해, 북해와 접해 있다. 나라의 형태가 남북으로 좁고 길어서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6.3km밖에 안 된다. 섬은 약 15만 개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200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	북유럽 국가 중에 노르웨이는 비교적 국가 통일이 늦은 편으로, 872년에야 비로소 여러 지역이 합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그 후 14세기경 '칼마르 연합'에 따라 덴마크 왕이 스웨덴, 노르웨이 왕을 겸하게 되었다. 1523년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으나, 노르웨이에 대한 덴마크의 지배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814년 킬 조약에 따라 스웨덴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왕을 겸하고 있던 스웨덴 왕 카를 14세 밑에서 노르웨이 헌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1905년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호콘 7세를 노르웨이 국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문화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낙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국민성을 지니고 있고 연극, 영화, 그림, 민속무용, 문학분야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있다. 화폐단위 : 노르웨이 크로네(Norwegian kroner : NOK) 환율 : US \$ 1.00 = 6.3NOK(2005.2 현재) 국내총생산(GDP) : \$ 2,193억불 1인당 국민소득 : 약 \$ 42,000(잠정)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 늦다.

2.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가. IFLA 개요

공식명칭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며 각국 도서관협회 및 정보서비스기관의 연합체로서, 도서관업무의 국제 표준화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2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창설되었으며 1929년 규약이 채택된 국제도서관협회로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회원규모는 총 154개국 약 1,749개 도서관 및 기관(북한도 가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계 최고의 국제기구이며 국제도서관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총회를 개최한다.

국제간의 문헌정보를 통한 도서관 및 서지(書誌)분야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도서관 전문직단체 및 기타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자문관계에 있으며 국가 혹은 국제기구로 구성된 협조회원과 기관회원·개인회원·자문회원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조직은 사무국(Headquarters), 이사회, 8개 부회 45개 주제별분과회로 구성되며 총회(Council)는 전체회원의 모임으로 IFLA 각종 안건에 대한 투표권 행사 매년 개최한다. 이사회(Governing Board)는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전문위원회 대표 1명 포함하며 IFLA 정책, 경영, 재정, 대외관계를 담당한다. 전문이사회(Professional Board)는 8개부회(Division)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8개 부회는 45개 주제별분과회(S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핵심추진사업은 도서관진흥(APL(Advancement of Librarianship Program), 저작권 및 기타법률문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자료보존(PAP: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이다.

지부사무소는 3곳으로 아프리카지부(세네갈 소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부(태국 소재),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지부(브라질 소재)가 있고 발간 간행물은 7종으로 IFLA Annual, IFLA Council Report, IFLA Directory, IFLA Journal, IFLA/UNESCO Manifestos, IFLA Publication Series, IFLA Professional Reports가 있다.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정규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북한은 1970년에 가입하였다.

나. IFLA 대회(국제도서관협회연맹)개요

- 개최목적 : 협력, 조사, 연구 및 개발 등 IFLA 활동에 따른 성과물의 공유 기회,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이해 증진 및 문화교류를 위한 만남의 광장 마련
- 개최 빈도 : 매년 개최지를 바꾸어 세계 각 국의 도시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
- 대회 공식명칭 변경 : 2003년도부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Information Congress)로 변경
- 최근 대회 개최지 및 대주제

년도	개최지	대주제
1986	동경, 일본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의 새로운 시야
1996	북경, 중국	변혁의 계기
2000	예루살렘, 이스라엘	미래의 도서관 창조를 위한 국제협력
2001	보스턴, 미국	도서관과 사서 : 지식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
2002	글래스고, 영국	생활을 위한 도서관: 민주주의, 다양성, 전달
2003	베를린, 독일	엑세스 포인트로서의 도서관 : 미디어, 정보, 문화
2004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교육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도서관
2005	오슬로, 노르웨이	도서관 :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발견의 항해
2006	서울, 대한민국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
2007	더반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래를 위한 도서관 : 진보, 개발, 협력

다. WLIC 2005 오슬로 : 71차 IFLA 총회 개요

- 기간 : 2005년 8월 14일(일) ~ 8.18(목)
- 장소 :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urm),
라디슨 SAS 플라자(Radisson SAS Plaza) 등
- 주제 : 도서관 : 발견의 항해(Libraries : A Voyage of Discovery)
- 주요일정

일 시	내 용
8월 14일(일)	08:30-10:30 총회
	10:45-12:45 개회식
	13:45-15:45 각종 세션(유네스코 세션 외 - 일부 동시통역)
	16:00-17:00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
	16:00-18:00 전시회 개막 파티(대회 개막 파티와 함께)
8월 15일(월)	전일 전시회(09:00-17:30)
	08:30-18:00 각 분과별 주제발표 및 각종 세션(일부 동시통역)
	저녁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신관 개관식
8월 16일(화)	전일 전시회(09:00-17:30)
	12:00-14:00 포스터 세션
	08:30-18:00 각 분과별 주제발표 및 각종 세션(일부 동시통역)
	저녁 문화의 밤
8월 17일(수)	전일 전시회(09:00-17:30)
	전일 도서관 방문
	12:00-14:00 포스터 세션
	08:30-18:00 각 분과별 주제발표 및 각종 세션(일부 동시통역)
	저녁 대사관/영사관 리셉션, 시장 리셉션
8월 18일(목)	전일 도서관방문
	08:30-12:45 각 분과별 주제발표 및 각종 세션(일부 동시통역)
	14:15-15:50 폐막식(동시통역)
	16:00-18:00 총회

라. 제71차 IFLA 대회 개황

제7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 대회가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펙트럼(Oslospektrum)과 라디슨 SAS 플라자(Radisson SAS Plaza)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약 5천여명 이상의 도서관 정보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IFLA 총회가 세계 도서관계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Oslo대회 대 주제는 「도서관 : 발견의 항해(Libraries : A Voyage of Discovery)」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분과회의,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전문위원회, 신입회원 소개, 만찬, 문화행사, 공연, 도서관 방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WLIC 참가등록 : 개회식에 참석예정인 오슬로 국왕의 안전에 대한 보안검색 문제로 인한 등록 혼잡을 우려해 조직위원회 측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회장인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urn) 1층 데스크에서 아침 일찍 총회 등록을 하였다. 조직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참가등록 확인증을 제출하여 명찰, 프로그램, 발표자료 CD-ROM과 자료 일체를 교부하였다. 등록 시 부대행사인 개회식 리셉션, 각 문화행사 리셉션 초창장을 함께 수령하며 참가자 명찰은 항상 소지하여야만 대회기간 중에 열리는 각종 행정, 학술회의, 개·폐회식, 리셉션, 전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개회식 : 대회공식행사로서 가장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만나는 개회식은 10시 45분에 개최되었으며 King Herald V(노르웨이 국왕), John Bing (WLIC 2005 Oslo NOC위원장), Valgerd Svarstad Haugland(노르웨이 문화교회청 장관) Per Ditlev Simonsen(오슬로 시장)참석 있었으며 축하공연으로는 하프와 바이올린 연주,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과 책의 자유로운 정보제공과 공유의 중요함을 노래한 영상물 상영이 있었다. 개회식 종반에는 중앙 무대로 각 회원국의 국기가 입장하였다 퇴장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개회식 행사가 종료되었다.

전시부스 : 세계도서관정보대회기간 중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rum)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미국도서관협회등 여러나라의 홍보부스와 ALA, OCLC, 3M 등의 100개 이상의 세계 유수의 기업 및 기관들이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도서관 및 정보화 관련 용품 및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상용DB, 그리고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및 연구 개발품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통해 첨단 기술의 동향을 읽을 수 있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다. 차기개최지 홍보를 위해 설치된 한국부스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직지홍보관에는 행사기간 동안 오슬로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조직위원회 용빙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국립도서관장, 체코국립도서관 아돌프 크눌 부관장, 국회 정보위

원회 신기남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김태근 관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등 5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았다. 직지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직지 인쇄를 직접 시연해 보고 직지와 우리의 고인쇄 문화의 우수성에 감탄하였다.

도서관방문 : 도서관방문(Library Visits)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각국 도서관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대회 개최국의 도서관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개최국 도서관의 운영 상황과 발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하게 된다. 관종별 주제별 관심분야에 따라 방문도서관은 다르게 선정되어지며 방문당일 아침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rum)앞에서 09:00시부터 자원봉사들의 방문도서관 안내에 따라 함께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 방문도서관을 견학하였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관계로 Oslo Public library(오슬로공공도서관), Oslo Public library Gr nerløkka branch(오슬로공공도서관분관), Vahl Primary School library(학교도서관)등을 견학, 연수하였다.

분과회별 주제발표 및 각종 세션 : 대회참가 기간에는 세미나, 워크숍은 개인별로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IFLA 본부는 종이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대회발표 논문집을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회참가 전 IFLA 홈페이지(<http://www.ifla.org./IV/ifla71/Programme.htm>)에서 관심주제의 발표 자료를 사전에 출력해서 미리 번역 준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분과등에 참가하여 최근의 연구동향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으며 8월 16일(화요일, 16.00-18.00) A study of the school library policy and it's development in Korea 주제로 한윤옥교수의 주제발표를 들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내용 이해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질문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는 언어적인 어려움이 따라 아쉬움으로 남았다.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신관 개관식 : 8월15일(월)은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신관 개관식 행사에 참여하였다. 개관식 행사에는 노르웨이 국왕 King Herald V가 참여하였고 도서관의 공식행사에 대한 노르웨이정부의 국가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으며 도서관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대회 참가자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과 보안상의 문제로 개관식 진행과 내부는 도서관 맞은 편 야외 잔디밭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프닝 축하공연을 보면서 국립도서관임에도 정형화되고 엄격한 행사를 지양하고 개막축하를 놀이와 예술로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생생함을 전달 받았다.

문화의 밤과 만찬 행사 : 8월16일(화)은 WLIC 2005 오슬로 NOC주관으로 대회 참

가사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가 민속박물관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들과 공연자들의 연극, 노래, 민속춤, 현대음악연주, 전통마차 시승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8월17일(수)은 관종별로 대학, 시청 공공도서관 만찬이 있었으며 우리일행은 Oslo Public library에서 진행된 만찬에 참여하여 축하공연과 도서관 시설을 자유롭게 둘러보았다.

폐회식 : 대회 마지막날인 8월 18일 (목) 라디슨 SAS 플라자(Radisson SAS Plaza)에서 주제발표가 마무리 되고 14:15~15:50까지 폐막식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IFLA조직위원회의 오슬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노고의 인사와 참여자원봉사자의 인사 그리고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전임·신임 IFLA회장의 인사말과 새로이 선임된 임원진 소개 그중 한국도서관협회장인 한상완회장(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이사)의 단상인사와 차기 개최국 조직위원장인 신기남위원장의 대회홍보 연설 그리고 서울대회의 주제인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을 홍보 하기위한 영상을 상영과 서울예술단의 공연은 폐막식의 축제분위와 차기대회의 기대감과 준비된 힘을 느끼게 하며 대회를 마치게 되었다.

마. 방문 도서관

(1) Oslo Public Library (8월 17일 09:00~12:00)

도서관조직은 하나의 중심 도서관과 13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참조문헌부문, 주 대출 부문, 수서 부문, 음악 부문, 사내 인쇄와 제본술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 부문, 학교 부문, 목록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Kinoteket

Kinoteket는 도서관의 디지털 시네마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노르웨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Kinoteket에서 즐길 수 있는 필름 내용에는 광고,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역사적 사건 필름 그리고 뉴스가 있다. 이 서비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노르웨이의 모든 도서관이 Kinoteke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Is This Where I Belong?

Is This Where I Belong은 지역역사 프로젝트로, 주체성과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오슬로의 3지역의 지난 30년간 건축 상의 개발, 역사 그리고 문화적 역사를 보도한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오슬로의 각 3지역의 몇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이웃에 관한 프로젝트도 볼 수 있다.

Lesehulen – the Reader's Den

The Reader's Den은 8살부터 12살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웹 사이트다. 이 웹 사이트는 노르웨이 현대 어린이 문학을 그림과 애니메이션, 또 소리와 참여 활동, 게임 등을 통해 선보이는 곳이다.

The Children and Youth Department – 어린이와 청소년 부서

이 부서는 오슬로 공립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과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이다. 이 Department에서는 40여 개국의 언어로 되어있는 어린이 도서를 볼 수 있다.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찾았고, 현재 아이들의 3세대 전의 아이들 도서를 찾아 볼 수 도 있다. 도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오디오 책, CD, 카세트, 비디오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료와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어린이 극장, 인형 극장, 음악 공연, 영화 그리고 이야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준다. 또 어린이 문학, 문화 그리고 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른을 위한 자료들도 찾아 볼 수 있다.

The Music Department

오슬로 공립 도서관 음악부서는 CD's, 음악 악보, 책, 영화 그리고 CD-ROM 등 의 대여가 가능하며 특히 20,000장이 넘는 CD와 12,000LP, 17,700의 악보 등 음악부서인 만큼 음악 관련 자료를 많이 소장 하고 있다.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행사나 일에 맞춰 음악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음악을 소개, 추천해주기도 한다.

공립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책, CD, 그리고 비디오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수업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

Main Circulation and Reference Department

1933년에 설립. 약 500,000 표제의 모음집. 하루 1000대여, 2000여명 방문. 500가지 정기 간행물, 120가지 신문, work station, 컴퓨터실, 무선 인터넷 사용 등

2004년 총 방문자 수는 2,542,912명이며 총 대여 수는 2,322,726이며 인터넷 방문 수는 339,761건이다. 운영 비용은 147,289,000 NOK이고 도서와 미디어 구입비는 8,900,000 NOK 총 직원 수(full time) 241명, 총 도서 수는 1,320,783책, 총 오디오 자료 수는 19,832점, 총 CD-ROM 수는 1,099, 총 음악 리코딩 수는 26,897, 총 비디오 수(DVD/VHS) 14,902점이고 약 총 인구의 50%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Bjerke Branch

Bjerke Branch는 시중심의 북동쪽 5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로 접근 할 수 있다. 이지역 인구는 3만명으로, 이민자는 현재 약 23%이며 증가추세이다.

Bjerke Branch는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소, 문화센터, 학습지역 역할과 지역의 역사

적 자원센터 기능도 수행함. 도서관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정숙 독서실, 그룹룸 및 작업장을 제공하며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를 위한 활발한 독서 발표 프로그램(book talk program)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대학 기숙사가 있다.

Bjerke Branch에서 후원자들은 책카페, 철학카페, 전시회 및 지역민 및 지역사회 관심사항을 발표하기 위한 지역 단체의 포럼과 같은 문화적 이벤트를 경험 할 수 있다.

Boler Branch - 자연의 관문에 위치

Boler Branch는 Ostmarka 산림 및 야외활동에 관한 책을 독특하게 제공한다. Ostmarka 언덕에서 쳐녀림상태인 숲과 호수를 발견할수 있어 노르웨이의 동화 같은 상상을 촉진한다. 산책길 및 조명 시설이 된 스키코스 및 스키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야외활동 기회가 있다.

Boler Branch는 젊은이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전념 한다.

학교 수업은 정규적으로 초대되며 또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위한 지역포럼과 긴밀히 협조한다.

Oppsal branch

Oppsal branch는 1년에 4-6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신문을 제작하며, 지역내 역사적 사진을 포함한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동원한다.

Boler 도서관 친구라 불리는 지역그룹은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및 협조를 위해 활동한다. 도서관 건물은 건축가 Sverre Fehn에 의해 설계되어 1972년 설립되었다. 지하철 3호선 Mortensrnd방면에서 Boler역에서 하차하면 도서관에 쉽게 갈 수 있으며, 역에서 100m거리에 있다.

Furuset Branch

Furuset Branch는 Furuset 센터에 있는 Alna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버스 노선 뿐만 아니라 지하철(Ellingsrudbanen에서 Furuset방향)으로 접근 할 수 있다. Alna는 많은 어린이가 거주하는 젊은 지역으로 인구의 약 30%가 비 서구출신 이민자들이다. 도서관은 Alna정보센터와 같이 건물을 사용한다. 이 같은 협동으로 도서관 직원은 공공 및 지역정보에 전문적이다. 1년에 22만 5천명이 방문하며 1년 대여는 7만권이다.

소수자(Minorities) 를 위한 지역 자문관 사무실이 도서관 내에 있다. 이 사무실은 그 자신 이민배경이 있는 요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도서관은 독서를 장려 하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한다. 학교수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직원들도 도서관을 벗어나 학교 내에서도 활약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학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또한 지역 내 문맹율 퇴치를 위해 노력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보유를 강조한다. 독서옹호자 (reader's advocates) 조직이 만들어져, 다양한 장소에서 이들

이 크게 읽을 수 있다. 어린이 극장, 테마 및 문학의 밤을 다른 조직과 함께 협동하여 제공한다. 도서관의 목표는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 지식 및 정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Gamle Oslo Branch

Gamle Oslo Branch는 도시중심의 바로 동쪽인 Toyen 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약 48,000의 장서와 450평방미터에 자리 잡고 있고 이도서관은 공공운송기관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버스20, 60번 및 Toyen에 정차하는 모든 지하철로 갈 수 있다.

Gamle Oslo 지역은 약 34,00명의 거주민이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0-12세 뿐만 아니라 20-40대이다. 약 36%가 이민자 출신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비서구 국가 출신이다. 도서관 풍경은 이 지역 다국적 정취에 영향 받았다.

장서는 약 14개국 언어의 책을 포함한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아랍, 영어, 불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삼미어, 소말리어, 스페인어, 타밀어, 터키어, urdu 어 및 베트남어 책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그룹의 다국적 문화는 도서관을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서 통합 및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되는 만남의 장소로 제공 되고 있다.

도서관은 픽션, 논픽션 작품 및 인터넷접근을 제공하며, 이 지역 학교 및 데이케어센터의 어린이 및 청소년그룹이 방문한다.

Roa Branch

Roa Branch는 약 70,000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Vestre Aker 지역의 중심에 있다. 이 지역인구의 반이 좀 넘는 인구의 연령은 17에서 67이다. 약 사분의 일이 어린이와 청소년이고 67세 이상의 인구는 약 5,000이다.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책대여, 영화와 음악 감상, 신문과 잡지 읽기 또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하고 이용한다. 가장 어린 이용자들을 위해서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들을 열기도 한다. 지역 그룹, 단체 그리고 역사학회 등과 함께 이벤트들을 열기도 한다. – RoBranch는 훌륭한 역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 직원들의 주최로 장애아들은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아마추어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를 매달 연다.

또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서관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공간에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Stovner and Nordtvet Branches

Stovner는 오슬로의 북동쪽에 위치해있는 활발하고 다문화적 공동체이다. Stovner 도서관은 오슬로의 대형 도서관 중 하나이며, 특히 DVD와 비디오 자료가 많은 도서관중 하나이다.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회, 공연, 도서 카페 그리고 작가들

의 방문으로 Stovner는 바쁘고 활기찬 도서관이며, 복사시설, 컴퓨터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시설, 열람실 등 많은 시설이 있다.

Nordtvet또한 오슬로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Nordtvet도서관은 오슬로의 작은 도서관들 중 하나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다. 어린 이들을 위한 도서가 특별히 많고, Nordtvet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학교 수업을 하러 도서관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한다.

Lambertseter Branch

Lambertseter Branch는 오슬로의 Nordstrand구에 Lambertseter 쇼핑센터 안에 있다. Nordstrand구는 작은-마을, 시골 분위기가 나는 지역이며 노르웨이의 가장 오래된 위성 지역이다. Lambertseter branch는 높은 대출 부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기가 많은 곳이다. 또한 지역 그룹과 가까이 일하는데 특히 Sondre Aker Historical Society는 Lambertseter도서관에 서류 모음집과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도서관 웹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이곳은 특히 예술과 관련된 문학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Majorstuen Branch

Majorstuen Branch는 오슬로 국립도서관 시스템 중 가장 큰 지부이다. 오슬로 대학 등 주요 교육 기관들이 도서관에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도시의 가장 중요한 쇼핑 거리들과도 가까이 있다. Majorstuen 브랜치는 매년 약 300,000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공중에게 매일 열려있다.

도서관의 1,350 square meter의 넓은 공간은 열람실, 컴퓨터실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용자들은 Kinoteket를 통해 도서관의 디지털 시네마에서 역사적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Senior Academy" (노인 대학)를 지역 노인 단체와 노인 자원자들과 함께 운영한다. 겨울과 가을에는 노인 자원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프랑스어 교실과 인터넷 교실이 있다.

Majorstuen Branch는 지역 19개의 초,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에게 도서관련 이야기 시간을 열기도 한다.

Oppsal Branch

Oppsal Branch는 Ostensjø 지역의 문화 센터이면서 나무 빌라와 아파트 빌딩들, 그리고 Ostensjø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Oppsal Branch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 문화 그룹과 단체들과 가까이 일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역사에 주 초점을 맞춰 도서를 모아 놓은 도서관이기도 하다. 지역 역사 단체는 미팅, 전시회를 열고 개인 또는 지역의 역사적

사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곳의 노인대학은 읽기 그리고 토론 그룹 시간을 연다. Kinoteket, 도서관의 디지털 시네마는 Norwegian Film Institute 의 영화 관람을 가능케 한다.

도서관의 대부분의 시설은 이용자위주로 낮게 설치되어있으며 유럽최대의 부자나라임에도 오래된 서가와 새로운 서가의 자연스러운 조화, 방대한 서가 공간 확보를 통한 자유롭고 편안한 도서관이용이 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실은 연령별 자료 비치와 별자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자료이용을 촉진하는 안내자료 게시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사서 개개인의 사무실이 한쪽에 마련되어있어 개인적인 연구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사무공간과 자료대출이용공간이 혼합되어있는 우리공공도서관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업무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

(2) Oslo Public library, Grnerløkka Branch (8월 17일 09:00~12:00)

역사(History) : Grnerløkka에 위치한 도서관 선물은 건축가 August Nielsen에 의해 설계되어 1914년에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도서관 사용을 위해 특별히 건축된 노르웨이 최초의 건물이며 빌딩의 신 클래식 카네기 양식은 노르웨이 최초의 양식이다.

개관당시에는 1,800권의 장서를 보유하였고 모든 책이 수일 내에 대여될 정도로 수요는 엄청났다. 며칠 내, 모든 서가가 비어 있는 상태로 도서관을 열었고, 반납된 대여 책의 수에 맞추어 개인당 대여가 혀용되었다.

도서관은 그날부터 이 지역 어린이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열망은 긴 대기줄로 나타나서, 지역 경찰의 자발적이고 친절한 지원으로 어린이들을 그룹별로 묶도록 하였다.

초창기부터, 도서관은 이야기 들려주기, 어린이 극장, 학습 및 토론 그룹, 연극 그룹 등을 제공하였다.

1918년, 2층이 준공되어 극장, 강연 및 토론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오슬로시의 선물로 그랜드 피아노가 제공되어, 콘서트 주선도 가능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2층은 주간탁아소(day-care)로 빌려주었고 이는 1990년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몇 대에 걸친 인근 주민은 Schou 장소에 있는 도서관 내 데이케어에서 지낸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전쟁 기간 중에는 도서관은 학교로 이용되었다. 1990년대에 역사는 반복되어, 2층은 독립적인 무슬림 학교로 제공되었다.

현재(Today)

오늘날, 도서관의 목적은 이 지역 문화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는 어린이 극장, 여러 나라말의 이야기 시간, 북카페, 저자와의 만남, 연속 강연 및 연주회가 있다. 도서관은 지역 내 학교, 방과 후 학교 여러

단체 및 그룹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SERIETEKET

오슬로공립도서관의 일부로 Grnerløkka Branch에 위치한 그래픽 책 전문 부서이다. SERIETEKET는 종종 만화책 또는 연속 미술이라 불리는 그래픽 책의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방문은 방문자에게 풍속화에 대한 깊이와 영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SERIETEKET는 여러 이벤트를 개최하며 종종 노르웨이나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전시회도 개최한다. 또한 어린이나 성인들을 위한 코스도 주선하며 조만간 만화영화에 대한 코스도 제공 할 것이다. SERIETEKET는 청소년이 책 읽는 것을 권장하는 도서관 중점사항의 중요한 부문이다.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에 연계하여 많은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다.

SERIETEKET는 또한 노르웨이내 그래픽북 환경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우리는 노르웨이 그래픽북 포럼, 노르웨이 연속미술 박물관과 같은 여러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도서관은 일요일도 개관하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다.

보유 내용은 약 35,000의 장서, 카세트 및 CD로 된 오디오 책, VHS 및 DVD 필름, 인터넷 기초인터넷사용 방법, 카세트 및 CD로 된 노르웨이 언어 코스, 매일 발행되는 신문, 다양한 주제 50여 정기간행물, 팩스 및 퀸터복사기(사용료 지불)등이 있다. 코스나 회합 및 강연을 위하여 후원회 및 기관들의 활용 장소 대여하기도 한다.

Oslo Public library, Grnerløkka Branch를 인솔해간 2명의 자원봉사는 방문도서관의 사서였으며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rum)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을 따라 도서관까지 안내하는 도중 강의 역사와 현재의 사용 그리고 주위의 아름다운 건물과 경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 해 주었다. 도착한 도서관은 함께 한 일행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아름다움을 연발할 정도로 오래된 정원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집과 같았고 도서관 앞까지 환영 인사를 나온 분관장의 환한 미소가 자유롭고 편안한 도서관 운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도서관은 전체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2층은 코믹전문 자료실 슬라이드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져 있었다.

1층 자료실 공간은 오래된 목재로 된 서가와 신간도서와 구도서가 함께 배열 되어있었으며 낡은 아주 오래 된 책상에서 도서관의 역사를 느끼게 해 주고 있으며 서가 상단에 조명을 바로 부착하여 자료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대출처리 후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주고 있었다. 신간과 간행물자료 제공은 우리의 도서관 서비스와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컴퓨터 기기와 인터넷 서비스, 멀티미디어 자

료 활용 등을 오히려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에 못 미치는 듯 하였다.

2층 코믹 자료실은 주제를 특성화시켜 놓았으며 특히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코믹자료의 열람과 편안한 접근을 고려해 제작한 서가는 마치 개인서점에 판매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품처럼 이용을 자극하도록 비치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폐쇄된 작은 공간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한 작은 공간의 만화방 같은 곳도 설치되어 있었고 시설을 둘러본 후에는 도서관에 대한 간단한 슬라이드 상영과 음료와 다과를 나누며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도서관 견학이 끝난 후 돌아가는 방법은 인솔자 없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도록 되어있어 자리에 익숙하지 못한 방문자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근거리 코스라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된 일이라 본다. 서울대회에서는 귀가까지도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3) Vahl Primary School Library (8월 17일 09:00~12:00)

오슬로에는 140개의 초등학교(49,645학생), 27개의 중·고등학교(11,600학생) 그리고 6개의 직업교육학교(5,100학생)가 있다. 오슬로의 학교에서는 총 125개 국어가 쓰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35%는 소수 언어 사용자이다. Vahl 초등학교는 오슬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에 있다. Vahl학교는 1897년에 3층짜리 건물로 세워졌으며 수리된 경험과 폐교된 경험도 있지만, 1997년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258명의 학생이 있고 이는 오슬로 평균 학교 학생 수인 348명보다 적다. 또 학교는 노르웨이에서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은 95% 학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24개 국어의 언어 중에는 아랍어, 터키어, 소말리어, 그리고 우르두 말이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학교에는 31명의 선생님이 있으며 그중 5명은 노르웨이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선생님이다. 1997년부터 Vahl 초등학교는 학부모들과의 협력, 문화적 활동, ICT-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학교 도서관을 만드는데 아주 활발적인 노력을 해왔다. 학교는 이러한 활동들을 담은 사진들을 웹 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으며, Vahl 초등학교는 노르웨이의 다른 학교들에게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의 모범이 되었다.

노르웨이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흥미 있는 특징은 바로 학생회, 선거에서 뽑힌 학생들이 주가 된 모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룹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미래 정치에 참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회는 학교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과 활동을 함께 한다.

The heart and brain – the library

도서관은 학교 건물 맨 위층에 있는 나무 기둥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을 새롭게 편안하고 밝은 색과 함께 수리하였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

는 이 도서관은 도서관 웹 사이트에 이런 말을 써 놓았다.

…… 학교의 뇌와 마음의 중심, 그리고 매일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이곳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책을 만나 책 속으로 안내되는, 그리고 프로젝트 숙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도서관은 3개의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코팅 기계, 이어폰, 그리고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옆에 붙어있는 ICT-room(컴퓨터실)에는 14개의 인터넷과 연결된 새 컴퓨터들이 있다. 노르웨이는 모든 레벨의 교육 장소에 컴퓨터 장비를 배치할 수 있는 풍부한 지원을 하는 나라이며, 오슬로시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지식의 틈을 좁히는 학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Vahl 초등학교는 정부에서 특별히 ICT-activity를 위한 지원을 받은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오슬로의 3개 초등학교 중 하나이다.

The teacher-librarian

Gry Enger는 지난 4년 동안 도서관의 총 관리자 자리를 맡았다. 국립 드라마 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선생님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드라마관련 일을 해왔다. 하지만 무슬림 유치원에서 노르웨이어를 가르쳐보라는 제의로 시작해 유치원 옆에 있는 Vahl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 학교 도서관을 짓게 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도서관의 선생님,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형적인 선생님도 아닌, 전형적인 사서도 아닌 새로운, 선생님-사서가 되어 다문화적 분위기의 Vahl학교 도서관을 개선, 개발하였다.

Books and theme boxes

도서관의 도서 컬렉션은 노르웨이어의 타이틀도 있지만, 우르두어, 아랍어 그리고 터키어로 되어있는, 특히 좀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한 타이틀도 있다.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동시에 지식과 정보의 중심에 있게 하도록 안내해야한다. 하지만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한다. 도서관은 새로운 배움의 방식이 시험되는 교실의 확대나 워크숍으로 간주된다. 이중 더욱더 능숙한 노르웨이어를 쓰는 것과 유용한 언어 사용에 강조를 두고 있다. 또, 도서관에는 아홉 개의 "theme box"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학생들이 각 작가나 이슬람, 기독교 또는 불교 등 과 같이 주제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는 박스들을 말한다.

Library routines

도서관은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한다든가, 코트나 재킷 등은 정해진 옷장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을 말한다. 연극 리허설일 경우에만 제외하고는 규칙들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강조되고 있다. 누구도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되며, 모두 다 어떠한 활동 이든지 하나의 활동은 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도서

실 일을 도우거나, '비밀 독서 코너'에 있을 수 있고, 픽션을 읽거나, 컴퓨터 코너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스캐너나 코팅 기계 등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theme boxes'나 인형과 같이 인형극 놀이를 하거나, 독서 테스트 수료증을 완성하기 위해 일 할 수도 있다.

Story telling

스토리텔링은 주로 2학년에서 5학년(7~12살)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실 안에서도 진행 된다. 대부분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시간이 마련되는데, 가끔씩은 조금 더 작은 그룹을 위해 마련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의 주 목적은 천천히 스토리텔링의 단어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아이들이 노르웨이어를 조금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스토리텔링 시간을 아주 즐거워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문학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1998년의 교육 법령은 노르웨이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등학생들에게는 노르웨이어를 어느 정도 거칠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정상적인 노르웨이 교육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기 전까지는 모국어와 노르웨이어를 동시에 사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르웨이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모국어가 아이의 전체 지적인 개발과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1997~2003년 사이에 노르웨이의 초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약 41,000에서 53,000으로 늘었다. 현재 Vahl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노르웨이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스토리텔링 시간 중에 도움이 필요할 학생들을 위해 5명의 외국어 선생님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노르웨이어 사용 능력이 심각하게 저조 된 아이들이(Vahl 학교는 조금 나은 실정이라 하지만) 각 학년에 약 5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교육부는 1998년의 교육 법령을 폐지하는 방침을 의회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Computerization and publishing company

도서관과 학교는 모두 기술적 시설이 잘 갖추어져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숙제를 위해 인터넷에서 그림을 다운받아 비상업적인 용도로 숙제에 쓸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리뷰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도 이를 위해 많이 쓰인다. 2003년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출판사(Leseforlaget)를 세워 벌써 20여개의 책을 출판했다. 또한 여러 비디오 작업을 해 온라인으로 다른 학교와 도서관에게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Book certificate and book police

4학년(11살)부터는 모든 학생이 가지고 싶어 하는 도서 수료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료증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에 능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한다: '작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야 하며, Dewey number에 맞춰 주어진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하고, 전화번호부와 백과사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학년부터 7학년의 각반에는 두 명의 book police가 있다. Book police는 아주 인기가 많은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직접 써서 제출해야 한다. Book police로 임명이 되면, 뺨간색의 book police 배지를 달아야 하며 학교를 도서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도서관으로 반납해야 할 도서들을 회수하는 도서관의 조수들로 일해야 한다.

Drama

노르웨이에서 드라마는 중-고등학교와 선생님 트레이닝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과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음악과 미술과 같이 드라마는 의무적 교육이 아니며 영어나 노르웨이어, 그리고 종교 과목에서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개될 뿐이다.

Conclusion

오슬로는 더욱더 다문화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과 교육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다. Vahl 초등학교와 학교의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며 오슬로의 평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사서직에게는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학교 도서관들은 드라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교육법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아야한다. Vahl 초등학교의 혁신적인 teacher-librarian 컨셉이 좋은 예다.

방문자를 안내한 자원봉사자는 전형적인 노르웨이의 바이킹처럼 보이는 마음씨 좋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학교까지의 주변경관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중동 이슬람 및 동남아시아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지나서 학교도서관 방문 후에 숙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학교는 방학 중이어서 소수의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이용 홍보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 연극자료를 작성한 중동,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가 도서관방문을 안내하고 환영해 주었다. 간단한 도서관 활동자료를 보고 방문자간의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나눈 후 다락방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학교도서관을 보았다. 환하고 구석구석 아이들이 좋아할 인형들 원색의 꽃과 같이 밝은 표지의 책들, 어린이들이 만든 독후활동 기록과 소책자들 단계별로 작성된 독서퀴즈질문지들, 연극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 작은 공간을 최대로 어린이들이 편하고 흥미롭게 이용하도록 꾸며 놓았다. 그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친구처럼 혹은 동료처럼 아이들에게 협조를 받아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서의

열의가 작은 학교도서관을 빛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IFLA의 공식행사를 마치고 인근 스칸디나비아 3국 중 2개국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문화유적지를 둘러보았다.

《IFLA대회 참가 사진》



오슬로 스펙트럼 전시장



오슬로 스펙트럼 전시장 한국 부스



탁본체험 행사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신관 개관식



개관식에 참석한 King Herald V 국왕



공공도서관 세션



민속박물관 환영 행사



오슬로 공공도서관에서의 환영 행사



Oslo Public Library



Grünerløkka branch



Grünerløkka branch 도서관 내부



Grünerløkka branch 코믹자료(2F)



Grünerløkka branch 코믹자료(2F)



Vahl 초등학교 도서관



Vahl 초등학교 도서관



IFLA 회장의 이임 연설

3. 스웨덴 및 핀란드 도서관 연수

가. 스웨덴 국립 도서관(The Royal Library—National Library of Sweden)

■ 방문국 스웨덴의 일반 현황

수 도	스톡홀름 (Stockholm : 인구 178만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물위의 아름다움' 이란 이름이 늘 따라 다닌다. 발틱해와 마라렌(Malaren)호수가 만나는 곳에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도시 한가운데서도 수영과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2만 4천개나 되는 섬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박물관인 스칸센(Skansen) 및 60여개의 박물관과 왕족이 살았던 드롯트닝홀름(Drottningholm)섬은 방문객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다.
면 적	450,000평방 Km (한반도의 약 2배)
인 구	900만명(2004.8)
인 종	스웨덴인(95%), 랩(Lapp)족 (0.2%)
언 어	스웨덴어 (Swedish)를 사용하며 영어와 독일어도 널리 쓰인다.
종 교	루터교 (94%), 카톨릭(1.5%) 등
기 후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하고 타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북극권 온대성 겨울은 길고 일조시간이 짧으며 추운 편, 여름은 짧고 일조시간이 길며 시원한 편 여름 평균기온은 16.6°C 겨울의 평균기온은 -0.6°C이다.
지 리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노르웨이와 양분해 남동부를 차지하고 있고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넓고 유럽에서는 네번째로 넓은 나라도. 북동쪽은 핀란드와 서쪽은 노르웨이와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 독일과 마주 보고 있다
역 사	북부 게르만인의 일족인 고트인과 스비아인이 스웨덴에 정착해 융합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이킹 활동이 왕성했던 9세기경부터다. 하지만 11세기에 바이킹 활동이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가 탄생되었다. 이후 스웨덴은 유럽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한때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는 등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같은 북유럽 국가들끼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 문화	입헌군주제<칼 구스타프 (Carl XVI Gustaf) 국왕>, 내각책임제, 매우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협력성은 강하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보인다. 1인당국민소득 : 28,716미불(2003), 국내총생산 (GDP) : 2,690억미불(2003), 화폐단위 : Swedish Krona(SEK)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 늦다

The Royal Library는 16세기와 17세기 스웨덴 왕들의 도서 모음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1661년 Royal Ordinance(왕궁의 법령)는 스웨덴에서 인쇄되는 모든 책의 사본을 Royal Library로 옮기라는 명령을 했다. 16세기에 인쇄되는 책의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Royal Library가 너무 비좁아져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870년 건축가 Gustav Dahl은 새로운 Royal Library를 설계하는데 임명되었다.

Dahl의 도서관 건물은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길고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인 19세기 전형적인 잘 계획된 공공 구조물이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생각되는 독서실과 책장, 그리고 통풍, 화재위험과 다른 실제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영감을 받아 도서관의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은 전보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Dahl은 런던과 파리에서 공부하던 시절 중 휘어진 철을 건축에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인상깊이 보았다고 한다. The Royal Library는 더 큰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스웨덴의 최초의 건물들 중 하나이다.

1877년 가을, 도서관은 책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도서관건물은 계획보다 조금 단축되어서 지어졌고, 이로 인해 도서관이 처음 열면서부터 책을 수납할 공간이 모자랐다. 1926년에서 1927년, 건축가 Axel Anderberg의 디자인으로 도서관은 건물 끝부분에 공간 연장을 했다 이것은 끝내지 못한 연장공사의 첫 단계였다. 계속 불어나는 도서관의 소장 도서와 점점 늘어나는 방문객들로 인해 Royal Library는 계속적인 공간부족 문제에 시달려야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현존하는 건물을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해결해왔다.

The Royal Library today

1992년에서 1997년, 도서관의 대규모 수리와 공간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두 개의 큰 도서 보관 시설은 둘 다 5층 건물로, 공원 아래 깊숙이 바위 방에 지어졌다. 이들은 분리된 두개의 건물이었으며 건물 건축을 위해 뚫은 바위 동굴에 지어졌는데 중심 기둥을 통한 승강기로 본관 건물과 연결되어 1995년부터 사용되었다. 본관의 도서보관소들은 도서관 직원들에 의해서 사무실로 바뀌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문을 읽기위한 방, 연구, 조사를 위한 방, 그리고 특별 독서 방이 1층에 마련되었다. 예전의 열람실과 입구 흘은 역사적 건물로 남아 잘 보존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은 1960년대 만들어진 지하 도서 보관실인 "annexe"에 출입이 허용되었다. Jan Henriksson의 건축 회사는 annexe를 3개의 층으로 나누어 전시회장, 강당 그리고 축사 필름 방을 만들었다. Annexe로 향하는 계단은 아래 세계를 향하고 있는 활 모양의 유리로 덮여진 길을 통해 햇빛을 받는다.

Dahl의 최초 도서관 건물에서 함께한 도서관의 유리와 철 연장들을 20세기에서의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공생을 보여준다.

Artistic Design

The National Public Art Council은 분리되어 있는 각 도서관 건물의 예술적 장식을 4명의 예술가들에게 맡겼다. 이로 인해 annexe로 들어가는 계단은 Nils G의 작품으로, 정보 홀은 Harald Lyth에 의해 전기 조종 장치를 가리기도 하는 두개의 유리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장식 되었고, Stenqvist의 하늘색과 흰색의 태피스트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조와 관련해 도서관의 주변 환경도 개조되었다. 도서관 건물과 공원이 통일성을 갖도록 Humlegarden의 오래된 산책길을 도서관 주변의 예술적 디자인과 연결시켰다. Sivert Lindholm은 입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시켰고 건물과 같이 넓은 둥그런 앞마당은 낮은 화강암 테라스 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또 흰 검정 철 램프들과 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들은 도서관 주변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Einar Hoste는 주변 공원과 북쪽의 근대적인 연장 건물을 통합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다. 유리로 덮힌 길의 높이 차이는 포장 돌과 Humlegarden의 잔디밭을 만나는 낮은 테라스의 잔디로 눈에 띄게 만들었다. 위를 향하는 녹슨 표시판들은 국가 시스템에 맞추어 놓여졌다.

나. 핀란드국립 도서관

■ 방문국 핀란드의 일반 현황

수 도	정식명칭은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이다. 핀란드어로는 수오멘 타사발타(Suomen Tasavalta), 또는 수오미(Suomi:호수의 나라)라고 한다. 보트니아만(灣)과 핀란드만에 면하고, 옛 소련과 스웨덴 사이에 위치한다. 수도는 헬싱키(helsinki 56만명)로 개성 있는 근대적 건축물이 전통적인 교회 건축물과 잘 조화되어 청결한 도시를 이루며, '발틱의 아가씨'라고 부른다.
면 적	338,000km ² (한방도의 약 1.5배 tkaf lqa 75%, 경작지 8%
인 구	521만명(인구밀도 : 17명/km ²), 도시인구 : 전체 인구의 62%
인 종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기타 사미족 및 러시안인
언 어	핀란드어(Finnish, 93.5%), 스웨덴어(Swedish, 6.3%), 기타(0.2%)
종교	루터복음교(91%), 그리스 정교(1.3%)
기후	북극온대성, 헬싱키 평균기온 : 여름(7월) 16.4°C, 겨울(2월) -3.6°C
지리	숲과 호수의 나라로서, 전국토의 75%가 삼림이고 전국토의 10%가 호수(약 19만개)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으로부터 압박과 투쟁을 많이 겪음. 600년 간 스웨덴의 일부, 100년간 러시아의 속령 2차 대전 당시 소련과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됨 핀란드 인종은 우랄 산맥 지역인 동쪽에서부터 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짐.
사회 문화	국가원수는 할로넨(Tarja Halonen) 여성대통령, 화폐단위 : EURO, 인당 국민총생산 : 2만 378\$(2003). 국민성이 "교과서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필요한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주어진 규정을 잘 따르는 관습이 있음. 이동전화 및 인터넷 보급율이 인구대비 세계 제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대단히 활발하고 남녀평등이 세계적으로 잘 실현된 나라(여성 참정권 1906년 부여)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늦다.

핀란드국립도서관의 장서들은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진귀한 장서들이 수집되어있

었으며 마이크로필름자료와 일반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오픈시간은 월~금요일이 9시 ~ 20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에서 16시까지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하게 갖은 주변국의 외침이 있었는데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가 장서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전쟁과 화재에 대비한 도서관장서의 보호 이동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내부는 고서관리 문제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서가의 배치는 낮고 곡선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도서관내에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cafe가 설치되어 있었다.

City Campus의 도서관들

Multiform City Campus는 헬싱키 대학의 가장 큰 캠퍼스이다. 학부 도서관들, 헬싱키 대학도서관, 또 대학생 도서관은 City Campus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대여 서비스 외에도 스터디 시설, 독립적인 정보검색을 도우는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HELKA,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로 헬싱키 대학 도서관들의 자료에 대한 정보와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 자료 정보는 각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City Campus의 도서관 서비스

대학(학부)생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와 헬싱키 대학의 City Campus 학부들 (신학, 법학, 예술, 사회과학, 행동과학)의 기초 혹은 중간레벨의 스터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학자, 상급 스터디를 위한 자료들은 학부 도서관과 핀란드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도서관 서비스도 복지 분야의 하나로 각 지방 자치단체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역 내에 도서관을 하나 이상 설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이 도서관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인들의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에 관한 복지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핀란드는 각 동마다 하나씩 도서관이 있는 편으로 도서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 또한 효율적이다. 단순히 여러 서적만이 아니라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인터넷 사용과 검색이 가능하고, 테이프, CD, 비디오 등 각종 영상 매체도 비치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책 대여는 10권, 기한은 한달이다. 그러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곳에서 책을 쉽게 빌려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공공도서관 체제가 가장 우수한 나라이다. 인구 3천 1백명에 공공도서관 1개소의 비율로 세계 1위. 수도 헬싱키 북방의 계획 도시 로바니에미 시립도서관이 특히 유명하다. 일개 도시의 시립도서관인데도 예컨대 '먼 나라'인 한국 자료 수집량이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대비: 서울, 주민 33만 명에 도서관 1개소, 전국 평균--주민 12만명에 공공도서관 1개 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국가도서관 사진》



스웨덴 국립 도서관



스웨덴 국립 도서관



핀란드 국립 도서관



핀란드 국립 도서관 내부

4. 맷는말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rum), 라디슨 SAS 플라자(Radisson SAS Plaza)에서 열린 제7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대회와 스칸디나비아 2개국 스웨덴, 핀란드의 국가도서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신구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공존하는 곳이 도서관임을 공감하였다. 또한 국제대회임에도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도 않았지만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준비를 하였고 참가자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하지 않은 균형을 갖춘 대회운영 방식을 보았다. 대회 참가 중 유럽의 실용주의 문화가 창의적이고 자유스러운 발상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방문도서관의 사서들의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자신감과 열정적인 자세는 차기 대회 개최국의 도서관 사서로서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환경보전이 잘되어있어 주변 환경이 곧 공원이면서 현존 건물이 곧 역사의 한 유적이 되고 있는 북유럽 3개국의 도서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도 역사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축 당시부터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느꼈다. 획일적인 현대적 건물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관광명소이며 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역의 문화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계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도서관이 마치 편안한 내 이웃처럼 가까이에 있어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가가 도서관의 정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지적교육수준의 세계 최대의 부국, 가장 살기 좋은 나라(노르웨이), 공공도서관 이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 문맹율이 가장 낮은 나라,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핀란드)로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가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한 결과라 본다.

도서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3개국이 지금 경제·문화적으로 세계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지원을 토대로 한 도서관과 교육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의 공조의 산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을 대주제로 2006년 서울 COXE에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72차 IFLA 대회에서 우리도서관과 사서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자극, 산 경험을 하고 왔다. 서울대회에서는 아시아 주변국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우리나라의 풍부한 인적·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5개 공식 언어(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외의 일본어와 중국어의 통역이 제공되어 서구 위주의 대회가 아닌 동서의 균형을 안배하여 도서관인들의 역대 최대의 참여율과 자유스러운 의견개진으로 인한 발전적인 행사를 기대해 본다. 도서관이 국가 미래의 희망이다.

여 백

덴마크 왕립 도서관을 다녀와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서서 / 김 영 우

왕립도서관의 개요
왕립도서관의 서비스

여 백

덴마크 왕립 도서관을 다녀와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김 영 우

청결하고 아름다운 북유럽의 항구도시 코펜하겐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르네상스식 건물이 즐비하다. 게다가 푸른 녹지와 유서 깊은 궁전 그리고 안데르센이 사랑한 뉘하운 항구와 인어공주 동상 등 너무나도 둘러볼 곳이 많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왕립도서관이 있었다.



깨끗한 도시·고풍스러운 도시 코펜하겐, 슬로츠홀멘섬에는 왕립 도서관이 있다. 크리스티안보르그성을 지나 도착한 왕립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눈에 띈 것은 왕관 밑에 책이 쌓여 있는 모습을 지닌 왕립도서관 로고였다.

덴마크 공공디자인과 콘트라폴크트사가 제작했다는 전통 왕관의 이미지는 전통적 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듯하다. 웅장함을 보여주는 건물에서부터 “세계의 도서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으며 건물의 중앙 홀과 길게 늘어선 두 줄의 에스컬레이터는 선의 조화로 화려함을 더했다.

왕립도서관의 건물은 과거와 현재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의 배치(내부/외부)는 크기가 다양한 수백만 권의 책과 열람실내의 컴퓨터 배열에 압도된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갖게 하기도 했다.

1. 왕립도서관의 개요

국가 도서관으로서의 왕립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이 엄청난 문화재들을 학자와 학생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도서관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왕립도서관의 주 모토는 보존(Preservation), 사용(Use), 그리고 체험(Experience)이다.

가. 역사

크리스티안보르그(지금 의회)성 맞은편에 위치한 왕립도서관은 1648년경 덴마크 왕 프레드릭 3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왕립 대학도서관으로 시작하여 1700년경 국

가도서관으로 1793년에는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1728년에 코펜하겐의 화재로 책과 원고가 훼손되었지만 빠르게 재건되었고 1906년에 슬로츠홀멘(Slotsholmen)섬에 현재의 건물인 블랙 다이아몬드(The Black Diamond)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열게 되었다.

나. 위치

P.O. Box 2149
DK-1016 Copenhagen K
Det Kongelige bibliotek The Royal Library

다. 장서

북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 도서관인 왕립도서관은 수백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키에르케고르 자필 기록물과 덴마크의 문학과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데르센의 원고 필사본, 편지가 보관중이다.

책 - 4,768,082권
복사본 - 155,537권
음악문서 - 281,210
그래픽문서 - 11,219,772



The Royal Library (The Black Diamond)



왕립도서관 중앙홀

2. 왕립도서관의 서비스

가. 세 서비스 지역을 가지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 (1) 인류를 위한 도서관 Amager
- (2) 사회과학과 법률을 위한 도서관 Fiolstraede
- (3) 국가도서관의 수집에 대한 조사를 위한 도서관 Slotsholmen

나. 열람실

도서관에는 6개의 열람실이 있으며 모두 Slotshomen에 위치하고 있다

(1) 서쪽 열람실(Reading Room West)

- 가장 큰 열람실로 160좌석과 43,000권의 책
(인류와 신학 관련 자료 열람실)

(2) 동쪽 열람실(Reading Room East)

- 130좌석과 6,000권의 책(신문과 정기간행물 마이크로 필름자료 열람실)

(3) 북쪽 열람실(Reading Room North)

- 100좌석 (사회과학 법률 자료 열람실)

(4) Centre for music and Theatre/Centre for Orientalia and Judaica

- 음악과 극 부분 동양인과 유대관계 자료 열람실

(5) Centre for Manuscripts and Rare Books

- 원고부문을 수집 공유되는 열람실

(6) Centre for Maps, Prints and Photographs

- 지도와 사진, 인쇄를 위한 열람실

다. 열람시간

(1) 자료대출실

월요일~금요일 10:00~17:00 토요일 10:00~14:00

(2) 서쪽열람실(조사열람실)

월요일~금요일 10:00~21:00 토요일 10:00~19:00

(3) 동쪽열람실(신문과 정기간행물)

월요일~금요일 10:00~19:00 매달 첫 번째 토요일 10:00~14:00

(4) 북쪽열람실

월요일~금요일 10:00~17:00

(5) 센터열람실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수요일 12:00~19:00

(6) 전시실

월요일~토요일 10:00~19:00

(7) Bookstore(서점)

월요일~토요일 10:00~19:00



열람실



도서관 내 휴식공간

라. 문화를 위한 공간 Black Diamond

해안가 위의 거대한 블랙 다이아몬드의 건물은 견고하고 투명하며 접근하기가 쉬운 요소를 지닌 건물로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크고 다양한 국가적 수준의 전시회와 1839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인 사진 역사를 지닌 50,000점의 사진이 있는 사진박물관, 일러스트레이션박물관이 있으며 회의, 강연, 프리젠테이션, 콘서트 등 문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The Queen's Hall은 왕립도서관에서 408석을 지닌 가장 큰 홀로 비디오 투영기, 필름 스크린과 최신의 시청각 보조기구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모든 연주(실내악, 재즈음악 등)를 망라한 콘서트홀로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왕립도서관 문화클럽인 다이아몬드 클럽은 이벤트, 강연, 콘서트 전시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가진다. 회원에게는 무료로 전시회를 가질 수 있고 콘서트나 서점과 레스토랑을 이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 가능하다. 클럽 잡지는 매년 4번 발간되며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블랙 다이아몬드 행사를 제공한다.



마. 전자도서관

문이 닫힌 시간에도 왕립도서관 웹사이트인 www.kb.dk를 통해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전체의 도서관 안에서는 휴대용 개인 컴퓨터를 위한 무선 접근이 가능하며 열람실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이용자들은 동시에 같은 기사와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왕립도서관 IT전략과 디지털 정책은 덴마크와 세계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주요 국가보고와 교육에 관한 원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문화유산을 확장시

켜 개방하는데 목표를 둔다. 왕립도서관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매년 2.3mil. 정도라 한다. 총 문서 배달의 70%이상은 전자출판물의 다운로드의 형태로 일어나며 도서관 대출의 50%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서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대중의 IT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늘렸다고 본다.

- o Rex – 온라인 카탈로그
- o Elektra – E-journal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 전자자료 수집
- o ADL – 고전 덴마크문학 작품 연구 웹사이트
- o The National Photobase – 온라인을 통한 국가사진자료



검색대



인터넷부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인생 50년형에서 인생 80년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회보장과 복지국인 나라를 대표한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인간 생애에 걸친 학습을 계획화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 이외에 가정 또는 사회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방문하게 된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게 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의 기쁨과 아울러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간 지역주민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함께 모여 대화하며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미래사회의 평생교육문화를 창출하고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여 백

싱가폴, 일본 도서관 연수보고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 강 미 자

- 1. 연수 개요
- 2. 연수국별 도서관 운영현황 및 특징

여 백

싱가폴, 일본도서관 연수보고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강 미 자

1. 연수 개요

가. 목적

- 외국 선진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통해 각종 첨단 정보서비스의 도서관 업무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선진관리 기법을 현장 체험 함으로써 현장직원의 전문성과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도서서비스 제공

나. 연수 인원 : 총 사서 12명

- 공공도서관 : 11명
- 국립중앙도서관 : 1명

다. 연수국 및 현장체험 도서관

- 싱가폴 : 뉴국립도서관, 오차드도서관, 우드랜드도서관
- 일 본 : 국립국회도서관, 도쿄도립중앙도서관, 도쿄대학도서관

2. 연수국별 도서관 운영현황 및 특징

가. 싱가폴(9.7~9.10)

(1) 방문기관

(가) 뉴국립도서관(New National Library) – 싱가폴 대표도서관

1) 일반현황

장 서 수	7,185,881권 (잡지:28,071종)	
규 모	연전평 58,783m ²	16층 규모
연간이용자	30,802,906명	
직 원	850명	

2) 운영내용 : 싱가폴 도서관 정책 및 정보서비스 제공

(나) 우드랜드도서관(Woodlands Regional Library) – 쇼핑센터, 금융기관 등이 있는 건물 내

1) 일반현황

장 서 수	342,539권	
규 모	연건평 11,000m ²	지상4층, 지하 2층
연간이용자	4,598,016명(일평균 8,000명)	
직 원	36명	

2) 운영내용 : 정보서비스 제공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다) 오차드도서관(Orchard Library) – 싱가폴 중심부의 백화점 내

1) 일반현황

장 서 수	115,000여권
규 모	1,919sqm
직 원	7명

2) 운영내용 : 정보서비스 제공 및 성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현황 : 뉴국립도서관(1), 지역도서관(2), 커뮤니티도서관(20), 어린이도서관(33), 그 외 16개 도서관

* 싱가풀은 도시 국가로서 면적은 646km², 인구 304만명으로 72개 공공도서관 운영(서울시 : 면적 604km², 인구 1,030만명, 46개 도서관 운영)

(3) 싱가풀도서관 특징

- 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일원화 :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계층적 구조하에 도서의 중앙 집중수서와 관리: Library Supply 시스템(분류·정리·전산시스템)과 홍보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적 집행
- 특성화 서비스 :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을 특화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도서 서비스 제공
- 차별화된 프로그램운영 : 지역도서관마다 계층별행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간 중복업무는 피하고 상호 협력 및 보완관계 유지
- 이용자 중심 서비스 : 우체국과 연계하여 어디서든지 반납이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편안한 도서관 : 친환경적인 도서관 및 에너지 절약형 도서관 건축

나. 일본(9.11~9.14)

(1) 방문기관

(가) 국립국회도서관

- 일본 국가 대표도서관

1) 일반현황

장 서 현 황	도서: 8,145,191권, 잡지: 28,071종 지도: 442,742장. 필름: 412,097장 마이크로피시 : 7,262,149장
연간이용자	573,907명 (일평균 2,235명)
직 원	939명

2) 운영내용 : 입법보좌 기능 및 일본 도서관 정책과 정보서비스 제공

(나) 도쿄도립중앙도서관

1) 일반현황

장 서 현 황	1,487,042권
연간이용자	573,907명 (일평균 2,235명)
직 원	105명

- 중앙(도쿄)-지역도서관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도쿄 : 3개의 중앙도서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 도쿄중앙 :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자료 조사, 도서관 미정비 지역 지원서비스, 자료 보존 등

(다) 도쿄도립타마도서관

1) 일반현황 (아동, 청소년 도서관)

장 서 현 황	650,000만권
아동,청소년자료	146,000권

2) 운영내용 : 타마지역의 향토자료 및 아동-청소년자료 수집·보존

(라) 동경대학도서관

장 서 현 황	830만권
자료구입비	년간 15억엔
대출 책수	년간 33,000권

(2) 도서관 현황 : 국회국립도서관(1), 지역도서관(66), 커뮤니티(1,543), 그 외 945개 도서관

* 일본 : 면적 37만 7,873km², 인구 1억 2,754만 명, 2,759개 도서관 운영

한국 : 면적 9만 9,373km², 인구 48,583만 명, 487개 도서관 운영

(3) 일본도서관 특징

- 역할의 일원화

국회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현마다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철저한 역할의 분담 및 연대로 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

- 중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의 협력체계

중앙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을 지원하고 지역도서관은 각 지역의 고유의 기능에 따라 각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협력체계>

- 주로 1개 중앙도서관과 10여개의 지역분관으로 구성
- 지역의 중앙도서관 : 자료수집, 정리, 중앙관 협력업무.
- 지역 분관 :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업무 수행
- 향토자료 수집 : 각 도서관의 지방 향토자료와 행정자료의 철저한 수집 및 보존
- 자료의 보존 : 행정자료, 일반자료 및 잡지, 아동도서 등 자료의 보존 기능 확대
- 연구지 발간 : 도서관 기능과 더불어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 조사, 연구를 통한 도서관 (타마도서관 :아동 및 청소년 연구지 발간) 연구지 발간

중앙도서관, 지역도서관, 학교도서관간 유기적인 체제구축 및 역할분담을 통한 도서관서비스의 극대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연수를 마치고

6박 7일간의 해외 도서관 견학 !?

우선 깨끗하고 아름답게 설계된 도서관, 박물관을 연상케하는 다양한 전시물,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다양한 공간과 주변 환경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또한 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설치된 정원과 건물전체가 유리로 되어

외벽의 햇빛조절기에 의한 빛의 여과 등 고객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모습들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도서관이 위치하여 도서관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싱가폴 도서관의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한다.

우리와 비슷한 경직성을 가진 일본 !

일본 세 곳의 도서관을 견학하면서 느낀 점은 자료의 보존이란 생각이 들었다. 잡지까지도, 68년에 개관한 국회국립, 73년에 개관된 동경도립의 보존실, 내가 보기엔 아직도 향후 20년 동안의 자료를 소장 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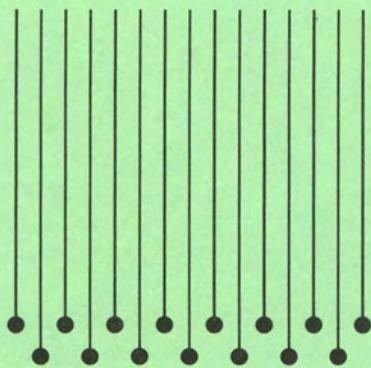
성남도서관 ! 현재 장서점검 중 !!??..... -_-;;

40여만 권의 소중한 장서가 좀 더 그 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
해외 견학 !

사서에게 도전과 숙제를 안겨주지만

그 도전과 숙제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하는 계기가 아닌가한다
우리 모두 그 발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 백



교육연수보고

여 백

현장실무 적응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 이 선 화

1. 서 론
2. 토의주제별 해결방안
3. 결론

여 백

현장실무적응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 이 선 화

1. 서 론

21C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정보획득의 개념이 소유에서 정보로의 접근 또는 공유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접근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규사서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의 성공도는 다양한 정보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신규사서는 현장에서 정보접근이 원활하지 못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사서가 자신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분임에서는 사서가 실질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정보부재로 인한 신규사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사서 지식iN 운영, 경기도사서연구회(경사연) 활용 그리고 스텝매뉴얼 구축이라는 3가지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2. 토의주제별 해결방안

가. 토의주제 1

토의주제	실시간 정보획득을 위한 "사서지식iN" 운영
------	--------------------------

(1)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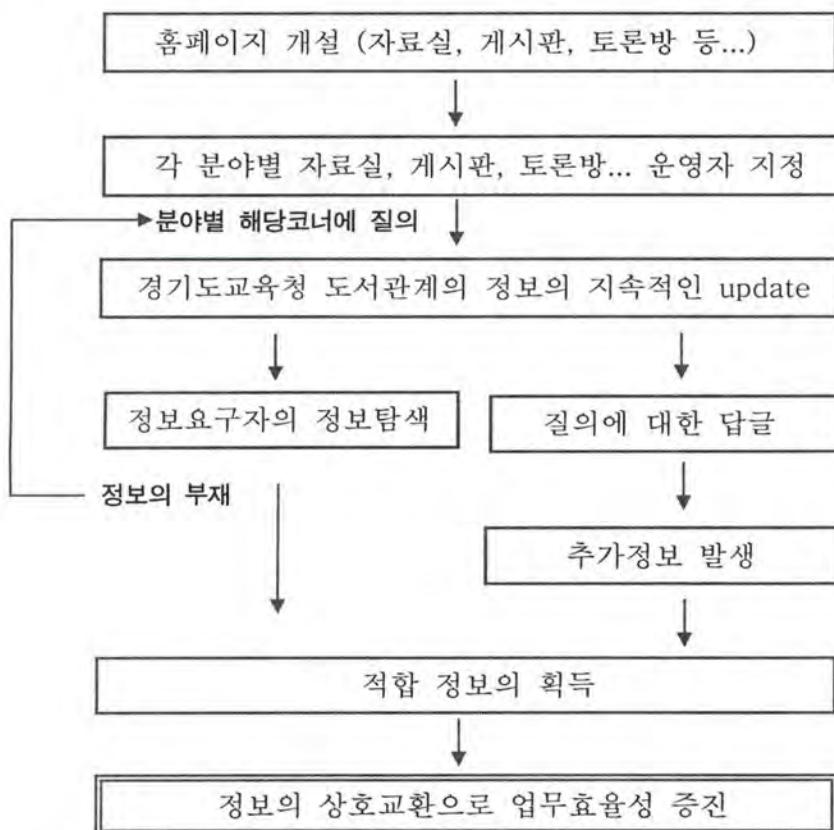
직무수행에 있어 신규발령자는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에만 의존한 채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역교육청에서 혼자 근무하는 신규사서의 경우는 업무진행시 적절한 질의상대를 찾는 것은 물론이며 즉각적인 해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고자 하여도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이버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무지역	인원수
고양시	1
과천시	4
광주시	2
성남시	2
여주군	1
연천군	1
용인시	1

< 2005년 신규사서 근무 현황 >

- 사서지식iN 운영방안 -



(2) 해결 방안 및 활용 방법

정보사회를 주도할 전문사서가 되기 위해 “사서지식i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교류의 장인 사이버공간을 개설하고자 한다.

* 개념 : 업무수행시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 사서지식IN 활용방법 -

- 정보품앗이
 - 회원가입 후 정보를 업로드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회원등급제
 -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업로드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 ex) 달걀사서 ⇒ 병아리사서 ⇒ 영계사서 ⇒ 장닭사서
- 지식정보왕 선정
 - 한달 기준으로 운영자가 많이 이용된 정보를 선정하여 회원들의 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보제공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3) 기대효과

신규사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업무관련DB 구축은 신규사서 뿐 아니라 후배사서에게도 현장에서의 실무적용에 있어 이용가치가 높으며 업무표준화에도 도움이 된다.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선배사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 토의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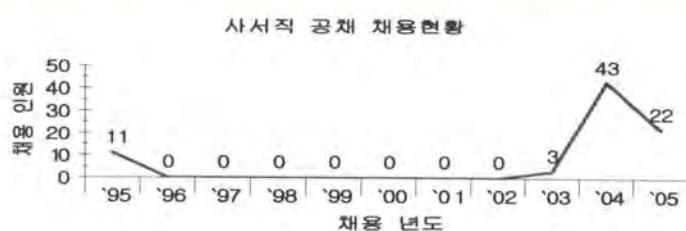
토의주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사서연구회” 조직 활용
------	---------------------------------

(1) 문제점

신규사서채용의 불규칙성과 광범위한 발령지, 지역 교육청과 공공도서관 업무의 이원화된 구조 등으로 발생한 선후배간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와 소속감의 결여 등의 문제는 신규사서의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표 1. <신규사서 채용현황>

년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인원	4	11	0	0	0	0	0	0	0	3	4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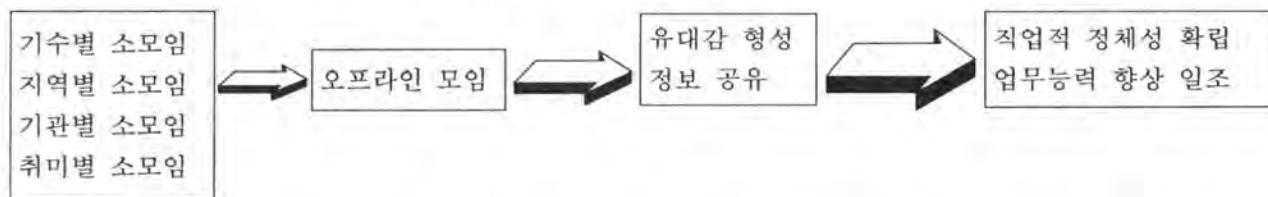
위 표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규사서 채용현황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 표를 보면 1994년 3명, 1995년 11명의 채용이 있었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채용이 없다가 2003년 3명, 2004년 43명, 2005년 22명의 채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채용의 공백은 기존사서와 신규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중간사서계층의 부재를 가져와서 사서들 간의 교류 장애와 유대감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외에도 순환발령으로 인한 전임자의 부재, 작년부터 시작된 지역교육청과 공공도서관 업무의 이원화된 구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 등은 선후배간의 교류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신규사서들 중에는 선배와 동료도 없이 기존의 업무와는 다른 학교도서관지원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사서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의 문제점까지 가져왔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서들 역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2) 해결방안 및 활용방법

: 친목조직(경기도사서연구회)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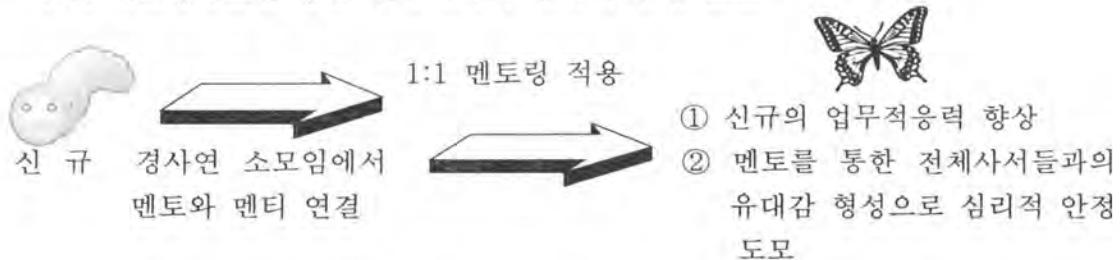
(가) 경사연 조직과 소모임의 활성화



현재 신규사서들의 경우 경사연에 자동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사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족과 가입 후에 모임이나 활동의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상의 경사연카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강제력이 없고 활성화되기 힘든 전체 모임보다 사서들 서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기, 선배사서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사연 조직의 재정비와 전체모임이 어려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기존사서들과 신규사서들의 세대적 특징을 살린 소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사서들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의타심을 버리고 기존사서들의 협조아래 우리 신규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조직을 통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기존사서와 신규사서 사이의 채용공백에 따른 정서적 고리감을 줄이고 친밀감을 돋독히 할 수 있다.

(나) 멘토링제도를 통한 신규사서의 심리적 안정 도모



멘토링제도란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을 지도·코치·조언하며 잠재된 실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멘토(선배사서)와 멘티(신규사서)가 직접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접지역 선배와 후배가 팀이 되어 후배가 담당 업무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언을 얻음으로서 업무의 제반지식과 스킬을 보다 빨리 습득하여 단기간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경사연의 기관별 소모임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 결과 담당업무 외에도 상사나 동료사서들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에티켓이나 대인관계 적응력을 키워 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선배사서를 통한 전체사서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외지에 홀로 근무하는 신규사서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기대효과

경사연을 바탕으로 한 사서들의 다양한 소모임은 신규사서채용의 공백으로 인한 기존사서와 신규사서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유대감은 심리적 안정으로 연결되고 신속한 업무파악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 사서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다. 토의주제 3

토의주제	각 기관별 전문성 습득을 위한 '스텝매뉴얼' 구축
------	-----------------------------

※ 사례

신규사서 A씨는 도서관으로 발령 받은 후에, 사서과 정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A씨는 이전에 도서관 근무 경력이 있었지만, 모든 도서관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방침이나 상이한 이용자 계층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정리업무시 특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개별 도서관에 적용되는 특수한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에 대한 스텝매뉴얼의 필요

성을 절감했고, 스텝매뉴얼이 있다면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권위와 역사가 있는 기관에 공식화된 스텝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1) 문제점

선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 부재로 인한 신규자의 업무 시행착오로 업무공백과 사서직의 교육청과 도서관의 순환근무로 인한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특수한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의 상이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해결방안 및 활용방법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해당 조직 내의 하위 영역과 나이도에 따라 정리해 놓아서, 누가 보아도 한 눈에 척 “아! 이 업무는 이렇게 발달단계를 밟게 되는 구나”를 알 수 있는 스텝매뉴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 도서관, 교육청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식, 경험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도 스텝매뉴얼을 통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업무자료 혹은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스텝매뉴얼 구축방법

- 스텝매뉴얼 구성요소
- 개요 : 업무목표, 소관사항
- 스텝매뉴얼 관리자 : 각 기관별 담당 실무자
- 용어정의 : 업무이해에 필요한 전문용어, 약어 등의 정의
- 절차/요령 : 업무수행절차 및 처리요령
- 경험/사례 : 업무 수행이 발생한 각종 경험지식, 과거사례 등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각종 문서
- 인맥정보 : 각 기관별 실무사서 명단
- 참고자료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지식의 확보방안을 기술
- 양식/서식 : 업무처리에 빈번히 사용되는 기본 양식이나 서식

(나) 스텝매뉴얼 구축단계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교육청, 도서관) 업무 내용분석 · 각 기관별 특성, 업무연관 파악 · 과거의 업무수행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스텝매뉴얼 작성 (업무개요, 처리절차, 체계도, 관련법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텝매뉴얼 설명회 개최 · 스텝매뉴얼 활용

(다) 활용방법

스텝매뉴얼을 작성해놓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문사서가 육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각 단위조직의 사서들은 해당 스텝매뉴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형태로 갖추어 놓는 노력을 항시 해야 하며, 도서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스텝매뉴얼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기존 매뉴얼과 별반 다를 게 없으므로 각 기관의 환경 변화의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텝매뉴얼을 손질하고 가꾸어 해당조직에 속한 후배 사서들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의 총합이 궁극적으로 각 도서관, 교육청 조직의 학습체계로 정착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기대효과

신규사서는 기관별 차별화된 스텝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능동적인 실무적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결 론

가. 신규사서의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질의 상대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상의 실시간 사서지식iN 운영

나. 불규칙적인 사서 채용과 교육청/ 도서관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소속감 결여 해결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경사연 조직을 활용

다. 인수인계 부재로 인한 신규자의 업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각 기관별 전문적 스텝매뉴얼 구축 요컨대 신규사서가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동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업무의 체계적인 인수인계나 매뉴얼의 부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보 교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효율적인 업무 적응과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천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의 관심과 신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 백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과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 박 치 성

- 1. 서론
- 2.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과제
- 3. 제언 및 결론

여 백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과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 박 치 성

1. 서 론

20세기 산업시대에서 정보혁명시대의 이행은 현대사회에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전통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 출현, 안정적인 고용구조에서 유연한 노동고용구조 변신, 의학 발달에 따른 생명연장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동주기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제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현대사회를 영위하기에는 벼거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미래사회에 어떤 과제로 설계되어야하나 살펴보고, 끝으로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발전 핵심으로서의 평생교육과제

가. 지역사회발전을 이끄는 평생교육모델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2개의 지역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가 연계체제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부천시는 평생학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 끝에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조례제정,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성과를 거두었다.

부천시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사업이 있지만, 지역인적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육성은 눈에 띄는 사업이라 하겠다. 시민이 참여 학습동아리는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주인으로서 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나.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활성화 핵심 선결과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제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과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제와의 연계미비는 지역사회 학습자의 활동을 위한 지원 체제로서 미흡으로 결국 업무 수행능력 저하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습득 및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평생교육 수요는 급증하는 데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자치기구와 행정자치제 통합이 새로운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천시의 사례로 교육자치기구와 자치제와의 협력 및 민·관 협력 체제구축이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

이러한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제가 먼저 선결된다면, 지역주민의 학습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평생교육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 절차만 구비되어있으면, 저절로 지역사회평생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지역전체의 교육적 역량을 한데 모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평생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요구된다. 즉 평생교육프로그램안내, 강사정보, 평생교육기관 등록 등 자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실무자와 강사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프로그램 담당자와 강사의 질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생활 거점별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마을 단위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하며, 거주지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우선 내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런 주민자치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평생학습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학습자들의 결과를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학습 축제 등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3. 제언 및 결론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계속적인 교육이 실시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방식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이 곧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실현이며, 학습공동체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

여 백

「문현정보관리과정」 연수보고서

경기도시흥교육청 사서 / 최 선 주

- 1. 연수에 들어가며
- 2. 교육
- 3. 연수를 마치며

여 백

「문현정보관리과정」 연수보고서

경기도시흥교육청 사서 최 선 주

1. 연수에 들어가며

200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9월 독서의 달 행사 준비에 정신없이 8월을 보내고 있었다. 독서의 달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연수 일정이 전해졌고, 연수 일정과 독서의 달 행사 일정이 겹쳐 무척 당혹스러워 했다. 연수를 포기해야 하는가, 독서의 달 행사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가를 두고 무척이나 갈등했고, 결국 독서의 달 행사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행사 준비에 대한 압박감은 한층 더해졌고, 왜 연수를 포기하지 못했나 스스로를 원망하며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서의 달 행사를 간신히 끝낸 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연수를 받은 일주일은 사서로서의 나의 역할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연수를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러워 했다.

본고는 경기도사서연구회의 여러 회원분들과 연수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연수개요

- (1) 연수과정명 : 문현정보관리과정(1기)
- (2) 연수기관 :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3) 연수기간 : 2005. 09. 26(월) ~ 30(금) 【1주】
- (4) 연수인원 : 72명

【경기도교육청 사서 연수자 - 총 7명】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사서주사 정운영, 사서9급 정은성
안산교육청 사서주사 이재돈, 동두천교육청 사서9급 김문화
양평교육청 사서9급 김성옥, 의정부교육청 사서9급 장선애
시흥교육청 사서9급 최선주

나. 연수 일정

연수 일정은 생각보다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다. 전문강좌 7개(각 3시간)와 교양 강좌 3개(각 2시간)가 있었으며, 매일 오후 2시간의 분임토의 시간이 있었다.

일자	오전	오후	
9.26(월)	도서관 경영관리 - 광동철(청주대 교수)	한국전통 국악의 이해 - 강선숙, 박지연(은평문화회관 강사)	
9.27(화)	미래사회를 위한 도서관 정책과 전망 - 김태승(경기대 교수)	정보봉사와 저작권 관리 - 윤선영(한양대 교수)	인적자원개발 - 성기훈 (연수원 교수)
9.28(수)	도서관 예산과 회계 - 홍강표(교육부 사서주사)	도서관 운영의 우수사례 - 김지봉(과천도서관 사서사무관)	
9.29(목)	디지털 도서관의 기반 기술 - 이지연(연세대 교수)	평생교육과 도서관의 역할 - 김종은(서울대 사서서기관)	
9.30(금)	방송과 대중문화 - 주철환(덕성여대 교수)		

2. 교육

가. 전문 강좌

(1) 도서관 경영관리

광복 이후부터 “도서관법”이 제정된 1963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된 1994년을 지나 최근 IT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세부적·전문적·적극적으로 변하고, 정보유통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도서관의 운영 실태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2) 미래사회를 위한 도서관 정책과 전망

행정체계의 이원화, 도서관의 운영 예산, 도서관장의 자질, 對지역주민 정보서비스 등 현재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고, 도서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3) 정보봉사와 저작권 관리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저작권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저작권법의 의미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성질, 저작자의 권리 제

한, 공정이용을 비롯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이고도 깊이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사서가 이용자들에게 복사를 대신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사서는 복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자존감 때문이 아닌, 저작권의 '사적 이용권'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강의는 무척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3시간의 강의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을 만큼 교수님의 강의는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졌다. 기회가 닿는다면 저작권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4) 도서관 예산과 회계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에게 예산과 회계 업무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나에게는 이 강의 자체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우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소 경직된 상태에서 듣게 되었다.

예산과 회계에 관련된 용어 자체가 낯설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서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다.

이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 도서 연체료는 8시간 이내에 국고로 매일매일 입금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공금횡령이 된다고 한다.

(5) 도서관 운영의 우수사례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김지봉 과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다. 주로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오사카시립도서관의 한국어 홍보 비디오를 통해 일본의 공공도서관의 모습과 운영 마인드를 알 수 있었고, 독특한 건축 형태로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시애틀도서관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6) 디지털 도서관의 기반 기술

최근 인쇄매체인 책과 사서의 존립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강의였다. 디지털 도서관의 전자정보원과 장서의 개발·관리, 정보서비스의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도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MARC, Dublin Core, ONIX, TEIheader 등 메타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7) 평생교육과 도서관의 역할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교육을 주 임무로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철저한 교육연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내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무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척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척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 유형별 특성과 방향을 이해하고 외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나. 교양 강좌

(1) 한국 전통 국악의 이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춘향전의 전수자 강선숙씨를 초빙하여 판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판소리 장단인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등을 직접 소리로 들려줌으로써 연수자들의 사기와 흥을 북돋워 주었다.

(2) 지식기반사회와 인적자원 개발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교재를 덮고 편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귀로만 강의를 들으며, “교육의 質이 경제발전의 質이다”라고 열변을 토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3) 방송과 대중문화

늘 TV에서만 보아오던 사람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척이나 기다린 시간이었다. 그리고 주철환 교수의 강의는 기대했던 것 만큼 내게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주철환 교수는 대중문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타인의 생각과 취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을 철저하게 비판하였고, 요즘 성행하는 TV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밌다. 그리고 때때로 감동을 주니까”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다. 분임토의 활동

분임토의는 7분임으로 나뉘어 매일 2시간씩 이루어졌다. 분임은 비슷한 관종의 사서들로 구성되어 토의를 하는 데에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의견 내용이 모두 비슷하여 토론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단점이 있었다.

분임연구의 대주제는 “도서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혁신 방안”이었고, 분임별 논의된 소주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1분임 :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

- 문 제 점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 부족
 - 학교회계지침 및 도서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 여러 가지 제약으로 계약직 사서는 스스로 자기계발 포기
- 해결방안
 - 다양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도서관 활용수업의 주도자로서의 전문성 제고
 - 학교회계지침 및 도서관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
 - 적극적인 책임의식으로 도서관 업무 개발

(2) 2분임 :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 업무 개선 방안

- 문 제 점
 - 이용자 측면에서 인접분야 자료접근의 어려움
 - 사서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업무과다
 - 자료의 중복구입으로 인한 도서관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 해결방안
 - 이용자 교육 전담 사서 확보
 - 전문적인 주제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사서의 전문성 함양
 - 참고도서의 효율적인 배치 및 자료구입

(3) 3분임 : 교과과정과 연계된 참고자료 구비

- 문 제 점
 - 교수(교사)들의 참고자료 구비에 대한 인식부족
 - 도서관과 학과(학교)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 참고자료 구입 예산의 부족
- 해결방안
 - 교수(교사)들에 대한 지속적 홍보, 참고자료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도서관과 학과(학교)와 정기적인 교류, 필요한 자료 상호제공
 - 참고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습효과 극대화

(4) 4분임 : 도서관 소지품 보관함 운영·관리 개선 방안

- 문 제 점
 - 개인 사물함 사용과 같은 장시간 독점
 - 열쇠 분실로 인한 소지품 분실 문제
 - 개인 자료와 도서관 자료의 병행 이용시 번거로움 유발
- 해결방안
 - 보관함 열쇠에 유출 방지 테잎 부착
 - 보관함 열쇠를 손목시계처럼 패용
 - 가방 이외의 필요한 자료 반입 허용

(5) 5분임 : 공공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문제점 - 예산
 - 인력
 - 사서 처우 문제
- 해결방안 - 예산 확보 위한 사업 확대
 - 서비스(봉사) 프로그램 개발
 - 사서들간의 학술적 커뮤니티 결성

(6) 6분임 : 도서관 이용 효율화를 위한 혁신 방안

- 문제점 - 이용자 교육 및 홍보
 - 외국학술 DB 등 고가 자료의 이용
 - 신간도서의 조기 입수 및 정리
- 해결방안 - 교내 홍보물(학보, 소식지 등)에 시리즈로 연재
 - 수업과 연계한 학술DB 이용자 교육
 - 구매절차 및 정리절차 간소화

(7) 7분임 : 이용자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학교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의 부재
 - 이용자교육 전담사서의 부재
 - 교수들의 이용자교육 참여 저조
- 해결방안 - 이용자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 이용자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 전담 직원 충원
 - 교수의 이용자교육 이수 의무사항을 강제조항으로 명시

3. 연수를 마치며

이번 문헌정보관리과정 연수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사서로서의 키가 3cm 쯤 훌쩍 자란 기분이다.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동기들에게 내년에 꼭 문헌정보관리과정을 신청하라고 추천해 주었다. 미처 말씀을 못 전한 분들께는 본고를 통해 지면으로나마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번 연수에서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전국의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분들이었다. 모두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관종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천차만별이었으나, 사서직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모두 기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

연수 중 아쉬웠던 점은 모든 교육과정이 1년에 1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교육과정이 분기별로 기수가 다양하게 기획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으나,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을 계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출처 확인 불가

여 백

신규자 연수를 다녀와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 박 주 희

여 백

신규자 연수를 다녀와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 박주희

가을이 깊어 갈 무렵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자 연수를 받게 되었다.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 동안 연수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연수원으로 떠나는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부모님의 배웅을 뒤로 한 채 연수원으로 향했다. 초행길이라 잘 찾아 가야 할텐데...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졌다. 지하철을 오랫동안 타고 구파발역에서 내려 법원읍으로 가는 버스를 탄 후에야 안도감이 밀려왔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바깥 경치를 바라보니 온통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법원읍에 도착해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연수원 셔틀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셔틀버스를 타고 연수원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숙소에 들어가 짐을 풀어 놓았다.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강식을 하기 위해 강당으로 가는 길에는 분위기 있는 노래와 함께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원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강당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등록절차를 밟고 있었다. 2주 동안 함께 연수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며 즐거운 연수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았다. 개강식 때 앞으로 열심히 연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원 교육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연수원에서의 일정과 생활 안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즐겁고 보람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하셨다. 그리고 2주 동안 원활한 연수생활을 위해 대표와 총무를 뽑았는데 사서직에서 대표가 선출되어 사서들을 중심으로 다른 직렬들과 친목을 도모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앞섰다. 분임토의를 위해 조를 지정해 주셨는데 사서직은 모두 한 조가 되어 5분임실에서 모일 수 있었다. 총 22명이 모여 공간이 좀 좁은 듯 했으나 얼굴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었다. 시험 때, 면접 때 언 듯 스치면서 보았던 낯익은 얼굴들도 눈에 띠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근무하며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청으로, 도서관으로 발령이 나신 분들과 아직 발령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신규실무자의 현장 적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분임장과 총무를 선출하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는데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인지 더욱 기대

가 되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들... 연수원 생활을 하는데 큰 힘과 활력소가 되었지만 그 대신 결국 살이 찌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연수기간 동안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강의는 역시 전공 강의였다. 독서자료선정, 도서관의 장서관리, 학교도서관의 이해, 도서관관련법 그리고 선배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도서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에서 사서로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대선배님들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에 나도 언제쯤이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능숙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연수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분임토의를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일이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어떻게 하면 신규사서로서 업무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토의방향을 설정해 나갔다.

5분임에서 더 나아가 조를 다시 3개조로 나누어 각 조가 맡은 주제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임토의 시간 이외에 저녁 시간에도 만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고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지어 갔다. 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창작의 고통 속에서 보고서가 탄생되어졌다.

분임토의라고 해서 딱딱하고 지루한 시간이면 어찌나 하고 걱정도 들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동기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각 분임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에도 우리 분임장이 가장 안정적이고 조리 있게 발표를 잘 해서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 하루 동안 문화유적지 및 전적지를 견학 했었는데 연수원 바로 옆에 있는 울곡기념관을 시작으로 버스를 타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그리고 임진각을 둘러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연수를 받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려고 성남도서관을 비롯해 경기도사서연구회 선생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마지막까지 더욱 열심히 연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지필평가를 남겨 두고 공부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함께 있다보니 공부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다. 지필평가를 보고 나니 좀더 잘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연수를 받는 동안 즐거운 일들이 많아 2주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무엇보다 좋은 동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그려했던 것 같다. 그리고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 속에 엉켜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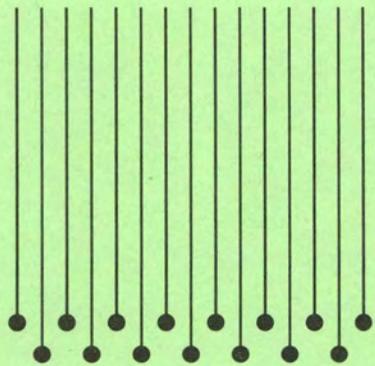
되는 것 같아 시원함을 느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도서관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서가 되어야 하겠다. 도서관이 발전하려면 사서 한사람 한사람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도서관의 미래가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연수원에서의 마지막 날, 2주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졌다. 그렇지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생활할 때에 이 연수가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와 같은 형식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여 백



부 록

여 백

경기도사서연구회(경사연) 카페 운영 현황

경기도부천교육청 사서 / 안 지 현(카페운영자)

- 1. 카페 운영 현황
- 2. 카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여 백

경기도사서연구회(경사연) 카페 운영 현황

경기도부천교육청 사서 안 지 현(카페운영자)

1. 카페 운영 현황

- 가.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ls1995>
나. 카페개설 : 2005년 3월 19일
다. 회원가입 : 80명



<경기도사서연구회 카페 화면>

2. 카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가. 전 회원가입(실명 가입)
 - 나. 지부별로 각종 자료를 탑재하여, 업무관련 정보 제공
(각 지부별로 지부장 및 총무의 책임 하에 자료 탑재)
 - 다. 경사연 공지사항, 각종 공지사항, 지부별 행사관련 공지사항, 그 밖의 경조사 등을 탑재하여 회원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화

※ 회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카페 활성화가 불가능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 백

2005 신규 사서

◆ 발령자

◆ 임용대기자

여 백

2005 신규 사서

◆ 발령자

순 번	이 름	소 속	성 별	전 화	발령일
1	박미숙	고양교육청	여	900-2875	2005. 7. 1
2	이선희	과천도서관	여	02)3677-0326	2005. 7. 1
3	노경아	과천도서과	여	02)3677-0325	2005. 7. 1
4	박유진	과천도서관	여	02)3677-0342	2005. 7. 1
5	추정희	과천도서관	여	02)3677-0351	2005. 7. 1
6	이정미	광주분관	여	761-9648	2005. 7. 1
7	유승립	광주분관	여	761-9648	2005. 7. 1
8	박주희	성남도서관	여	730-3565	2005. 7. 1
9	신원근	성남도서관	남	730-3536	2005. 7. 1
10	최혜숙	여주분관	여	882-1066	2005. 7. 1
11	이현주	연천교육청	여	839-0136	2005. 7. 1
12	진경미	용인교육청	여	331-9212	2005. 7. 1
13	이준명	율곡교육연수원	남	950-0037	2005. 7. 1

◆ 임용대기자

순 번	이 름	소 속	성 별	비 고
1	김현주	임용대기자	여	
2	박진숙	임용대기자	여	
3	성봉근	임용대기자	남	
4	안승진	임용대기자	여	
5	이경소	임용대기자	여	
6	이승혜	임용대기자	여	
7	정미애	임용대기자	여	
8	주경옥	임용대기자	여	
9	홍나리	임용대기자	여	

발령자	임용대기자
13명	9명

